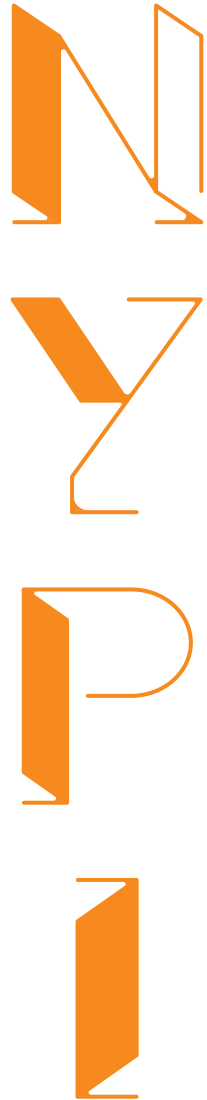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책임연구원 임희진

공동연구원 문호영 정정호



연구보고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책임연구원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문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정호(청운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김평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현황에 대한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개인의 활동 경험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5개년 연구로 실시되어 온 본 연구(「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가 올해 종료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95%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실태조사 분석과 질적 연구를 통해서, 활동 영역 간, 지역 간, 경제수준 간에 참여율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활동 내용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원인이 시간 부족과 정보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양적인 확대보다는 청소년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실화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 높은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행복감을 비롯한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이 처한 상황이 청소년 활동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의 질적 내실화, 청소년활동의 형평성 제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성과 관리, 체계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등 5개 영역에서 9개 정책과제, 17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음.
- 2014년부터 5개년 연구로 수행 중이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2014~2018)」가 종료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영역과 정책의 동향, 참여의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9,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청소년 개인의 활동 경험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활성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협의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정책 분석

-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법적 차원과 학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본 연구의 주요개념이자 중심단어인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활동”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명기하였음.
- 최근 발표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분석

-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97% 내외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의 의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수의 청소년이라도 청소년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난 5년 동안 영역 간 편차가 지속되어 옴. 영역별 참여율에 대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청소년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시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학업 성적, 경제수준, 지역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율, 희망활동, 장애 및 활동요인 등의 차이도 함께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청됨.
- 2015년부터 확인된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였으며, 지도자 만족도는 해마다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일정·시간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만족도는 청소년활동의 평가 및 보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재참여 의사, 활동의 효과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일정과 시간에 대한 고려와 청소년 활동에 보다 적합한 장소 및 장비 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 청소년활동은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거나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등 학교를 통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청소년지도사의 학교 배치 등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함께 전문적인 청소년활동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함.
- 청소년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시간'은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활성화요인으로 밝혀짐. 바꾸어 말하면, 현재는 시간적 제약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확보되면 보다 활발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교육제도의 개선 및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등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의 여건 속에서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위한 시간 확보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살펴본 결과, 2015년도에는 '문화예술 활동'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이 매우 유사한 비율로 1, 2순위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선호도는 2016년도까지 지속됨. 그러나 2017년도부터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예술활동'은 2순위로 밀려남. 그 뒤를 이어 '모험개척활동'이 계속적으로 3순위에, '과학정보활동'이 4순위에, 그리고 '건강·보건활동'이 5순위 등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 및 청소년의 요구가 반영된 청소년활동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나아가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그 결과,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또한 참여한 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지원해줄수록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있어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청소년들은 주위의 권유나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처음 청소년활동을 시작하는데 주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매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활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배우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가며, 때로는 새로운 진로를 찾기도,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함.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타인, 나아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보람을 느끼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조직적, 사회적 정책을 변화 시킴으로써 가능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힘과 영향력을 학습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과 보람, 활동결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이들이 청소년활동에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힘이 됨. 그렇지만, 대학입시의 부담이 강해지는 고학년이 되면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나 교사의 반대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청소년활동의 부담감은 커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스레 대학진학을 위해 해오던 청소년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에 즐겁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며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있음. 한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제한된 인프라, 접근성 등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므로 청소년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지도자들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 그 가운데서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부터, 청소년활동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거나 자신의 ‘꿈(진로)’을 발견해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역량’을 키우거나 ‘배려와 같은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경험해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등 청소년들의 경험과 일치하였음.
-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노력이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활동경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는 현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이고 이들이 청소년들과 맺는 ‘관계’라는 점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청소년지도사들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수행체계 분석

- 본 연구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문항 및 조사체계, 조사주기 등을 비교검토하고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활동 관련 조사들의 통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조사의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전국 규모의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하는 조항 삽입
수행기관	통계작성기관: 여성가족부 조사업무 수행기관: 업무수행역량을 갖춘 기관(예: 연구기관, 대학, 활동지원기관) 및 여론조사기관(현장실사)
조사주기	2년
조사시기	조사 시행년도 상반기(여름방학 전까지 현장조사 완료)
모집단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표본추출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층화	1차 지역, 2차 학교급 및 학교유형 등
표본추출방법	확률에 비례한 층화추출
가중치	조사결과와 모집단 적용을 위한 가중치 산출
표본크기	17,000명 내외(최소 12,500명)
조사방법	학급방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내용	10개 영역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요인,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또는 성과 관련 요인 등 (※청소년활동 관련 문항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삭제)

4. 정책제언

- 청소년활동의 질적 내실화, 청소년활동의 형평성 제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성과 관리, 체계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등 5개 영역에서 9개 정책과제, 17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정책영역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청소년활동의 질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 -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중심의 청소년활동 제공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참여 여건 마련 - 청소년시설 기반 활동 활성화 -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 강화
청소년활동의 형평성 제고	청소년 우대 활성화 - 청소년증 홍보·발급 및 적용 확대
	지역별 격차 및 지역규모별 격차 해소 -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원격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청소년버스 운영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성과 관리	청소년활동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활동이력 관리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기능 확대 - 청소년활동이력제 도입
	청소년정책 성과지표 개선 -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개선 - 청소년백서의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 개선
체계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 - 2년 주기 횡단조사 추진 - 성과 분석 가능한 종단연구 추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조사내용 개선 - 활동의 질 측정가능 문항 추가 - 활동의 성과 측정가능 역량지표 추가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관련 내용 반영 -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연구보고 18-R07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7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Ⅳ」 개요	7
2)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주요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1) 문헌연구	18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18
3) 설문조사	19
4)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20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0

II. 이론적 배경	21
1. 청소년활동의 개념	23
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적 논의	23
2) 개념 설정 시 고려사항	30
3) 청소년활동의 개념 정의	33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범위와 영역	34
3.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	37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활동정책	37
2)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점 방향	54
3) 청소년활동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59
4. 청소년활동 참여의 효과	62
III.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분석	69
1. 조사개요	71
1) 조사대상	71
2) 설문지 개발절차 및 구성	73
3) 조사내용	76
4) 분석방법	88
2. 표본설계	88
1) 모집단 분석	88
2) 표본설계	89
3) 가중치와 모수추정	98
3. 설문조사 결과	102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102
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105
3) 청소년활동 만족도	135
4)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38
5)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39
6)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40
7)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41

8)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42
9)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장소, 대상	147
10)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50
11)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54
12)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58
13)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159
14) 청소년 여가시간	160
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161
4. 요약 및 시사점	183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184
2) 청소년활동 만족도	184
3)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	185
4)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85
5)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장소, 대상	186
6)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86
7)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87
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188

IV. 청소년의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189
-------------	-----

1. 질적 연구 개요	191
1) 청소년 면접 대상자	192
2) 지도자 면접 대상자	194
2. 청소년활동 참여자들의 면접결과	195
1) 청소년들이 인식한 ‘청소년활동’의 범주 혹은 특성	195
2) 청소년활동의 참여 계기 혹은 동기	206
3) 청소년활동의 지속요인: 변화 혹은 성과(outcome)	210
4) 주위 반응: 전반적인 무관심·묵인 속에서 지지 혹은 반대의 경험	217
5) 청소년활동의 중단 이유: 학업 혹은 진학	223

6)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	225
7) 참여자들에게 ‘청소년활동이란...’	230
3. 청소년기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결과	233
1) 최근 기관(지역) 내 청소년활동의 주요 흐름	234
2) 청소년지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활동의 특성 혹은 범주	235
3) 청소년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237
4) 청소년지도사 전문성의 본질: 아이들과 ‘관계’ 맺기	241
5)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방안	243
6) 청소년들의 활동 중단	251
7)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인 변화	252
4. 요약 및 시사점	256
V.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현황과 통합방안	259
1.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현황	261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262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265
3)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68
2.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의 문제점	271
1) 조사체계 비교	271
2) 조사대상 비교	273
3) 조사내용 비교	277
3.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통합안 도출	280
1) 조사내용 및 문항구성	282
2) 조사체계(안)	285
3) 표본규모	289

VI. 정책제언	301
1. 정책제언의 개요	303
2. 정책과제	306
1) 청소년활동의 질적 내실화	306
2) 청소년활동의 형평성 제고	312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성과 관리	315
4) 체계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320
5)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325
참고문헌	329
부록	339
1. 설문지	341
2.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354
ABSTRACT	357

표 목차

표 I - 1	2014년도~2017년도 조사내용 비교	8
표 I - 2	2014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율	10
표 I - 3	2016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1
표 I - 4	2014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1
표 I - 5	2014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2
표 I - 6	2014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3
표 I - 7	2015년도~2017년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4
표 I - 8	2017년도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16
표 II - 1	관련법에 제시된 청소년활동의 개념	26
표 II - 2	청소년활동 개념의 광의적 해석	28
표 II - 3	청소년활동 개념의 협의적 해석	29
표 II - 4	청소년활동 개념의 중간적 해석	30
표 II - 5	청소년활동 개념 설정 시 고려 사항과 검토 의견	32
표 II - 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영역별 분류	36
표 II - 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별 사업 수 및 예산(2018년도)	40
표 II - 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분야에 제시된 청소년활동 관련 세부과제 및 사업	42
표 II - 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분야에 제시된 청소년활동 관련 세부과제 및 사업	46
표 II -1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분야에 제시된 청소년활동 관련 세부과제 및 사업	53
표 II -1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신규 청소년활동정책 세부과제와 사업	55
표 II -12	청소년활동 참여의 효과	65
표 III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2
표 III - 2	2018년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75
표 III -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설문형태	77
표 III - 4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설문형태	78

표 III- 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설문형태	81
표 III- 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설문형태	82
표 III- 7	청소년 여가시간 설문형태	83
표 III- 8	자아존중감 설문문항	84
표 III- 9	진로성숙도 설문문항	85
표 III-10	행복감 설문문항	85
표 III-11	공동체의식 설문문항	86
표 III-12	리더십생활기술 설문문항	87
표 III-13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91
표 III-1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92
표 III-1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93
표 III-1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94
표 III-17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95
표 III-18	2018년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45
표 III-19	2018년도 시도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46
표 III-20	2018년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52
표 III-21	2018년도 시도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53
표 III-22	2018년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156
표 III-23	2018년도 시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157
표 III-24	연도별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160
표 III-2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참여경로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차이	163
표 III-26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참여경로에 따른 참여정도 차이	164
표 III-27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참여경로에 따른 성취기대수준 차이	166
표 III-28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168
표 III-29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169
표 III-30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170
표 III-31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	172
표 III-32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 차이	174
표 III-33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성적 차이	175
표 III-34	독립변인의 구성	177
표 III-35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78
표 III-36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179

표 III-37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80
표 III-38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181
표 III-39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182
표 IV- 1	청소년 FGI 집단 구성	193
표 IV- 2	청소년 FGI 참여자	193
표 IV- 3	지도자 FGI 참여자	194
표 V- 1	2017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조사 내용	264
표 V- 2	2017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조사 내용	267
표 V- 3	조사체계 비교	272
표 V- 4	조사대상 비교	274
표 V- 5	연령대별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75
표 V- 6	주요 조사문항 비교	278
표 V- 7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의 청소년활동 영역 구성안 ..	284
표 V- 8	‘교류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91
표 V- 9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	292
표 V-10	‘교류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93
표 V-11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94
표 V-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295
표 V-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296
표 V-14	‘교류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97
표 V-15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98
표 V-16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 ..	299
표 VI- 1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305
표 VI- 2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희망 활동 간 비교 ..	307
표 VI- 3	시도별 청소년활동 최저·최고 참여율	314
표 VI- 4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평가지표	318
표 VI- 5	청소년활동 실태 성과관리를 위한 청소년정책 (활동·참여영역) 평가지표 개선안	319
표 VI- 6	청소년활동의 질 측정가능 문항 예시	324
표 VI- 7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326

그림 목차

그림 I - 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6
그림 II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영역	35
그림 II -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8
그림 III - 1	설문지 개발절차	74
그림 III - 2	연도별 청소년활동 참여율	103
그림 III - 3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율	104
그림 III - 4	2018년도 시도별 청소년활동 참여율	105
그림 III - 5	연도별 건강·보건활동 참여율	106
그림 III - 6	2018년도 건강·보건활동 참여율	107
그림 III - 7	2018년도 시도별 건강·보건활동 참여율	108
그림 III - 8	연도별 과학정보활동 참여율	109
그림 III - 9	2018년도 과학정보활동 참여율	110
그림 III - 10	2018년도 시도별 과학정보활동 참여율	111
그림 III - 11	연도별 교류활동 참여율	112
그림 III - 12	2018년도 교류활동 참여율	113
그림 III - 13	2018년도 시도별 교류활동 참여율	114
그림 III - 14	연도별 모험개척활동 참여율	115
그림 III - 15	2018년도 모험개척활동 참여율	116
그림 III - 16	2018년도 시도별 모험개척활동 참여율	117
그림 III - 17	연도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118
그림 III - 18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119
그림 III - 19	2018년도 시도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120
그림 III - 20	연도별 봉사활동 참여율	122
그림 III - 21	2018년도 봉사활동 참여율	123
그림 III - 22	2018년도 시도별 봉사활동 참여율	124
그림 III - 23	연도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율	125
그림 III - 24	2018년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율	126
그림 III - 25	2018년도 시도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율 ..	127

그림 III-26	연도별 환경보존활동 참여율	128
그림 III-27	2018년도 환경보존활동 참여율	129
그림 III-28	2018년도 시도별 환경보존활동 참여율	130
그림 III-29	연도별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율	131
그림 III-30	2018년도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율	132
그림 III-31	2018년도 시도별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율	133
그림 III-32	2018년도 참여활동 참여율	134
그림 III-33	2018년도 시도별 참여활동 참여율	135
그림 III-34	연도별 청소년활동 만족도	136
그림 III-35	2018년도 청소년활동 전반적 만족도	137
그림 III-36	연도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38
그림 III-37	연도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39
그림 III-38	연도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41
그림 III-39	연도별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42
그림 III-40	연도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43
그림 III-41	연도별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148
그림 III-42	연도별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149
그림 III-43	연도별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150
그림 III-44	연도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51
그림 III-45	연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155
그림 III-46	연도별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률	158
그림 III-47	연도별 청소년 여가시간	161
그림 VI- 1	정책과제 도출	304
그림 VI- 2	조사수행체계(안)	322
그림 VI- 3	조사주기(안)	323
그림 VI- 4	통계작성승인 절차	327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지식정보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청소년 분야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이 어떠한 역량으로 대비하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미래에 필요한 역량으로 인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이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균형 잡힌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도 있다.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질 높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의 청소년활동정책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인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활동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활동은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확대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최근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입시위주의 생활·교육환경과 학벌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역량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청소년들이 사교육과 매체이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기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따른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청소년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의 양 뿐만 아니라 활동의 질, 활동기회의 평등 등을 포함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각종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는 어떠한지,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내용의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근거 중심의(evidence based) 청소년활동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임희진, 문호영, 조남익, 2017: 3-4).

근거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가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발효 이후 청소년활동 참여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2006년과 2007년에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장근영, 김기현, 2006,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가 정부주도로 실시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조사가 계속 실시되지는 못하였다(임희진, 송병국, 2014: 46).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활동 관련 조사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2007년부터 매년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조사하는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조사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임의표집방식에 기인한 표본의 대표성 등의 문제로 청소년활동정책 수립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임희진 외, 2017: 4). 국가승인통계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도 관련 문항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해 온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주요 조사들 간에 측정치의 편차가 심하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을 파악하고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청소년활동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활동 참여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 활동 경험의 맥락을 파악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질 높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조사문항 및 조사체계, 조사주기 등을 비교검토하고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활동 관련 조사들의 통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개년 연구 중 마지막인 5차 년도 연구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각 연도별 주요 추진계획은 <그림 I-1>과 같다.

1차 년도 (2014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1차 년도 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		▼
2차 년도 (2015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2차 년도 조사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방안 도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		▼
3차 년도 (2016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3차 년도 조사 ·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 개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 전국규모 설문조사
▼		▼
4차 년도 (2017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4차 년도 조사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간담회 · 전국규모 설문조사
▼		▼
5차 년도 (2018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5차 년도 조사 · 5개년 실태조사 종합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 제시 · 청소년활동 참여 조사 통합안 마련 및 실태조사 발전방안 제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워크숍 · 전국규모 설문조사 · 청소년 및 지도사 대상 면접조사

그림 I-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2. 연구내용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V」 개요¹⁾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의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수행되었다. 1~4차 년도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전국규모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워크숍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본 절에서는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1~4차 년도 연구의 조사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 I-1>과 같다. 조사문항은 연도별로 문헌검토, 연구진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 혹은 추가 및 삭제하였다.

4차 년도 연구를 기준으로 조사문항을 살펴보면, 조사영역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정의적 특성, 배경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영역에서는 영역별 참여경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지원정도, 참여형태, 참여경로, 장애요인, 희망 시간, 희망 장소,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활성화 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관련정책 인지도, 여가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정의적 특성 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공동체 의식, 리더십생활기술을, 배경변인 영역에서는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조사대상자는 1차 년도 연구의 경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5,012명의 청소년이었다. 1차 년도 조사는 향후 조사에 대한 예비조사 성격으로, 해당 교급에서 활동을 1년 이상 경험한

1) 1차 년도(임희진, 송병국, 2014), 2차 년도(최창욱 외, 2015), 3차 년도(최창욱 외, 2016), 4차 년도(임희진 외, 2017)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표 1-1 2014년도~2017년도 조사내용 비교

조사영역	조사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	◎	◎	○
	청소년활동 만족도		○	○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		○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	○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	●	○	○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	○	○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	●	○	○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	○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	○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	○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	●	○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	○	○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	○	○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	○	○
	청소년 여가시간			○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참여횟수	○			
	청소년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			
	참여 희망활동 중 참여 못한 활동 유무	○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	●	○	○
	진로성숙도	○	●	○	○
	행복감	○	●	○	○
	공동체 의식			○	○
	리더십 생활기술		○	○	○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동기	○			

조사영역	조사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배경변인	성별	○	○	○	○
	연령			○	
	가족구성원	○	○		
	거주 지역		○		
	부모님 학력	○	○		
	부모님 취업여부	○	○		
	학업성적	○	○	○	○
	가정의 경제수준	○	○	○	○

* 출처 : 1차 년도(임희진, 송병국, 2014), 2차 년도(최창욱 외, 2015), 3차 년도(최창욱 외, 2016), 4차 년도(임희진 외, 2017) 연구의 설문(실태)조사 개요 및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

* 주: ●, ◎ 전년도 대비 수정·보완(단, ◎는 시계열 비교 가능)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년도 조사 이후 2차, 3차, 4차 년도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였으며, 대상 수는 2차 년도 10,506명, 3차 년도 8,627명, 4차 년도 8,773명이었다.

1~4차 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율이다. 1~4차 년도의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99.3%, 97.4%, 96.1%, 97.5%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도 소수이지만 매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활동의 기회 제공과 참여를 보장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의 영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2014년도의 경우는 문화예술활동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건강·보건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2017년에는 세부 활동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건강·보건활동에 포함된 학교폭력 예방활동, 성교육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2〉).

표 I -2 2014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율

(단위: %)

구분	청소년활동 참여율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	
		1순위	참여율
2014년	99.3	문화예술활동	92.9
2015년	97.4	건강·보건활동	93.7
2016년	96.1	건강·보건활동	93.6
2017년	97.5	건강·보건활동	92.7

- 주: 1) 2014년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사회참여활동의 10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2) 2015년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의 10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3) 2016년도와 2017년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의 9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이다.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조사에서는 소극적 참여(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4.2%, 보통 48.2%, 적극적 참여(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7.6%로 나타났으며, 2017년도에는 소극적 참여 14.7%, 보통 44.1%, 적극적 참여 41.2%로 확인되었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의 경우 소극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9.5%p 감소한 반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13.6%p 증가하였다(<표 I -3>).

한편, 2014년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각각 참여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 초등학생,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율은 낮은 편이었다.

표 I -3 2016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단위 : %)

구분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보통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6년	9.9	14.3	48.2	21.7	5.9
2017년	5.0	9.7	44.1	31.4	9.8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형태이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각각 참여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 참여는 모든 영역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활동영역별 참여형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17년도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하였는지를 하나의 문항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4차 년도 연구에 걸쳐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가 청소년활동의 주된 참여형태로 나타난 만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청소년관련시설 간 보다 다양한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표 I -4>).

표 I -4 2014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단위 : %)

구분	1순위	비율
2014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
2015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51.0
2016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46.0
2017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51.7

- * 주: 1) 2014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각각 8가지 참여 방식에 대해 질문함.
 2) 2015년~2017년도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형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했는지를 9가지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

넷째,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이다. 2014년도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1, 2, 3 순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2015년~2017년도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가 청소년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시간부족에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도입·추진과 더불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I-5〉).

표 I-5 2014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단위 : %)

구분	1순위	비율
2014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2015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33.1
2016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30.5
2017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31.2

- * 주: 1) 2014년도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1, 2, 3 순위로 확인함.
2) 2015년~2017년도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은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

다섯째,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이다.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2014년도 연구에서는 11

가지 보기에 대해 1, 2, 3 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2017년도 연구에서는 9가지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 2014년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가, 2015년~2017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가 1순위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시간확보와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표 I -6〉).

표 I -6 2014년도~2017년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단위 : %)

구분	1순위	비율
2014년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
2015년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28.1
2016년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25.7
2017년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26.3

* 주: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2014년도 연구에서는 11가지 보기에 대해 1, 2, 3 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2017년도 연구에서는 9가지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음.

여섯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살펴본 결과, 2015년도와 2016년도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2017년도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4%p, 3.5%p 증가하였고, ‘문화예술활동’의 선호도는 2.1%p, 3.5%p씩 감소하면서 2차와 3차 년도 연구와 비교했을 때 1, 2순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의 순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청년 실업난 등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표 I -7〉).

표 1-7 2015년도~2017년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단위 : %)

구분	1순위	비율	2순위	비율
2015년	문화예술활동	21.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21.0
2016년	문화예술활동	22.5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21.5
2017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25.0	문화예술활동	19.0

일곱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이다. 먼저 2014년도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동기,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등의 정의적 특성 변인과 청소년활동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행복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진로성숙도 중에서는 특히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높았다.

2015년도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정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지난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 수준이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16년도에는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청소년 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 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의 연구에서는 활동내용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에, 활동내용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차 년도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만족도 등의 다양한 참여 실태변인이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도출된 연도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014년도 연구에서는 7개 정책과제를, 2015년도 조사에서는 5대 영역 17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016년도 연구에서는 2차 년도 연구의 4개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발전시킨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진이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고, 2017년도 연구에서는 3차 년도에 제시된 정책과제 중 실태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3개 영역에 대해 추진과제를 세부과제로 구체화하고, 각 세부과제에 대해 추진 단계별 로드맵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표 I-8〉).

표 1-8 2017년도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정책영역	추진과제	세부과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정기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 정기 조사 2. 국내·외 환경 변화 경향 분석 3. 학교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프로그램 컨설턴트 양성과 지원운영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	1.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연구 2.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1. 청소년활동 효과성 검증 중단연구 2. 청소년활동 효과성 측정 표준지표 개발연구
	현장 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	1. 청소년프로그램연구회 운영 2. 프로그램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 운영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1.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추진 2.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개발 3.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1.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 및 적용확대 2.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지원 3. 청소년시설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1. 청소년단체 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 2. 청소년단체 청소년 전문 인력 지원 3. 청소년단체 사업 전문 컨설팅 지원 4. 지역기반 청소년단체 지원 센터 운영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1.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2.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1.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2. 청소년활동 트렌드 제공 3. 청소년활동기록 통합 시스템 구축

2)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주요 연구내용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파악 및 효과성 분석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1~3학년) 및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와 성과를 파악하였으며, 5개년(2014년~2018년)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18년 조사문항은 문헌검토, 연구진회의의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차 년도 설문문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에 참여활동 영역을 추가하였다. 설문지 수정 후 IRB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질 높은 청소년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양적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청소년 활동의 참여동기 및 장애요인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청소년 및 지도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통합안 마련

본 연구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3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는 조사대상, 조사시점, 문항구성 및 응답방식 등의 차이로 결과 값이 상당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²⁾ 특히, 각 조사에서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직접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조사들의 공통기준 마련 및 통합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각 조사의 수행체계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2) 청소년활동 참여율: 본 조사(97.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96.5%), 여성가족부(76.4%)

(3)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청소년 및 지도사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장애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태조사 통합안을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한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청소년활동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청소년활동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의견³⁾과 청소년활동의 조사범위에 대한 의견⁴⁾을 수렴하고,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⁵⁾하였다. 참여활동 영역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내에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⁷⁾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분석틀 구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⁸⁾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자문(2018. 2. 1. 전문가 자문회의)

4)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실태조사 범위에 관한 의견수렴(2018. 2. 19. 전문가 자문회의)

5)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실태조사 범위에 관한 의견수렴(2018. 2. 19. 전문가 자문회의)

6) 5차년도(2018년) 설문지 검토(2018. 4. 16. 원내 자문회의)

7) 참여활동 관련 문항 개발(2018. 4. 12. 원내 자문회의)

8) 실태조사 분석틀 구성 적절성·타당성 및 기타 분석 관련사항 검토(2018. 8. 2. 전문가 자문회의)

또한 청소년 대상 질적조사에 대한 자문⁹⁾을 구하였고, 질적조사의 조사도구·분석틀·분석방법 논의¹⁰⁾, 면접내용 및 FGI 절차 논의¹¹⁾, 청소년 및 지도사 대상 FGI 분석결과 검토¹²⁾를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자문회의¹³⁾를 실시하였고,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 정책 동향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¹⁴⁾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들의 수행체계 분석에 대해 논의¹⁵⁾하였다.

3) 설문조사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9,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7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모집단을 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으로 분류하고 17개 광역 시도별(세종시 별도 포함)로 집락화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추출 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3차 추출 단위를 학생으로 하고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 동의 과정¹⁶⁾을 진행하고,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
- 9) 청소년 대상 질적조사 방법에 대한 자문(2018. 3. 16. 전문가 자문회의)
 - 10) 청소년 대상 면접의 조사도구, 분석틀, 분석방법 등 논의(2018. 7. 19. 전문가 자문회의)
 - 11) 청소년 대상 면접내용 및 FGI 절차 논의(2018. 8. 2. 전문가 자문회의)
 - 12) 정성조사(청소년 & 지도사 대상 FGI) 분석 결과 검토(2018. 10. 4. 전문가 자문회의)
 - 13) 청소년활동의 법적, 정책적, 학술적 차원에서의 개념 논의(2018. 6. 19. 전문가 자문회의)
 - 14)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정책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2018. 8. 23. 전문가 워크숍)
 - 15)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수행체계 분석 논의(2018. 5. 16. 전문가 자문회의)
 - 16)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2018년 5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 및 표본설계에 대해서는 3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4)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및 장애요인 등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4개 그룹과 지도사 그룹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활동의 경험이 비교적 많은 청소년을 통하여 본인을 비롯하여 주변에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친구, 활동을 그만 둔 친구의 사례를 듣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참여동기 및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였다.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3차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연구 시작 시점에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¹⁷⁾을 구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들의 통합안에 관한 논의¹⁸⁾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¹⁹⁾

17)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2018. 2.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통합안 관련 논의(2018. 4.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9)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방안 협의(2018. 11.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활동의 개념
-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범위와 영역
- 3.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
- 4. 청소년활동 참여의 효과

1. 청소년활동의 개념²⁰⁾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적, 정책적, 학술적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왔으나, 학계에서도 여전히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주요개념이자 중심단어인 “청소년활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명기해 두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적 논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1990년대 초반 ‘청소년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그 당시에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었으나 그 이후에 청소년활동을 세 가지 영역 즉, 고유활동, 임의활동, 수련활동으로 구분하면서 개념상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김민, 음선희, 오승근, 2017).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학자들마다 각각 다른 개념으로 청소년활동을

20) 이 절은 오승근 교수(명지전문대학)가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정의하였다(권일남, 최창욱, 2011). 최근에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youth work’이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안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제기되면서 청소년 지도, 육성, 사업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상 혼란이 더 가중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박선영, 2017).

청소년활동의 개념상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다수 등장하였다(권일남, 최창욱, 2011; 김민 외, 2017;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2015). 이 연구들은 청소년활동의 영역 및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김민 외(2017)는 청소년활동 개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청소년활동의 분류를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여전히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타 분야에서 희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임희진, 송병국, 2014).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학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어 학문적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청소년활동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다(최창욱 외, 2015: 12). 청소년활동을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범위와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법적 차원과 학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적 차원의 청소년활동 개념

법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항에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서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고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청소년활동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차원의 청소년활동 개념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권일남, 최창욱, 2011; 최창욱 외, 2015). 그 주장의 핵심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정의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은 큰 문제로 삼지 않으나 그 뒤의 진술문 즉,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김민 외(2017)는 청소년활동의 법적 개념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활동 분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활동을 분류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어떤 기준과 근거로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그리고 교류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문화활동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최창욱 외, 2015). 둘째, 청소년활동의 분류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청소년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관련된 과학기술과 제조업 등의 변화와 융합의 흐름을 단순한 활동이 아닌 결합된 활동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이 수련활동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주장이다. 청소년활동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개념에 있어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II-1 관련법에 제시된 청소년활동의 개념

법령		청소년활동의 개념
청소년 기본법 (1991년)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항)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수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청소년활동은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2004년)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항)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활동영역 구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5호)	“청소년수련활동”이라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이라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意識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이라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출처: 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2014). 청소년학개론. p. 281.

이상과 같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법적 개념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청소년활동을 규정한 관련법에 대한 개정 요구도 있다. 권일남, 최창욱(2011)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기에 지·덕·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핵심역량(자아역량, 신체역량, 갈등조절역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시민성역량)을 계발하도록 체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김민 외(2017)는 청소년활동의 진흥과 지원의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이라고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활동 개념에 대한 법개정의 공통적인 주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2) 학술적 차원의 청소년활동 개념

청소년학이라는 학문이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등장하면서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동안 제시된 청소년활동의 개념들은 학자들마다 각각 상이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 개념을 정의한 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그 해석의 범위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① 광의적 해석

청소년활동을 광의적으로 해석한 학자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삶 전체 또는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청소년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강대근(1981)은 “청소년의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권일남, 최창욱, 2011: 15에서 재인용). 한승희(1994)의 경우도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서적, 육체적 행위 일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의 활동 범위를 일반적인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 구태익(2000)의 경우에도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활동 전반으로 보았다. 그밖에 도종수, 성준모(2013)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개념으로 포괄한다. 요컨대, 광의적 해석은 청소년학이 학문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또는 학문적 발생 초기에 청소년활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를 학교 내외 또는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표 II-2 청소년활동 개념의 광의적 해석

학 자	개 념
강대근(1981)	청소년의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것
한승희(1994)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행위 일반
구태익(2000)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
도종수, 성준모(2013)	청소년의 발달과 욕구에 기초하여 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적응,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

② 협의적 해석

청소년활동을 협의적으로 해석한 학자들은 청소년 시기에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수련활동 중심의 체험위주 신체활동을 청소년활동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유진이 (2007)는“수련활동, 학교교육의 보완이라는 형식으로 학교교육에서 이룰 수 없는 다양한 학습경험의 충족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활의 다양성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청소년활동을 정의하였다. 이광호, 변윤연(2007)은 “지식위주의 틀에 갇힌 한국사회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깨울 수 있게 하는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청소년활동을 주장하면서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비교과활동을 중심

(권일남, 1999; 전국재, 1998; 권일남, 최창욱, 2011: 18에서 재인용)으로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협의적 해석은 청소년활동이 초기 정착기를 지나면서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도록 그 영역을 학교 밖으로 제한하였다. 요컨대, 협의적 해석은 청소년활동을 기존 학교중심, 교과위주에서 탈피한 청소년 주도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표 II-3 청소년활동 개념의 협의적 해석

학 자	개 념
전국재(1998)	교실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이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을 통한 제반 체험활동
권일남(1999)	학교의 교실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생 중 다양한 경험의 시기에 자아탐색을 통한 자신감의 확충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도가 매우 높은 활동
유진이(2007)	수련활동-청소년의 건전육성과 학교교육의 보완이라는 형식으로 꾸준히 기반을 조성. 학교교육에서 이룰 수 없는 다양한 학습경험의 충족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활의 다양성을 얻도록 유도
이광호, 변윤연(2007)	지식위주의 틀에 갇힌 한국사회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의 거인을 스스로 깨울 수 있게 하는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③ 중간적 해석

중간적인 해석은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일부 특징적인 측면을 인정하되 학교라는 장소 중심으로 제한하지 않는 주장이다. 예컨대, 천정웅, 김정주(1999)는 “교내외 생활권 및 자연권에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광호(2005)도 “일상생활에서 오감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득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청소년활동

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강조하였다(김민 외, 2017;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문성호, 문호영, 2010). 중간적 해석에서는 자발성 또는 조직적인 특징을 청소년활동의 개념으로 강조한다(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 2008; 김민 외, 2017).

표 II-4 청소년활동 개념의 중간적 해석

학 자	개 념
천정웅, 김정주(1999)	청소년활동이란 교내 외 생활권 및 자연권에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 중심활동
이광호(2005)	체험활동-일상생활에서 오감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득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활동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체험활동으로 명명하였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반의 활동’으로 규정함.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2008)	청소년들이 행하는 자발적·비조직적 활동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
문성호, 문호영(2010)	청소년기에 필요한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일련의 체험활동
김민, 음선희, 오승근(2017)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2) 개념 설정 시 고려사항

앞서 살펴본 법적, 학술적 청소년활동의 개념에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 개념상 세부 분류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술적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 개념을 주장한 학자들마다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해석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권일남, 최창욱(2011) 그리고 김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개념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권일남, 최창욱(2011)은 청소년활동 개념 설정 시 고려사항으로 첫째, 조직화된 활동 여부, 둘째,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 셋째, 형식성의 정도, 넷째, 교육적 측면의 강조 여부 등을 꼽았다. 김민 외(2017)에서도 권일남, 최창욱(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고려사항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활동의 법적 정의를 전제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목적, 둘째, 청소년활동의 참여방법, 셋째, 청소년활동의 영역과 내용, 넷째, 청소년활동의 세부 분류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활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에 앞서 청소년활동의 목적과 참여 형태, 특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의 목적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라고 개인의 균형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술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발달과업에 따른 성장을 강조하는 주장들(구태익, 2000; 진은설, 임영식, 2009)이 많다. 그런데 몇몇 연구들(권일남, 최창욱, 2011; 김진호, 2007)에서는 청소년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역량개발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학교교육의 보완역할로서 다양한 경험을 갖는 것을 청소년활동의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균형 성장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에 목적을 두는 것이 거시적 차원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김진호, 2007)를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과는 다르게 비형식, 비교과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참여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활동을 살펴보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보다는 자발적으로 활동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에 학교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등을 위주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이 정규교과 형태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라는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창의적 체험활동이 외부활동 형태로 진행될 때 교과과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확장시켜준다(김진호, 2008; 조영승, 2003; 조용하 외, 1994; 권일남, 최창욱, 2011: 15에서 재인용). 그런데 개인활동과 집단활동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들의 주장이 다소 엇갈린다. 김진호(2008)는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교육활동을 청소년 활동에 포함한다. 반면에 청소년활동을 개인활동과 구분하여 집단체험활동에 중점을 두는 의견도 많다(조영승, 2003; 조용하 외, 1994; 권일남, 최창욱, 2011: 15에서 재인용).

또한 학교라는 인지적 차원의 활동과는 차별화된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천정웅, 김정주, 1999). 이러한 경우 인지적인 변화를 꾀하는 인식 개선 등의 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체험활동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구분하고, 체험활동과 인지활동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개인은 물론 집단까지 포함하고, 체험활동을 인식개선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표 II-5 청소년활동 개념 설정 시 고려 사항과 검토 의견

고려 사항	검토 의견
청소년활동의 목적	- 긍정적 성장과 발달 - 개인의 역량개발
청소년활동의 참여 형태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자발적 참여 - 학교 밖 비형식 교육에서의 자발적 참여
청소년활동의 특성	-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 - 인식개선 등의 인지활동 포함한 체험활동

3) 청소년활동의 개념 정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법적 및 학술적 차원에서의 개념적 논의와 개념 설정 시의 고려사항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의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정한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목적을 보편적 성장과 발달 외 개인 역량 개발까지 확대한다. 둘째, 청소년활동을 학교 정규교과 뿐 아니라 학교 밖 비형식 교육까지 확대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포함한다. 셋째, 청소년활동을 집단 활동 뿐 아니라 개인 활동을 포함하며, 인식개선 등 인지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체험 활동까지 개념을 확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서 측정하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 개발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참여의 목적이 단순히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특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완수해야 할 발달과업 차원과 국가·사회적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자발성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의 개념 설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자발적 참여이다. 자발적 참여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참여라고 정의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까지 참여로 이해해야 한다. 즉, 청소년활동의 참여는 청소년이 단순히 청소년활동에 배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문성호, 2006).

셋째, 청소년활동은 인지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체험활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학교의 인지적인 교과위주 수업과는 구분되는 방향으로 강조하면서 체험활동을 강조한 것이 사실이다(천정웅, 김정주, 1999). 그런데 체험활동을 인지적 활동을 제외한 외부의 체험활동에만 국한하다보면 청소년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청소년활동이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외부로 드러난 동적인 경험이 수반되는 활동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전환을 포함한 인지적 측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체험활동의 영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범위와 영역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계와 현장의 공통된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활동 개념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 개념에 혼란을 더하는 것이 영역 분류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영역을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의 세부 분류는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제시되는 청소년활동 세부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분류가 불명확하고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김민 외, 2017). 실제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된 청소년활동 개념을 준용하기보다는 다른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²¹⁾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영역별 분류를 본 조사의 활동영역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첫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내용

21)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정책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2018. 8. 23. 전문가 워크숍)

분류가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의 9개 활동영역은 포괄적이다. 9개 영역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분류를 비롯한 여타 활동의 분류에서도 피하지 못하는 문제이고, 중복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활동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조사에서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분류기준 이라고 판단하였다(임희진, 송병국, 2014: 14-15). 다만 이 영역 분류는 참여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참여활동 영역을 추가로 개발하여 10개 활동영역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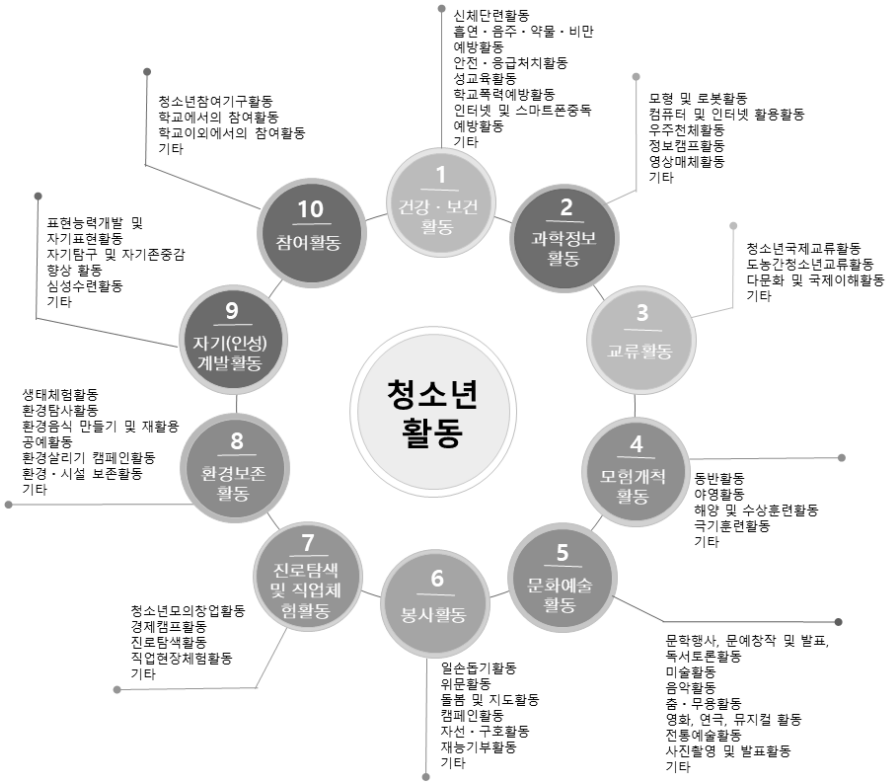


그림 11-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영역

표 II-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영역별 분류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자기(인성)개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3).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 영역은 정책과 시의적 요구를 반영하여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도 이전 연구에서 9개 청소년활동 영역 외에 청소년참여 활동을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정책적, 시대적 흐름에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학교 내외에서의 참여활동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학문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청소년활동 영역에서도 분류체계가 지속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²²⁾

22)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정책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2018. 8. 23. 전문가 워크숍)

3.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²³⁾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가 2014년부터 진행되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국내외 동향이 중앙부처, 지자체, 해외사례 등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연구의 시작 시점인 2014년에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중심으로 국내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유럽연합의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아무거나 프로젝트」, 경기도 광명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와의 연계협력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정책으로의 확산 및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8년에 발표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활동정책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활동 제 영역을 포함하는 분야에서의 정책 즉, “국가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모든 전략 혹은 방침”(김정수, 2016)을 의미한다. 요컨대,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활동 제 영역에서 법과 제도 등을 포괄하는 전략과 방침을 뜻한다.

최근의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정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는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에 그간의 운영 성과를 중심

23) 이 절은 오승근 교수(명지전문대학)의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 워크숍」(2018. 8. 23.) 발제 원고를 재구성·보완한 것임.

으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검토 과정 및 공청회를 거쳐 2018년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p. 13.

그림 II-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최종 확정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시·도는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청소년기본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 계획에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국가 전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유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18.09.20. 인출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전 부처에서 제시한 청소년 정책 유관 사업의 수는 총 284개, 사업 예산은 총 15조 9,673억원에 이른다. 한편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수가 116개, 예산은 4,704억 6,400만원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사업의 수도 전체 사업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 규모 면에서도 전 부처 청소년 유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5%에 불과하다. 청소년 주무부처의 예산규모로는 너무 작은 수치여서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표 II-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별 사업 수 및 예산(2018년도)

(단위 : 개, 백만원)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전 부처 청소년정책 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사업		
			사업	예산	사업	예산	활동 정책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 청소년 참여 확대	8	10	17,199	7	27,747	세부과제 11 (사업 17)
	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7	36	92,932	14		
	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5	22	18,532	9		
	소 계	30	68	128,583	30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12	18	101,558	6	158,584	세부과제 9 (사업 16)
	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17	46	329,059	12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15	31	645,267	8		
	소 계	44	95	1,075,884	26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16	36	9,590,270	14	154,797	세부과제 5 (사업 5)
	2. 대상별 맞춤형 지원	24	37	4,957,524	15		
	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9	23	85,704	6		
	소 계	49	96	14,633,498	3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10	11	6,786	11	129,336	세부과제 0 (사업 0)
	2.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5	6	108,106	6		
	3.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6	8	14,444	8		포괄포상제 1(1)
	소 계	21	25	129,336	25		
총 계		144	284	15,967,300	116,470,464		26 (39)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pp. 10-11, 16 재구성

청소년 정책목표 중에서 청소년 사업의 수와 예산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로 세부과제 49개(사업 96개)이며, 사업비는 14조 6,334억 9,800만원이다. 사업비 규모는 전체 사업비 대비 약 91.6%에 이른다. 그 다음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로 세부과제 수가 44개(사업 95개)이며, 사업비는 1조 758억 8,400만원이다. 전체 사업비 대비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분야는 각각 세부과제 30개(사업 68개), 세부과제 21개(사업 25개)이다. 세부과제와 사업 수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분야가 다소 많으나 예산 규모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 분야가 좀 더 크다. 그러나 두 분야 모두 전체 청소년사업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상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선별하기 위하여 연구진과 학계 전문가가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²⁴⁾.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10개 영역과 관련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세부과제는 26개, 사업은 39개였다. 정책 목표로만 보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대부분이 청소년활동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2018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에 제시된 세부과제와 사업을 확인해 보면, 정책목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분야와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분야에서도 본 연구의 청소년활동정책의 개념에 해당되는 청소년 사업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관계 부처합동으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2018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제시한 청소년 사업 중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8〉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분야에 제시된 청소년활동 관련 세부과제 및 사업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비롯

24)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 워크숍(2018. 8. 23. 전문가 워크숍)

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부처에 걸쳐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II-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분야에 제시된 청소년활동 관련 세부과제 및 사업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참여제도의 공고화	여성 가족부	계속	799 (-)	청소년참여위원회 226개	참여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 가족부	계속	2,972 (-)	청소년활동참여 인원 177.5만 명	전 영역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 안전부	계속	10,421 (△698)	학생 봉사활동 실적 교육부 시스템(NEIS) 제공 527만 건	봉사
청소년참여 내실화하기	여성 가족부	계속	799 (-)	지침 시달1회	참여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	여성 가족부	계속	150 (-)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자만족도 86.8점	참여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	교육부	신규	2,547 (△2,547)	시도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관련 사업 수 34개	참여
학생자치법정 확대	법무부	계속	230 (▽32)	만족도설문조사 87.4점	참여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여성 가족부	계속	799 (-)	참여포탈 페이지 뷰 연 13만 건	참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여성 가족부	신규	0 (-)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자만족도 86.8점	참여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	여성 가족부	계속	949 (△50)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공모·지원 75개 팀	참여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1-2-3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교육부	계속	25 (△25)	법제화 방안 정책 연구 후 시안 마련	문화예술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보건 복지부	신규	0 (-)	놀이정책 수립	문화예술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여가 유형 다양화 및 공간 제공	여성 가족부	계속	934 (△125)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인원 128,202명	문화예술
문화가 있는날 '동동동 문화놀이터' 지원	문화 체육 관광부	신규	800 (△800)	동동동 문화 놀이터 프로그램 지원 180회	문화예술
1-3-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확산	교육부	신규	15 (△15)	18년 개발한 민주 시민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 1종	자기(인성) 계발
다문화이해교육	여성 가족부	계속	105 (-)	교육 연인원 45,000명	교류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부	계속	1,000 (-)	운영 학교 수 200개교	교류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법제처	계속	407 (△3)	어린이 법제관 전체 만족도 90점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방송 통신 위원회	계속	1,030 (-)	교육 참여학교 450개교, 100회 교육 실시	자기(인성) 계발
1-3-2 양성평등 의식제고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여성 가족부	계속	0 (-)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4회	건강·보건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교육부	신규	25 (△25)	매뉴얼 개발·보급	건강·보건
초·중·고등학교 내 폭력예방교육 강화	여성 가족부	계속	556 (▽364)	만족도 조사 81.2점	건강·보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	여성 가족부	계속	0 (-)	-	건강·보건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여성 가족부	계속	4,294 (▽114)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인원 2,257천명	건강·보건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1-3-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여성 가족부	계속	608 (△48)	가족인성분야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사업 지원 11개	자기(인성) 계발
청소년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여성 가족부	계속	40 (-)	우수사례 시상 장관상 2개	자기(인성) 계발
	교육부	계속	20 (-)	연구대회 출품 작품 수 280편	
청소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청소년 상담사 연수	여성 가족부	계속	600 (△19)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 만족도 85점	자기(인성) 계발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참가자 4,300명	
청소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원·청소년지도자 연수	교육부	계속	407 (△109)	연수 만족도 (5점 만점) 4.2점	자기(인성) 계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4,287 (▽79)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미디어 교육 자원처 417개	과학정보
청소년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	여성 가족부	계속	0 (-)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 고지(5월, 10월)	자기(인성) 계발
	교육부	계속	450 (▽50)	운영학교 150개소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180 (▽80)	청소년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30회	자기(인성) 계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1건	자기(인성) 계발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서울: 여성가족부. pp. 76-101. 재구성

* 예산의 ()는 2018년 예산의 2017년 대비 증감임. △증, ▽감, -동일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분야의 2018년도 사업은 <표 II-9>에 정리하였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주도 활동 관련 사업을 2018년 현재 추진 중이다. 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분야에는 본 연구에서 실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직접 활동은 아니지만, 청소년활동의 체계, 기반, 인프라, 안전 등에 관련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는 세 가지 관련 세부사업이 있다.

첫째,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소년 역량지표를 개발하고 표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둘째, “2-1-2 청소년 주도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은 청소년 활동의 성과를 모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셋째, “2-1-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는 기존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을 재편하여 종합적인 형태로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기존 각각 제공하던 활동, 상담, 복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청소년 사업들은 모두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청소년활동의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최근 청소년 활동에서 강조되는 영역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도 청소년활동과 안전에 관련된 조문이 동법 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에 청소년 활동 안전 관련 세부과제는 2개(사업 4개)이다.

첫째, “2-2-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평가 실시’,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수련시설 활성화 및 프로그램 안전 향상 도모’의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평가 실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련시설 활성화 및 프로그램 안전 향상 도모’는 청소년수련 시설에 안전관리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둘째, “2-2-5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사전 신고하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험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점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활동에서 전제되어야 할 기초적인 종합점검, 종사자교육, 안전인력 배치 등의 안전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청소년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분야에 제시된 청소년활동 관련 세부과제 및 사업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지원체계’ 구축	여성 가족부	신규	10 (△10)	역량지표 표준안 마련	기타
중점추진영역 중심활동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지원	여성 가족부	신규	27 (△27)	중점 추진영역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지원 9개	과학정보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연계 기능 강화	여성 가족부	계속	340 (-)	청소년 포상제 참여자 수 3,386명	전 영역
중점 추진영역 중심 활동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지원	교육부	계속	2,617 (△616)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구회 수혜학생 수 4만 명	과학정보
메이커 문화 확산	중소 벤처 기업부	신규	10,950 (△10,770)	메이커 동아리 150개 활동 지원	과학정보
2-1-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청소년주도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	여성 가족부	계속	3,552 (-)	청소년활동 참여인원 177.5만 명	전 영역
청소년활동 성과의 집적 및 공유 기반 마련	여성 가족부	신규	20 (△20)	-	기타
2-1-3 과학기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청소년 비즈쿨	중소 벤처 기업부	계속	7,665 (-)	운영기관 550개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	특허청	계속	8,938 (△690)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생 만족도 89.39	과학정보
2-1-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여성 가족부	신규	0 (-)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법률 개정안 마련	기타
2-2-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어울림마당 활성화	여성 가족부	계속	2,762 (-)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횟수 시·도 11회 이상, 시·군·구 6회 이상 운영	문화예술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2,500개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	여성 가족부	계속	0 (-)	청소년증 발급 건수 23만 건	문화예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문화 활동지원)	여성 가족부	계속	180 (-)	문화예술교육 참여인원 597명	문화예술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문화예술 교육강사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119,907 (▽1,255)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950개	문화예술
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203 (△22)	청소년 국악체험 및 국악강좌 30회 청소년 국악문화탐방 10회, 참가인원 1,500명	문화예술
국립 현대미술관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105 (▽4)	프로그램 참여자 및 자료배부10,380명	문화예술
국립중앙박물관 청소년 대상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200 (▽58)	교육 프로그램 운영 15종류, 416회 운영	문화예술
4-H회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농촌 진흥청	계속	41 (△6.5)	청소년 참가인원 350명	문화예술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 재청	계속	1,170 (△135)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만족도 81.8점	문화예술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문화 재청	계속	60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위촉 26천 건	문화예술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문화 재청	계속	75 (△5)	참여자 만족도 72점	문화예술
청소년 대상 왕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 재청	계속	608 (-)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92.95점	문화예술
청소년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문화 재청	계속	23 (▽7)	양성 교육 및 운영 횟수 20회	문화예술
어린이 및 청소년 해양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 재청	계속	78 (△8)	프로그램운영실적 36회	문화예술
주니어 도슨트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문화 재청	계속	4.9 (△0.5)	운영 프로그램 32회	문화예술
현충사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문화 재청	계속	20 (-)	참가자 수 3,300명	문화예술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산림청	계속	23,235 (▽851)	산림교육 참여 인원 773명	문화예술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2-2-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청소년 체력증진 기반조성, 스포츠 활동여건 개선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5,292 (▽888)	프로그램 참여 누적인원 496,422명	건강·보건
초등·특수학교 스포츠 강사배치 지원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57,793 (△5,165)	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 92.4점	건강·보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20,142 (△2,245)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90점	건강·보건
행복나눔 스포츠 교실 운영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3,222 (▽466)	참여인원 (연간 누적인원) 58,500명	건강·보건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26,972 (△7,000)	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 92.4점	건강·보건
2-2-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여성 가족부	신규	100 (-)	청소년 주도형 프로젝트 기반 활동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특성화 및 교류활동 내실화	여성 가족부	계속	822 (▽400)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효과성 증가율 8%p 증가	교류
국가 간 교류 등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운영 및 내실화	교육부	계속	661 (▽88)	교류인원 누적 820명	교류
청소년 교류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확산	여성 가족부	계속	674 (△174)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만족도 80점	교류
2023 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여성 가족부	계속	402 (△102)	세계잼버리 특별법안 제정 추진 특별안 발의	교류
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외교부	계속	40 (△21)	만족도 80점	교류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외교부	계속	20 (-)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만족도 (5점 만점) 4.5점	교류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학교 방문 강연	외교부	계속	10 (-)	학교 방문 강연 만족도 4.7점	교류
글짓기 및 논문 공모전	외교부	계속	149 (△21)	글짓기 및 논문 공모전 시행횟수 (각1회)	교류
국제개발 협력특강 및 동아리 교육	외교부	계속	79 (△19.5)	국제개발협력 특강 시행 학교 72개, 동아리 교육 시행 학교 20개교, 신규 강사 30명	교류
2-2-4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여성 가족부	계속	230 (-)	북한이탈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 4회	교류
2-2-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평가 실시	여성 가족부	계속	940 (▽10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적합률 99%	기타
체험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여성 가족부	계속	650 (▽229)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오프라인 이수인원 1,700명	기타
수련시설 활성화 및 프로그램 안전 향상 도모	여성 가족부	계속	4,349 (△357)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인원 374명	기타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인증 활성화 및 현장점검 강화)	여성 가족부	계속	0 (-)	신고인증 프로그램 수 8,600개	기타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안전 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충)	교육부	신규	7,200 (△7,200)	체험시설 수 확대 24개	기타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생존수영 교육 등 물놀이 교육 강화)	교육부	계속	20,300 (△4,100)	참여 학생 수 1,101,757명	건강·보건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2,214 (▽186)	점검시설 수 270개소 교육인원 400명	기타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2-3-1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등 초·중등 학생 대상 진로활동 확대	여성 가족부	계속	0 (-)	여성가족부 진로직업체험의 날 참여자 200명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교육부	신규	2,937 (△2,937)	교원 연수 만족도 3.5점 진로학기제 연구 선도 학교 만족도 3.5점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고용 노동부	계속	22,000 (△3,700)	운영대학 수 100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41%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강화	고용 노동부	계속	19,253 (△4,896)	전시체험관 방문 객 수 78.96만 명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체험관 이용자 만족도 83.5점	
				자유학기제 프로 그램 참여 학생 수 214천 명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 의 형평성 제고	교육부	계속	3,050 (▽1,450)	진로체험버스참여 누적 1,600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무형유산 진로탐색 캠프	문화 재청	계속	25 (△7)	참가자 수 210명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청소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문화 재청	계속	2 (△1)	운영 프로그램 수 3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2-3-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내일이룸학교 운영	여성 가족부	계속	3,357 (△627)	훈련생 중도 탈락률 35.8%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작업장' 활성화 등	여성 가족부	계속	0 (-)	직업훈련공간 설치한 꿈드림센터 수 2개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 동기 강화 (스포츠역량강화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1,147.5 (▽100.5)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85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청소년비즈쿨-학교밖지원센터	중소 벤처 기업부	계속	7,665 (-)	운영기관 15개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2-3-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강화	여성 가족부	계속	87,931 (△25,440)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이용 청소년 수 연 42,799명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교육부	계속	5,250 (▽3,360)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및 활용 유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	여성 가족부	계속	0 (-)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처 활동정보 제공 확대)	교육부	계속	500 (-)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 (각 지역별 지역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계속	1,600 (△1,600)	17개 시·도별 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구축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농업·농촌 미래유망 산업분야 자유학년제 연계	농림 축산 식품부	계속	450 (△300)	진로 현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 11,000명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 교류 촉진	해양 수산부	계속	2,862 (▽63)	체험교육 참여 인원 7.7만 명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서울: 여성가족부. pp. 76-101. 재구성

* 예산의 ()는 2018년 예산의 2017년 대비 증감임. △증, ▽감, -동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본 연구 ‘건강·보건활동’ 영역의 ‘음주·흡연·약물·비만 예방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관련 사업들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추진 중이다.

표 II-1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분야에 제시된 청소년
활동 관련 세부과제 및 사업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연속성	예산	‘18년 성과목표치	본 연구 관련영역
3-1-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강화 및 예방교육 체계화	여성 가족부	계속	500 (-)	또래상담자 양성인원 25만 명	건강·보건
	교육부	계속	2,555 (▽1,093)	만족도 4.1점	건강·보건
3-3-1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의 유해악물 노출 예방활동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교육부	계속	0 (-)	예방교육 실시율 흡연 85%, 음주 85%	건강·보건
3-3-2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매체 대응 역량 강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계속	1,025 (▽216)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69.4만 명	건강·보건
건전게임 이용문화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500 (▽20)	건전게임문화 가족캠프 청소년 및 학 부모 참여자 800명	건강·보건
3-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계속	546 (▽174)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건수(성인학부모) 8만 명	건강·보건
				가정방문상담 1,500건	
게임과몰입 예방 강화	문화 체육 관광부	계속	2,294 (▽876)	게임리터러시 교육 참가 인원 14,235명	건강·보건
				게임이용자 패널 (코호트) 조사 실시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서울: 여성가족부. pp. 76-101. 재구성

* 예산의 ()는 2018년 예산의 2017년 대비 증감임. △증, ▽감, -동일

이상에서 청소년활동 영역별 국가·사회적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활동 중 하나는 직업탐색 및 직업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목 받는 청소년활동 영역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이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통한 행복한 청소년이 강조되고, 어울림마당과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진작하려는 흐름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모험개척활동과 환경보존활동은 청소년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사업인 청소년포상제를 제외하고 청소년활동정책 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없었다.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산림청 등 유관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모험개척활동은 청소년기 성장 발달에서 중요한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위험활동을 끼리는 현실 상황 때문에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깊어가는 환경보존활동 영역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도 향후 개선될 점이다.

2)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점 방향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신규로 제시된 4건의 청소년활동 정책 사업과 각 사업에서 제시된 핵심단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5년간의 청소년 활동정책의 중점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신규 청소년활동정책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에 해당하는 세부과제 26개, 사업 39건 중에서 대부분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 온

계속과제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세부과제 3개, 사업 3건은 신규로 제시된 청소년활동정책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새로 추진되는 청소년활동정책이니만큼 향후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점 방향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부과제별 해당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신규 청소년활동정책 세부과제와 사업

세부 과제	청소년 사업	활동 영역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청소년정책 참여 활성화	참여활동
2-1-1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중점추진영역 중심활동 및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지원	과학정보활동
2-2-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정보 공유의 장 마련	교류활동

첫째, 세부과제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는 ‘청소년정책 참여 활성화’ 사업이다. 이 과제는 청소년 참여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참여 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수렴 과정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과정에 청소년 위원(19-24세)을 위촉하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하고, 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도록 하려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제는 청소년특별회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청소년 참여활동정책이다. 청소년들이 정책의제를 선정해서 제시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이 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세부과제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중점추진영역 중심활동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지원’ 사업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점추진영역은 민주시민, 사회정서활동, STEAM, 메이커 활동 등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강조되는 분야이다.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조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에도 완전히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기존에도 인증 프로그램과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되는 메이커 활동, 드론 관련 활동들이 선정되어 이미 많은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시민, STEAM 관련 활동은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강조해 온 영역이다.

셋째, 세부과제 '2-2-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사업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청소년 주도, 성과 공유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내용은 주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프로젝트 기반 활동(PBL)을 도입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이 활동(PBL)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구현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지식을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하며, 오프라인 프로젝트 활동을 표준화된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주도형 교류활동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요컨대,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던 국제교류 사업의 방향을 청소년이 주도하도록 하며, 그 성과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것이다. 국제교류 사업이 단절되는 이유가 시·공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활성화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된 핵심용어로 살펴본 청소년 활동정책

이상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점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6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규 청소년활동정책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2018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제시된 세부과제와 사업에서 자주 등장한 핵심 용어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점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핵심 용어 1. 성교육활동

성교육활동과 관련된 용어들은 주로 건강·보건활동 영역에서 자주 등장한다. 유사 또는 관련 용어들은 양성평등, 젠더폭력,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 이 용어들은 ‘1-3-2 양성평등 의식제고’에서 총 4건의 사업이 제시될 만큼 강조되고 있다. 주관 부서가 다르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소년 성교육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핵심 용어 2.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용어들은 수요자중심 활동, 프로젝트 기반 활동(PBL), 학생자치활동 등이다. ‘2-1-2 청소년 주도 다양한 활동기반 마련’, ‘1-1-2 참여활동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2-1-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과 같은 세부과제에서 청소년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이미 짜여져 있거나,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청소년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를 지양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프로젝트 기반 활동(PBL)이 등장한 이유도 청소년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용어 3. 청소년 참여

청소년 참여활동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강조된 부분이다.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의 참여활동은 기존에도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지만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내실 있는 참여를 강조하였다. 참여기구를 통한 참여제도를 공고히 하고 내실화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곳에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1-1-1 지역사회

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증진’,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등이다. 그밖에도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에서의 참여는 청소년활동의 자기주도성과도 관련이 깊다.

핵심 용어 4.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참여활동 영역에서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고르게 등장한다. 중앙집중적, 표준화된 방식의 청소년활동보다 지역사회 활동 여건에 기반한 청소년활동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예가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지역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확대 등이다.

핵심 용어 5. 온라인 지원체계

온라인 지원체계와 관련된 유사 용어들은 디지털플랫폼, 청소년사업의 디지털화, 활동정보 공유의 장 등이다. 이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되는 측면이 기존에 수행된 청소년활동의 실적을 집적,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1-1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마련’, ‘2-2-3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정보 공유의 장 마련’, ‘2-3-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등에서도 온라인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용어 6.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역량에 대한 강조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있었으나 제6차에서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제가 추가되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이나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 중점사업이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핵심용어 7. 자유공간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1-2-3) 세부과제에 ‘청소년 놀이, 여가유형 다양화 및 공간제공’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에서도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을 언급하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청년)의 창업 활성화 사업에서도 카페 등 자유공간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3) 청소년활동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활동정책의 한계

이상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나타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비중이 낮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청소년정책을 확인한 결과 전체 세부과제 144개, 사업 284건 중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시행계획 사업 수는 116건에 불과하고(여성가족부, 2018), 전체 청소년 사업 중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은 세부과제 26개, 사업 수 39건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전체 청소년정책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 수에 대한 시행계획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정책 중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은 39건 (33.6%)에 불과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영역 간 정책이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활동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제6차 기본계획 상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이들 영역 간 사업 수에서 불균형이 심하다. 특히, 모험개척활동과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영역 간 고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이 부족하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다수 있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 사업은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활동정책에서만큼은 가장 큰 인구집단인 일반 청소년 대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 복지 정책이 따로 있는데 청소년활동정책에서도 일반 청소년이 소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 청소년활동정책이 계획대로 내실화하여 사업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할 예산 마련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작지만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미책정된 상태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필수이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정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이 미흡하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신규로 제시한 사업을 보면,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에서의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계획에 포함된 신규 청소년활동정책 4건은 기존에 추진하던 계속사업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예산 미확보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아쉬움이 있다.

(2) 청소년활동정책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을 토대로 향후 청소년활동정책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활동 영역 간 균형 있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10개 영역은 청소년의 균형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활동들이다. 모험개척활동이나 환경보존활동 등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사업의 공백이 없도록 청소년활동정책 수립 시에 영역 간 활동 내용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존 사업이나 청소년시설, 단체에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활동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효율적 수행하여야 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의 수와 예산의 비중이 너무 낮다. 또한 부처 간 중복 사업들도 발견된다.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중복되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조정하고, 청소년사업이 부재한 활동영역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계획을 전환 또는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넷째,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활동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청소년시설 개편이나 청소년활동 전반이 생활권 수련시설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자연권 수련시설 즉,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의 청소년시설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 방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자 또는 실무자가 파악하는 청소년활동정책의 흐름과는 체감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분석 자료는 계획이며, 실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현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의 세부과제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영역 구분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수립된 제6차 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

활동정책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 청소년활동 참여의 효과

청소년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관련 연구마다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영역, 측정변수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의 여러 영역을 하나로 아울러 살펴본 연구와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등의 개별 영역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1~4차 년도에서 살펴본 연구동향 결과와 최근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의 효과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가족, 학교 등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청소년활동은 개인의 심리·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은 긍정적 자아관에 영향을 미치고(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자아존중감(김순규, 최혜정, 박신애, 2012;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도종수, 성준모, 2013; 박재숙, 2010; 송진영, 최영란, 2016; 이성은, 2009; 이성흠, 윤초희, 2015), 자기효능감(김미현, 이현우, 정영근, 2011; 문성호, 문호영, 2010;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0)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자기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성호, 문호영, 2010; 임영식 외, 2010).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도종수, 성준모, 2013; 문성호, 문호영, 2010), 자아탄력성(송운용, 2016; 최경학, 문성호, 2015)과 적응유연성이

향상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진은설, 2013). 또한, 청소년활동은 삶의 만족과 행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청소년활동의 참여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김남정, 임영식, 2012; 서정아, 2015)와 행복감(주관적 안녕감)(김순규 외, 2012; 김현철 외, 2013; 도종수, 2011; 도종수, 성준모, 2013)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창의성(문성호, 문호영, 2010; 이성흠, 윤초희, 2015; 임영식 외, 2010), 내재적 동기(김현철 외, 2013), 성취동기(도종수, 성준모, 2013), 몰입(김현철 외, 2013), 주체성(문성호, 문호영, 2010), 자율성(문성호, 문호영, 2010), 책임감(이성흠, 윤초희, 2015), 탐구심(문성호, 문호영, 2010), 도전정신(문성호, 문호영, 2010), 낙관성(도종수, 성준모, 2013) 등 다양한 심리·정서발달에 대한 청소년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개인적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보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자주 검증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은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내적 직업가치관이 향상되고(김재철 외, 2011), 진로성숙도 수준 또한 직·간접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우철, 임순선, 한상철, 2011; 김재철 외, 2011;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6; 홍은숙, 이화숙, 2015). 이와 더불어 경제의식이 향상되고(문성호, 문호영, 2010),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심, 주석진, 201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청소년활동은 사회성 및 대인관계 발달에 효과적이다. 우선, 청소년활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비롯하여(강현주, 신인순, 2015; 고관우, 남진열, 2011; 구지윤, 김유나, 2016; 도종수, 성준모, 2013; 문성호, 문호영, 2010; 송운용, 2016; 송진영, 최영란, 2016) 긍정적인 지역사회인식(강현주, 신인순, 2015),

글로벌역량(김기현, 황세영, 강영배, 이경자, 2015), 리더십생활기술(최창욱, 신윤희, 2012), 시민성(정건희, 김응수, 김정휘, 2013), 세계시민의식(김기현 외, 2015; 조남익, 김고은, 2014), 사회적 책임감(문성호, 문호영, 2010; 임영식 외, 2010), 다문화수용성(김기현 외, 2015), 팀워크(조남익, 김고은, 2014) 등의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실제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도종수, 성준모, 2013),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 효도 및 예의와 같은 인성 덕목을 향상시켜 대인관계의 이해와 관계형성을 돕는다(이성흙, 윤초희, 2015). 무엇보다도 청소년활동을 통해 가정에서의 부모관계(김순규 외, 2012)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고관우, 남진열, 2011)가 좋아지고,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순규 외, 2012).

넷째, 청소년활동은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향상에 긍정적이다. 청소년활동의 경험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김윤정, 고정민, 2015), 학업성취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규 외, 2012; 김윤정, 고정민, 2015).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은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김순규 외, 2012),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관우, 남진열, 2011; 송진영, 최영란, 2016; 이윤택 외, 2016).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영역별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I-12〉).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김현철 외, 2013), 나아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개별 연구에서 어떻게 청소년활동을 정의하고 분류하며 측정하는지 등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청소년활동 연구가 진행되고 다양한 논의들이 학계 및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청소년활동의 개념, 분류에 대한 재검토 등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12 청소년활동 참여의 효과

구분	효과	선행연구	
심리 · 정서	- 긍정적 자아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이해, 자신감,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향상 - 창의성, 성취동기, 몰입, 주체성, 자율성, 책임감, 탐구심, 도전 정신, 낙관성 등 향상	김남정, 임영식(2012) 김순규 외(2012) 김현철 외(2013) 도종수, 성준모(2013) 박재숙(2010) 이성은(2009) 임영식 외(2010) 최경학, 문성호(2015)	김미현 외(2011) 김재철 외(2011) 도종수(2011) 문성호, 문호영(2010) 서정아(2015) 송진영, 최영란(2016) 이성흠, 윤초희(2015) 진은설(2013)
진로	- 내적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경제의식, 진로준비행동 등 향상	김우철 외(2011) 김현철 외(2016) 조성심, 주식진(2010)	김재철 외(2011) 문성호, 문호영(2010) 홍은숙, 이화숙(2015)
사회성 및 대인관계	- 공동체의식, 긍정적 지역사회인식, 글로벌역량, 리더십생활기술, 시민성, 세계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다문화수용성, 팀워크 등 향상 - 긍정적 대인관계, 배려·소통, 효도·예의, 긍정적 부모관계, 긍정적 교우관계, 또래관계만족도 등 향상	강현주, 신인순(2015) 김기현 외(2015) 도종수, 성준모(2013) 송진영, 최영란(2016) 임영식 외(2010) 최창욱, 신윤희(2012)	고관우, 남진열(2011) 김순규 외(2012) 문성호, 문호영(2010) 이성흠, 윤초희(2015) 정건희 외(2013) 조남익, 김고은(2014)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적,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등 향상	고관우, 남진열(2011) 김윤정, 고정민(2015) 송진영, 최영란(2016)	김순규 외(2012) 송진영, 최영란(2016) 이응택 외(2016)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다양한 효과 가운데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등의 정의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변인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한 특성이자 기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효과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활동의 효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변인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소년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자아존중감 역시 혼란과 변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이성은, 2009). 이처럼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아존중감은 청소년활동에 의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종수, 성준모, 2013; 송진영, 최영란, 2016; 이성은, 2009). 특히,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여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김순규 외, 2012; 박재숙, 2010), 건강·보건활동(도종수, 성준모, 2013), 문화예술활동(도종수, 성준모, 2013), 과학정보활동(도종수, 성준모, 2013), 교류활동(도종수, 성준모, 2013), 봉사활동(박재숙, 2010; 이성은, 2009)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진로발달의 측면에서도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발달의 정도와 상대적인 직업준비도는 진로성숙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개인, 가정, 학교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활동 또한 진로성숙도 향상에 기여하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정미나, 노자은, 2016).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보였다(김우철 외, 2011).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참여는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을 통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재철 외, 2011), 봉사활동 등의 특정 영역에서의 효과성도 검증되고 있다(홍은숙, 이화숙, 2015).

아울러 시대적으로 학업과 입시경쟁 등의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적으로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행복감을 청소년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활동 역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개발·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즉, 청소년활동의 참여는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도종수, 성준모, 2013), 세부적으로 건강·보건활동(도종수, 성준모, 2013), 봉사활동(도종수, 2011) 등의 영역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을 중요한 결과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사회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대부분 집단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이나 방법론적으로도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유대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식이나 리더십생활기술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공동체의식(강현주, 신인순, 2015; 고관우, 남진열, 2011; 구지윤, 김유나, 2016; 도종수, 성준모, 2013; 송운용, 2016; 송진영, 최영란, 2016)과 리더십생활기술(최창욱, 신윤희, 2012) 등을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효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역량들의 함양을 위해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와 활성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개발과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을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의적 특성과 청소년활동 참여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분석

- 1. 조사개요
- 2. 표본설계
- 3. 설문조사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실사는 2018년 5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9,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된 학교에 협조공문 및 조사 안내문을 발송한 후, 조사전문기관에서 해당학교에 연락해 조사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조사를 수락한 학교에 대해 조사원이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에 앞서 조사전문기관에서 조사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4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서울, 대전, 부산, 강원, 제주에서 조사개요, 문항별 지침,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표본 수 9,000명을 목표로 최종 9,04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51.9%, 여자 청소년이 48.1%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1.3%, 중학생이 29.2%, 고등학생이 39.5%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0.9%,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8.2%,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0.9%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속한 청소년이 34.6%, 중위권에 속한 청소년이 41.9%, 하위권에 속한 청소년이 23.6%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상 집단이 47.3%, 중 집단이 38.0%, 하 집단이 14.8%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 24.0%, 서울 14.2%, 부산 6.7%, 경남 6.1%, 인천 5.9%, 대구 5.6%, 경북 5.2%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9,041	100.0	지역	서울	1,284	14.2
성별	남자	4,693	51.9		부산	610	6.7
	여자	4,348	48.1		대구	509	5.6
학교급	초등학교	2,828	31.3		인천	531	5.9
	중학교	2,642	29.2		광주	287	3.2
	고등학교	3,571	39.5		대전	300	3.3
지역규모	대도시	3,696	40.9		울산	255	2.8
	중소도시	4,358	48.2		세종	196	2.2
	읍면지역	987	10.9		경기	2,168	24.0
학업성적	상	3,124	34.6		강원	230	2.5
	중	3,784	41.9		충북	306	3.4
	하	2,128	23.6		충남	385	4.3
경제수준	상	4,270	47.3		전북	330	3.7
	중	3,431	38.0		전남	257	2.8
	하	1,333	14.8		경북	472	5.2
					경남	548	6.1
					제주	373	4.1

* 주 : 지역은 응답자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설문지 개발절차 및 구성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문헌검토와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4차 년도의 설문문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즉, 지난 5년간의 청소년활동 참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활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문항의 추가 및 수정은 최소화하였다. 다만, 청소년 활동 영역별 참여경험에 ‘참여활동’을 추가하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참여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혹은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의 ‘참여활동’ 실태는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활동’ 설문문항은 관련 문헌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문항은 크게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학교에서의 참여활동’(학생회, 학생자치법정 등),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 등), ‘기타’로 구분하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확인하였다. 신규문항 추가와 함께 4차 년도 설문지에서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포함한 참여활동 예시(‘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문항 내 청소년참여 활동 예시)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4차 년도 설문지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문항을 반영한 후 청소년들이 쉽게 파악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디자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지 개발절차는 <그림 III-1>과 같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완성된 설문지는 <표 III-2>와 같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서는 먼저 청소년활동 영역을 크게 10가지로 구분하여 영역별 참여경험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지원정도, 참여형태, 참여경로, 장애요인, 희망 시간, 희망 장소, 활성화요인과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여가 시간에 대해 확인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정의적 특성’에서는 자아존중감, 진로 성숙도,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등을 ‘배경변인’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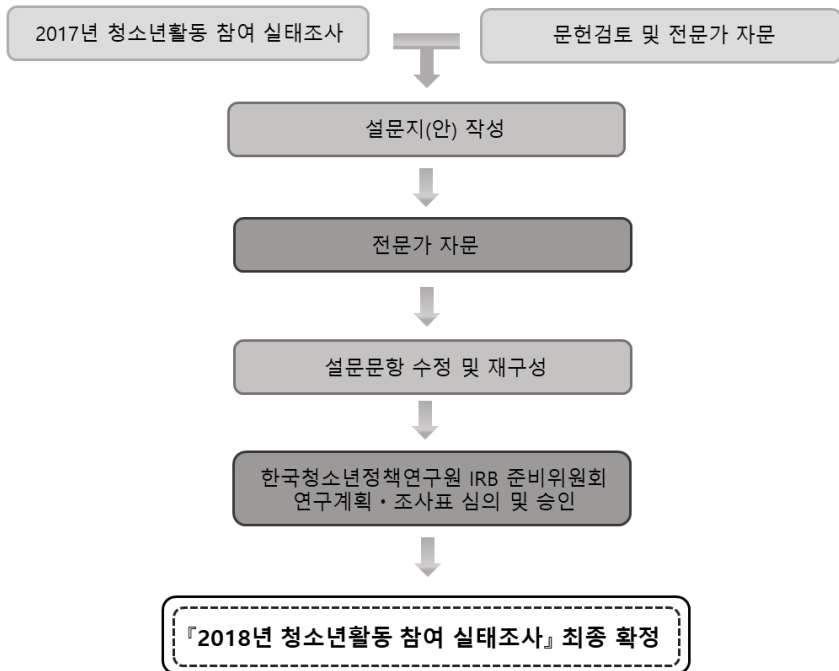


그림 III-1 설문지 개발절차

표 Ⅲ-2 2018년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7	문1(1~7)
		과학정보활동	6	문2(1~6)
		교류활동	4	문3(1~4)
		모험개척활동	5	문4(1~5)
		문화예술활동	8	문5(1~8)
		봉사활동	7	문6(1~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5	문7(1~5)
		환경보존활동	6	문8(1~6)
		자기(인성)계발활동	4	문9(1~4)
		참여활동	4	문10(1~4)
	청소년활동 만족도		5	문11-1(1~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	문11-2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	문11-3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1	문11-4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	문11-5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	문11-6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	문11-7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1	문12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1	문13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1	문14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	문1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문1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0	문17(1~10)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9	문18(1~9)
	청소년 여가시간		3	문19(1~3)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10	문20(1~10)
	진로성숙도		7	문21(1~7)
	행복감		7	문22(1~7)
	공동체 의식		4	문23(1~4)
	리더십생활기술		30	문24, 25, 26(1~10)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배경변인	성별	1	설문지 표지
	학업성적	1	배경문항1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2

* 출처: 임희진 외(201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p. 80. 수정

* 각 조사 항목의 세부 문항내용과 출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3) 조사내용²⁵⁾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①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영역별 세부 활동들의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청소년활동 영역은 인증수련활동의 9가지 영역별 분류(여성가족부, 2014a)를 바탕으로 1개 영역의 명칭 변경(직업체험활동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으로 변경)과 신규로 1개 영역을 추가(참여활동)하여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 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활동’의 10개로 구분²⁶⁾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세부 활동도 인증수련활동의 영역별 활동 예시(여성가족부,

25) 이 부분은 4차 년도 연구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임희진 외, 2017)의 ‘조사내용’(pp. 81-88)을 재인용한 후 수정·보완하였음.

26) 1차 년도(임희진, 송병국, 2014)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 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사회참여활동의 10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2차 년도(최창욱 외, 2015)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 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의 10 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3차 년도(최창욱 외, 2016)와 4차 년도(임희진 외, 2017)에서는 건강·보건 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 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의 9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2014a)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의 경우는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를 참고로 문화예술행사를 분류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참여활동’의 세부 활동은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8)과 문성호 외(2016), 황여정(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최근 1년간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 없음’과 ‘참여한 적 있음’(1~2번, 3~4번, 5번 이상)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② 청소년활동 만족도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은 ‘전반적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III-3 청소년활동 만족도 설문형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공간과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창욱, 전명기(2013)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보통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④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창욱, 전명기(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조금 기대하였다’, ‘아주 기대가 컸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⑤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문항은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부모님 혹은 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청소년지도자)이 얼마나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III-4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설문형태

구분	전혀 지원이 없다	지원이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지원이 있는 편이다	매우 지원이 많다
1) 부모님 혹은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지도자(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⑥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 참여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형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9가지 항목(①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②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③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④교내-교외 연계활동으로 참여, ⑤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⑥온라인 동아리활동으로 참여, ⑦종교활동으로 참여, ⑧개인적으로 참여, ⑨가족과 함께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⑦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청소년활동 참여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경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가지 항목(①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②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③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④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⑤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⑥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⑦기타) 중에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⑧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에 대해 9가지 항목(①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②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③참가비용이 부담돼서, ④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⑤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⑦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⑧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⑨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⑨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문성호, 윤동엽, 박승곤, 정지윤(2014)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대해 ‘방과 후’, ‘주말’, ‘학교 수업시간 중’, ‘방학기간’, ‘기타’의 5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⑩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철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활동을 어떤 장소에서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해 ‘학교’,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야외’, ‘기타’의 5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⑪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오해섭, 맹영임, 문호영(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즉,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면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해 ‘혼자’, ‘친구’, ‘가족’, ‘선·후배’, ‘기타’의 5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⑫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문항은 임지연 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9가지 항목①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②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⑤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⑥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⑦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⑧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⑨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⑬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활동’ 중에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청소년활동 영역은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여성가족부, 2014a)를 참고하여 10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Ⅲ-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설문형태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건강·보건활동 ④ 모험개척활동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⑩ 참여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③ 교류활동 ⑥ 봉사활동 ⑨ 자기(인성)계발활동

⑭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문항은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12)를 참고하여 개발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과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0가지 시설(①청소년수련관, ②청소년수련원, ③청소년문화의집, ④청소년야영장, ⑤유스호스텔, ⑥도서관, ⑦공연 및

전시시설, ⑧사회복지관, ⑨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⑩주민센터, 문화센터)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이용여부 및 이용빈도를 확인하였다.

표 III-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설문형태

구분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한 적 있음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
1) 청소년수련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수련원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문화의집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야영장	①	②	③	④	⑤
5) 유스호스텔	①	②	③	④	⑤
6)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7) 공연 및 전시시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9)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①	②	③	④	⑤
10) 주민센터, 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⑮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활동정책의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9가지 청소년활동정책(①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②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③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④청소년특별회의, ⑤청소년참여위원회, ⑥청소년운영위원회, ⑦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⑧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⑨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의 3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⑩ 청소년 여가시간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살펴하기 위한 조사문항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와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 실태조사’(이기봉, 2010)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즉,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식사시간, 취침, 학교수업, 학교숙제, 학원·과외 등의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평일’, ‘휴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시간 단위로 질문하였다.

표 Ⅲ-7 청소년 여가시간 설문형태

1)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평일 하루 평균		시간
2)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휴일 하루 평균		시간
3)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시간

(2) 정의적 특성

① 자아존중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이 중 5개 문항은 역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역 문항은 역 채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임희진, 송병국, 2014: 6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58로 나타났다.

표 III-8 자아존중감 설문문항

자아존중감 설문문항	역 문항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출처: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66. 수정

② 진로성숙도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문항(이경상, 조혜영, 2004)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척도는 총 7문항이며, 모든 문항이 역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을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00으로 분석되었다.

③ 행복감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 6문항(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에 단일 문항을 추가하여 확인하였다(임희진, 송병국, 2014: 68 재인용). 이 중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 6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역 문항은 역 채점)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주관적 행복’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14로 확인되었다.

표 Ⅲ-9 진로성숙도 설문문항

진로성숙도 설문문항	역 문항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
4)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
5)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
7)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

* 출처: 이경상, 조혜영(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Ⅱ - 조사개요보고서. pp. 292-293.

표 Ⅲ-10 행복감 설문문항

행복감 설문문항	역 문항	비고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주관적 행복
2)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롭다	○	단일 문항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 출처: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p. 68. 수정

④ 공동체의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공동체의식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각 문항은 4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08로 확인되었다.

표 III-11 공동체의식 설문문항

공동체의식 설문문항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5차 조사 코드북: 제5회 학술대회용.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1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에서 2016년 3월 14일 인출.

⑤ 리더십생활기술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은 Dormody & Seevers(1994), Morris(1996), Seevers & Dormody(1995), Seevers, Dormody & Clason(1995), Wingenbach(1995)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한 최창욱(2001)의 리더십생활기술 척도(30 문항)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68로 분석되었다.

표 III-12 리더십생활기술 설문문항

리더십생활기술 설문문항
1)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7)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8)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편이다
10)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11)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12)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1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1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15)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1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17)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1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20)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2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23)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24)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2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26)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27)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28)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2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 출처: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pp. 123-124.

4) 분석방법²⁷⁾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χ^2 검증, t 검증, ANOVA(사후검증 Scheffe)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남자, 여자),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적(상, 중, 하), 경제수준(상, 중, 하), 지역(17개 시도) 등을 배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2. 표본설계²⁸⁾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343,46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316,061명(30.3%), 중학교 1,370,382명(31.6%), 고등학교 1,657,021명(38.1%)이다. 지역별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를 고려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27) 이 부분은 4차년도 연구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Ⅳ(임희진 외, 2017)의 '분석방법'(p.89)을 재인용한 후 수정·보완하였음.

28) 이 절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발췌하여 요약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분석 보고서의 「표본설계」에 수록되어 있음.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 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2,727명, 중학교: 2,840명, 고등학교: 3,433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 수준 하에서 약 $\pm 1.0\%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7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7개)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구분 :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III-13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 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4	471,824	1,316,061 (30.3%)	2,727 (30.3%)		2,592 (28.6%)		
	5	429,475						
	6	414,762						
중학교	1	448,884	1,370,382 (31.6%)	2,840 (31.6%)		2,772 (30.6%)		
	2	465,461						
	3	456,037						
고등 학교	유형 1 (일반고)	1	362,564	1,177,233 (27.1%)	2,439 (27.1%)	3,433 (38.1%)	2,430 (26.8%)	3,687 (40.7%)
		2	412,236					
		3	402,433					
	유형 2 (자율고)	1	42,568	132,772 (3.1%)	275 (3.1%)		450 (5.0%)	
		2	45,352					
		3	44,852					
	유형 3 (특성화고)	1	103,354	318,430 (7.3%)	660 (7.3%)		675 (7.5%)	
		2	107,776					
		3	107,300					
	유형 4 (특수 목적고)	1	9,756	28,586 (0.7%)	59 (0.7%)		132 (1.5%)	
		2	9,641					
		3	9,189					
합계			4,343,464 (100.0%)	9,000 (100.0%)		9,051 (100.0%)		

표 Ⅲ-1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42	467	378	46	197	59
경기	745	754	711	67	84	
인천	158	162	129			
강원	78	85	82	44	95	
충북	86	89	66			
충남	118	118	97			
대전	87	92	70			
세종	20	18	12			
경북	129	135	119	74	221	
경남	188	193	178			
부산	153	166	126			
대구	130	142	106			
울산	66	68	61			
전북	100	110	101	43	62	
전남	95	102	80			
광주	92	99	90			
제주	40	40	32			
합계	2,727	2,840	2,439	275	660	59

* 총계: 9,000명

표 Ⅲ-1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8.4	16.7	12.6	1.5	7.9	2.7
경기	31.0	26.9	23.7	2.2	3.4	
인천	6.6	5.8	4.3			
강원	3.3	3.0	2.7	1.5	3.8	
충북	3.6	3.2	2.2			
충남	4.9	4.2	3.2			
대전	3.6	3.3	2.3			
세종	0.8	0.6	0.4			
경북	5.4	4.8	4.0	2.5	8.8	
경남	7.9	6.9	5.9			
부산	6.4	5.9	4.2			
대구	5.4	5.1	3.5			
울산	2.8	2.4	2.0			
전북	4.2	3.9	3.4	1.4	2.5	
전남	4.0	3.6	2.7			
광주	3.8	3.5	3.0			
제주	1.7	1.4	1.1			
합계	113.6	101.4	81.3	9.2	26.4	2.7

* 총계: 334.6개

표 III-1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3(1)	9(3)	6(2)
경기	27(9)	24(8)	21(7)	3(1)	3(1)	
인천	6(2)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3(1)	3(1)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6(2)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3(1)	3(1)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05(35)	99(33)	81(27)	15(5)	24(8)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36(108)개

표 III-17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60	90	225	132
경기	648	672	630	90	75	
인천	144	168	90			
강원	72	84	90	90	75	
충북	72	84	90			
충남	144	84	90			
대전	72	84	90			
세종	72	84	90			
경북	144	168	90	90	225	
경남	216	168	180			
부산	144	168	90			
대구	144	168	90			
울산	72	84	90			
전북	72	84	90	90	75	
전남	72	84	90			
광주	72	84	90			
제주	72	84	90			
합계	2,592	2,772	2,430	450	675	132

* 총계: 9,051명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14>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 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II-15>와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36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43명(학년당 약 14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4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I-13>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 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0명, 자율고(유형 2) 30명, 특성화고(유형 3) 25명, 특수목적고(유형 4) 22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III-16> 및 <표 III-17>과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16>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은 아래 식과 같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 \text{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text{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text{ 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3. 설문조사 결과²⁹⁾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97.1%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활동 참여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97% 내외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도에는 99.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16년도에는 96.1%의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영역별 참여율을 보면, ‘건강·보건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은 해마다 1, 2위의 순위를 차지하며, 대부분 8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5년간 참여율은 각각 60%, 70% 내외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및 ‘환경보존활동’ 참여율은 2014년도 대비 최근 약 2배가량의 증가 추세를 보고하였으며, ‘교류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의 참여율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지금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의 의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수의 청소년이라도 청소년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에 대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도 함께 도모해야 하겠다.

2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1차 연도(임희진, 송병국, 2014), 2차 연도(최창욱 외, 2015), 3차 연도(최창욱 외, 2016), 4차 연도(임희진, 외, 2017)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비교·제시하였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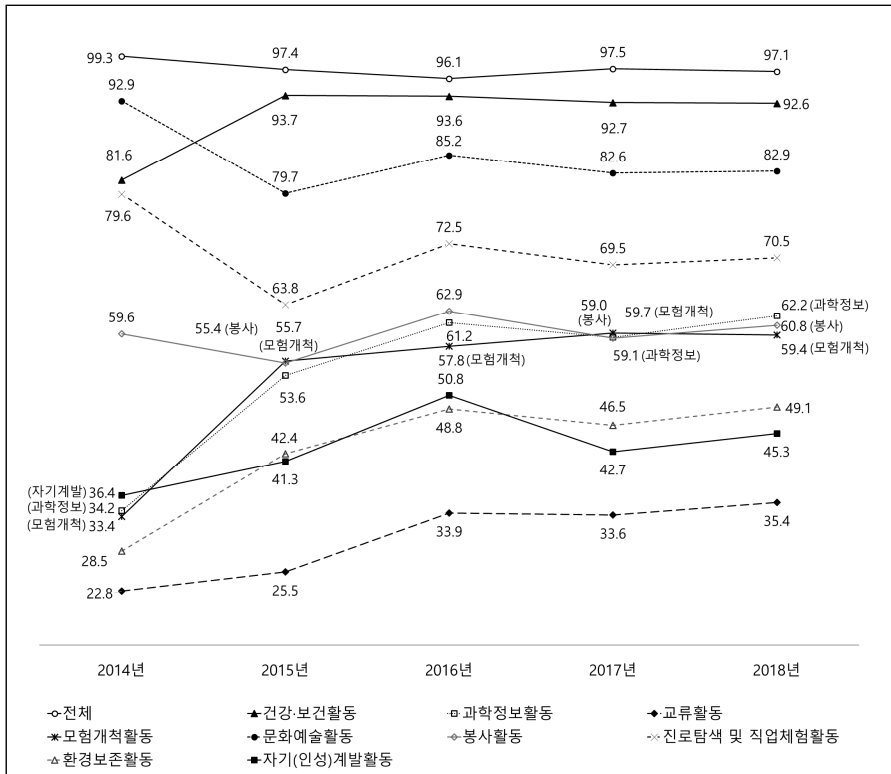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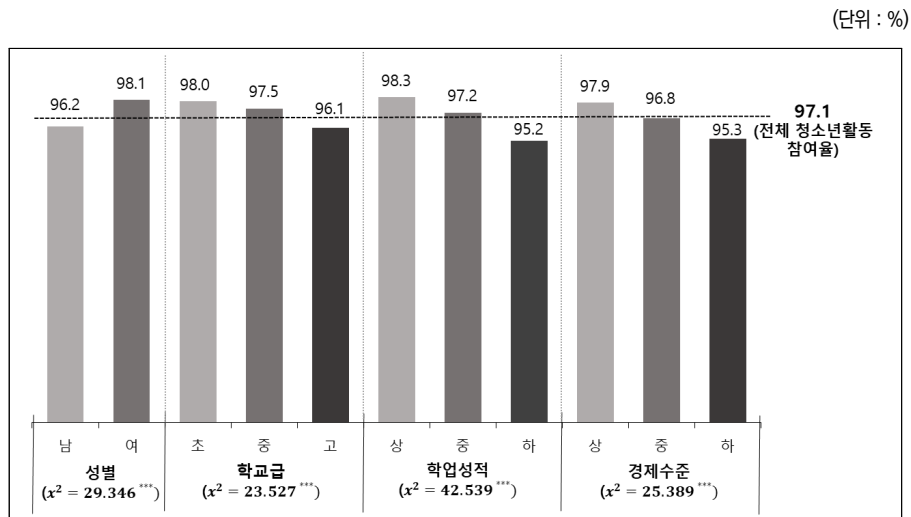


그림 III-2 연도별 청소년활동 참여율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을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그림 III-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98.1%)이 남자 청소년(96.2%)보다 청소년활동 참여율이 높았고($\chi^2=29.346$,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98.0%), 중학생(97.5%), 고등학생(96.1%) 순으로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3.527$, $p<.001$).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8.3%, 중 97.2%, 하 95.2%)($\chi^2=42.539$, $p<.001$),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상 97.9%, 중 96.8%, 하 95.3%)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chi^2=25.389$, $p<.001$).

다음으로 17개 시도별로 2018년도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을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그림 Ⅲ-4). 그 결과, 전남 지역의 청소년활동 참여율이 99.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충남(98.9%), 광주(98.7%), 대전(98.6%) 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93.0%), 충북(94.8%), 울산(95.3%), 경남(95.5%) 지역 등의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전국 참여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3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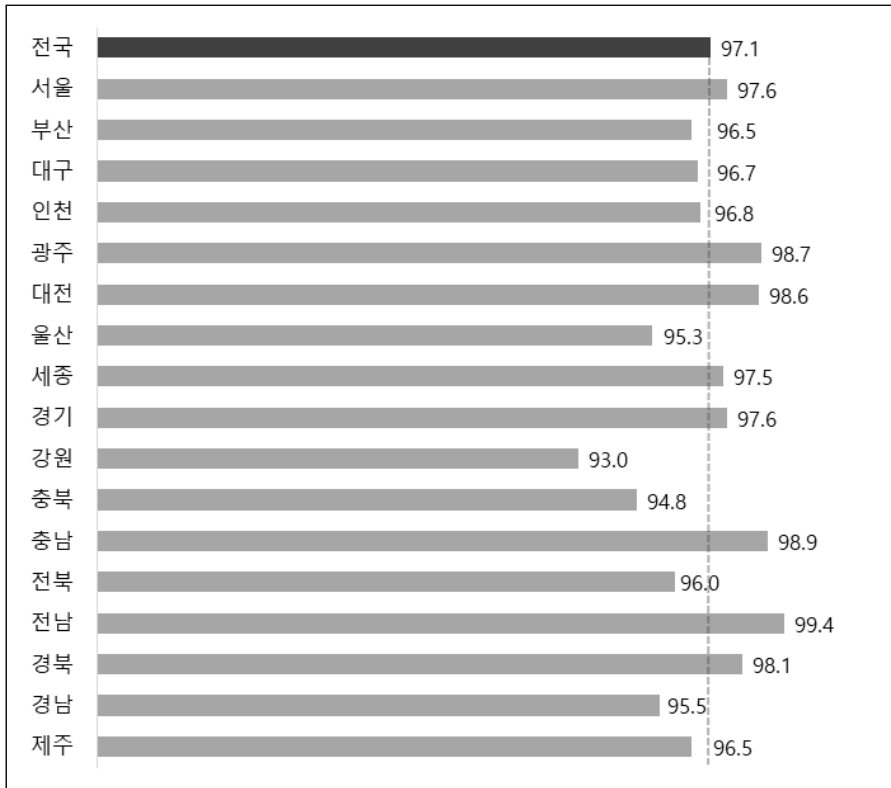


그림 III-4 2018년도 시도별 청소년활동 참여율

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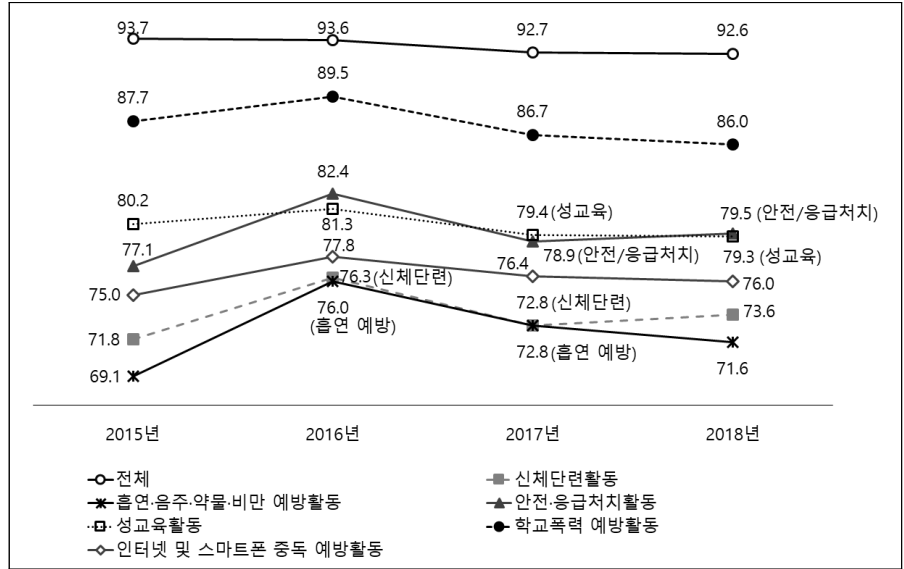
(1)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그림 III-5〉),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매년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이며, 응답자의 86~90%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안전·응급처치 활동’과 ‘성교육활동’도 80% 전후의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의 모든 세부 활동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유사한 수준의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특히, 건강·보건 활동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과 사회 환경의 변화, 사회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위해 강조되어야 하며, 시의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2018년도 건강·보건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활동’(86.0%), ‘안전·응급처치 활동’(79.5%), ‘성교육활동’(79.3%),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76.0%), ‘신체단련 활동’(73.6%),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71.6%), ‘기타’(2.8%)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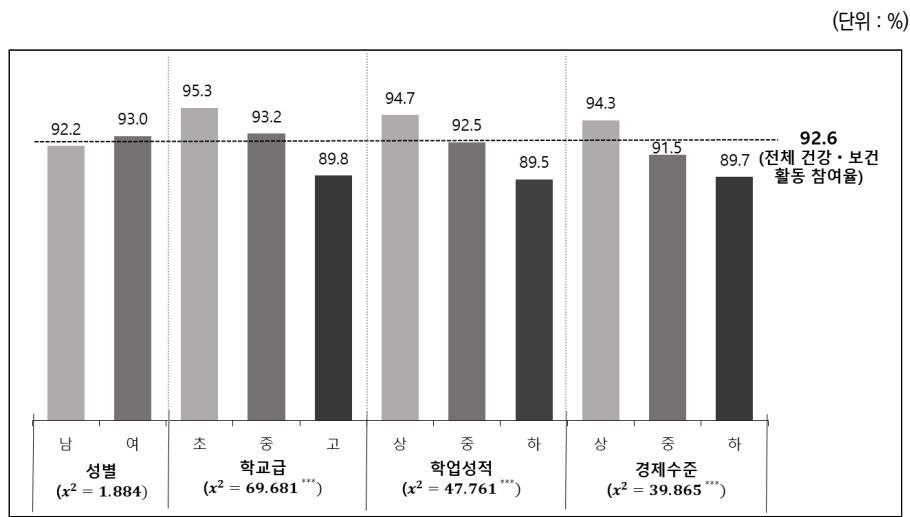


* 주: ‘기타’는 2015년 0.4%, 2016년 2.0%, 2017년 1.5%, 2018년 2.8%로 나타남.

그림 Ⅲ-5 연도별 건강·보건활동 참여율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18년도 건강·보건활동 참여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Ⅲ-6〉),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5.3%, 중 93.2%, 고 89.8%) ($\chi^2=69.681$,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4.7%, 중 92.5%, 하 89.5%) ($\chi^2=47.761$, $p<.0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94.3%, 중 91.5%, 하 89.7%)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chi^2=39.865$, $p<.001$).

이어서 17개 시도별로 2018년도 건강·보건활동의 참여율을 살펴보면(〈그림 Ⅲ-7〉), 충남(97.9%), 전남(97.5%) 지역 등은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부산(86.2%), 경남(87.4%) 등의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6 2018년도 건강·보건활동 참여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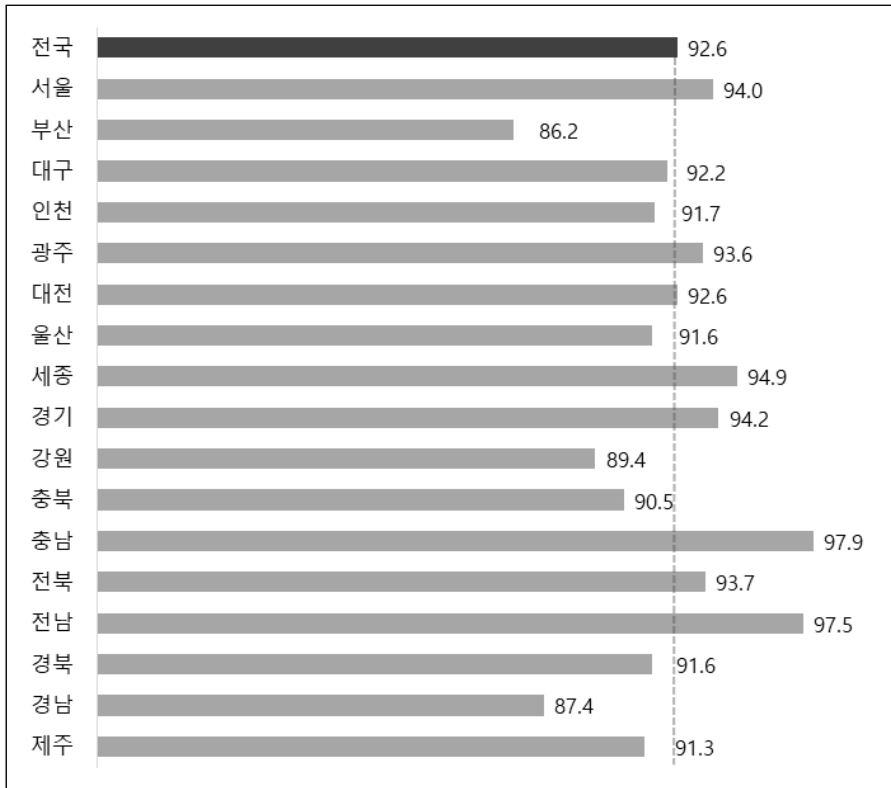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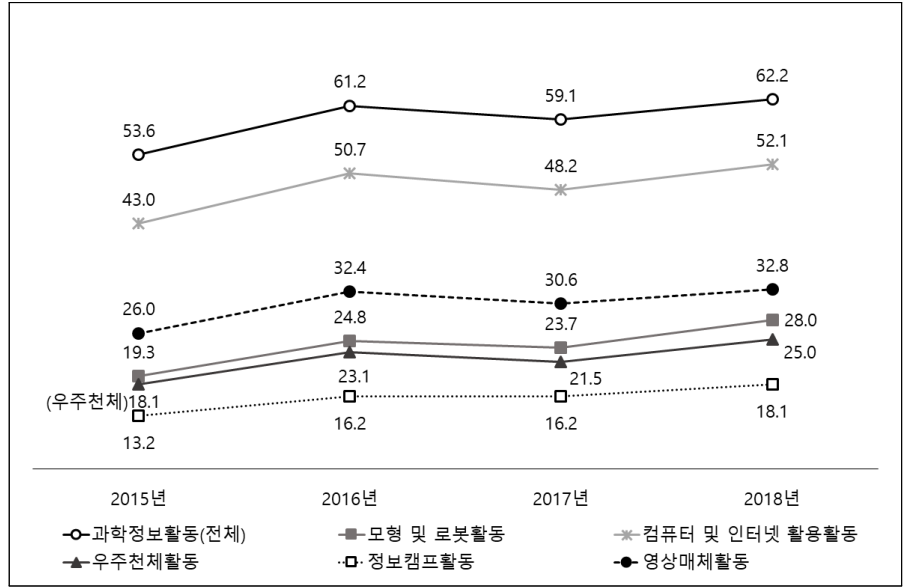
그림 III-7 2018년도 시도별 건강·보건활동 참여율

(2)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과학정보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연도별로 확인해보면(<그림 III-8>), 2015년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도에는 응답자의 43.0%가, 2016년도부터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48.2~52.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이어서 ‘영상매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기타’ 순으로 매년 순위 변동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정보활동 전체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모든 세부 활동의 참여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2017년도에는 소폭 감소하고, 2018년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과학정보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최근 인터넷 환경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제4차 산업혁명 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정보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도전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과학정보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 기회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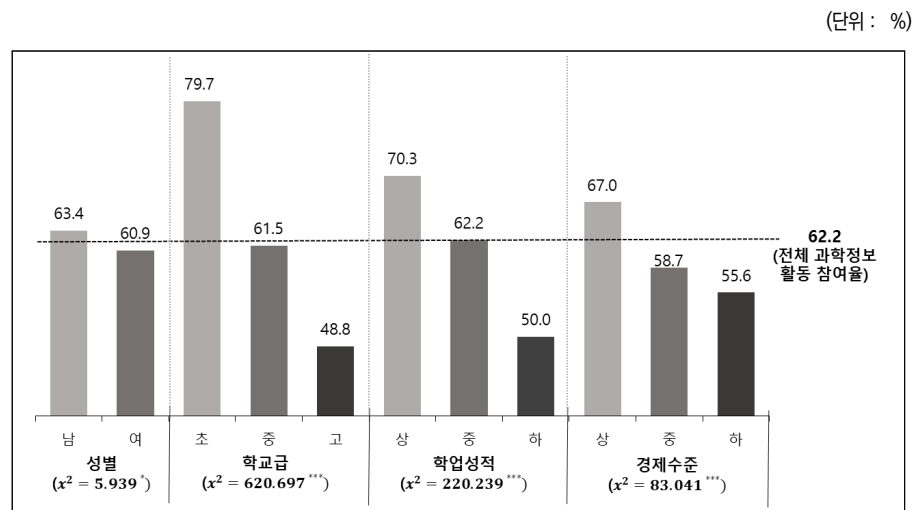
(단위 : %)



* 주: '기타'는 2015년 0.7%, 2016년 1.5%, 2017년 1.1%, 2018년 1.7%로 나타남.

그림 III-8 연도별 과학정보활동 참여율

2018년도 과학정보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보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52.1%, ‘영상매체활동’이 32.8%, ‘모형 및 로봇활동’이 28.0%, ‘우주천체활동’이 25.0%, ‘정보캠프활동’이 18.1%, ‘기타’가 1.7%로 나타났다(〈그림 Ⅲ-8〉).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Ⅲ-9〉),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63.4%)이 여자 청소년(60.9%)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chi^2=5.939$, $p<.05$),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9.7%, 중 61.5%, 고 48.8%)($\chi^2=620.697$, $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70.3%, 중 62.2%, 하 50.0%) 상대적으로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20.239$, $p<.0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7.0%, 중 58.7%, 하 55.6%)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chi^2=83.041$, $p<.001$).



*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9 2018년도 과학정보활동 참여율

지역별로 2018년도 과학정보활동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인천(68.0%), 광주(67.7%), 세종(67.4%), 전남(67.1%) 지역 등은 전국 평균 참여율보다 약 5%p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51.0%), 부산(53.2%), 대전(54.4%), 충북(55.1%) 등의 과학정보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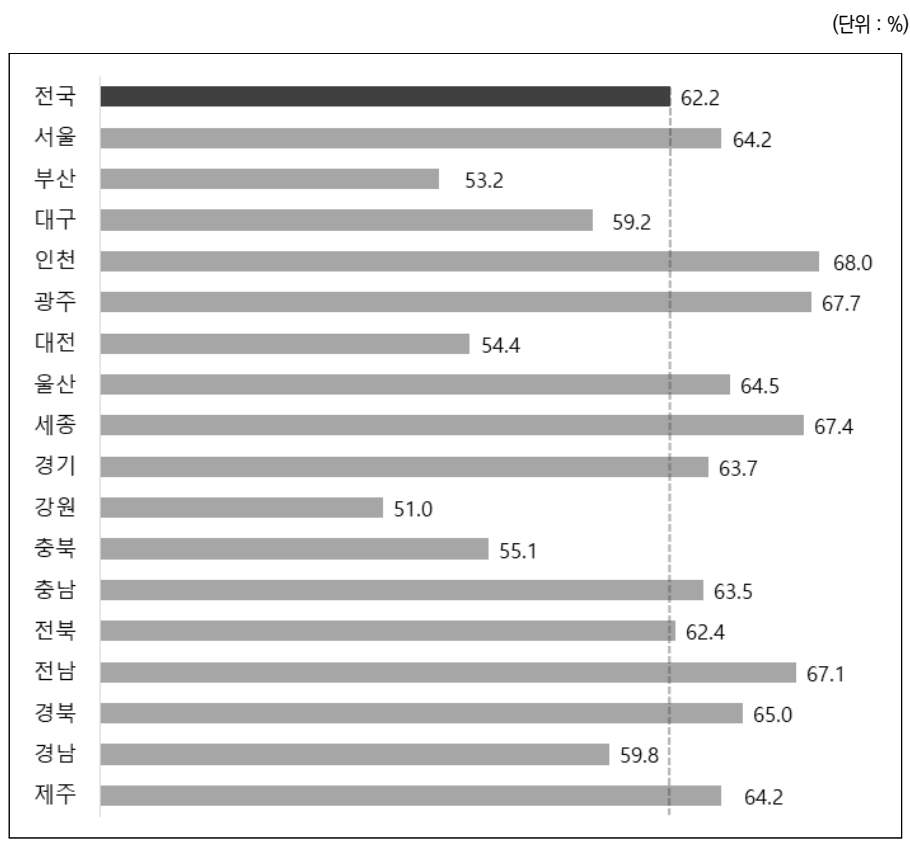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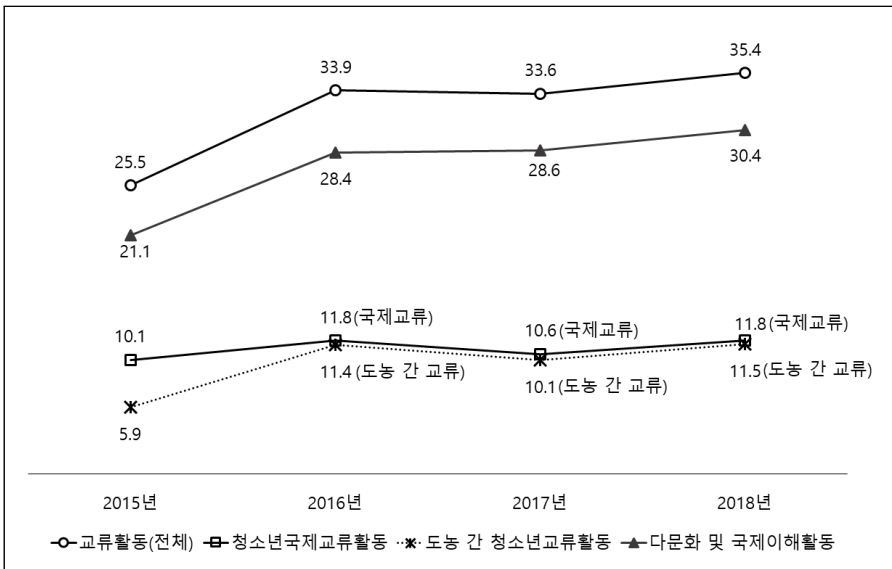


그림 Ⅲ-10 2018년도 시도별 과학정보활동 참여율

(3) 교류활동 참여경험

교류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이 교류활동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이며, 참여율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도까지 참여율이 30.4%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최근 4년간 10%대의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5.9%의 참여율을 보고한 ‘도농 간 청소년교류활동’은 2016년도 이후 10%대의 참여율을 상승·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및 국제이해와 도농 간 교류활동에서의 청소년 참여율 증가는 타 지역 및 국제이해 역량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나아가 지역갈등 예방, 국제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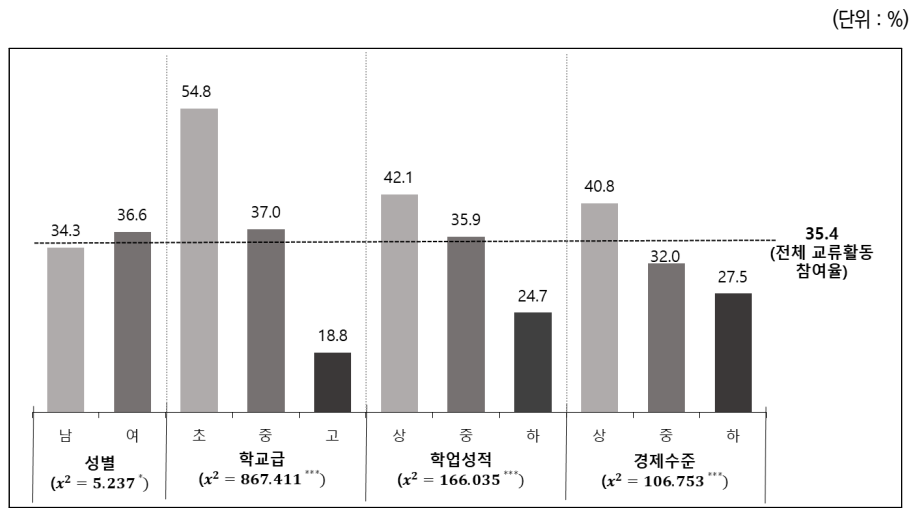
(단위 : %)



* 주: ‘기타’는 2015년 0.2%, 2016년 0.6%, 2017년 0.5%, 2018년 0.8%로 나타남.

그림 III-11 연도별 교류활동 참여율

관심 고취 등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류활동의 이러한 효과를 보다 기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의 시대적·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2 2018년도 교류활동 참여율

한편, 2018년도 교류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은 ‘다문화 및 국제 이해활동’이 30.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청소년국제교류활동’(11.8%), ‘도농 간 청소년 교류활동’(11.5%), ‘기타’(0.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1). 2018년도 교류 활동 참여율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그림 III-12),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36.6%)이 남자 청소년(34.3%)보다($\chi^2=5.237$, $p<.05$),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4.8%, 중 37.0%, 고 18.8%)($\chi^2=867.411$,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상 42.1%, 중 35.9%, 하 24.7%)($\chi^2=166.035$, $p<.001$), 그리고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상 40.8%, 중 32.0%, 하 27.5%)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06.753$, $p<.001$).

17개 시도별 구분에 따른 2018년도 교류활동 참여율은 전남 지역이 44.2%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대전(43.5%), 충남(41.1%), 세종(40.4%) 등도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경북(24.8%), 광주(26.2%), 충북(26.6%) 등의 지역은 교류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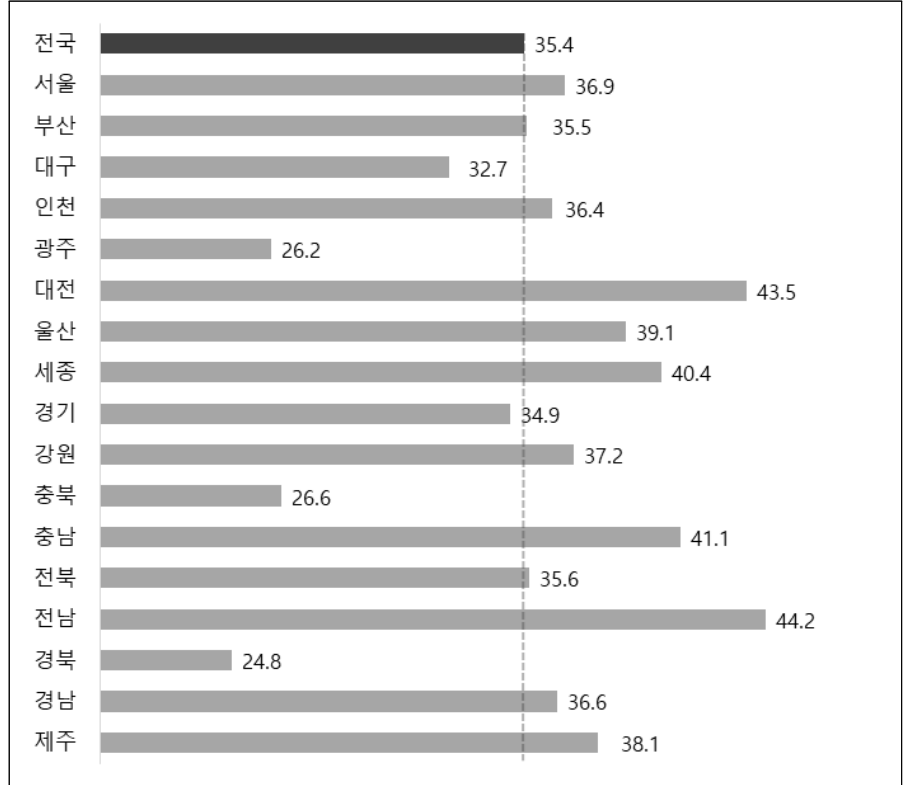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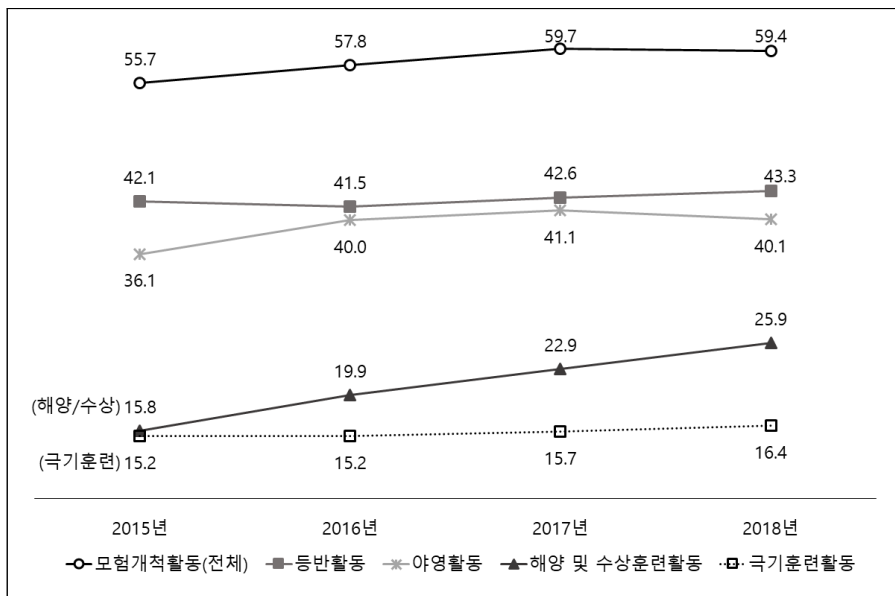


그림 Ⅲ-13 2018년도 시도별 교류활동 참여율

(4)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

모험개척활동의 구체적인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연도별로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등반활동'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0% 이상(41.5~43.3%)의 참여율을 꾸준히 보였다. 아울러 '야영활동'의 참여율은 2015년도(36.1%) 이후 40%대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의 참여율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 2018년도에는 2015년도보다 약 10%p가 오르는 등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극기훈련활동'의 경우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비슷한 수준의 참여율(15.2~16.4%)을 유지하였다. 향후 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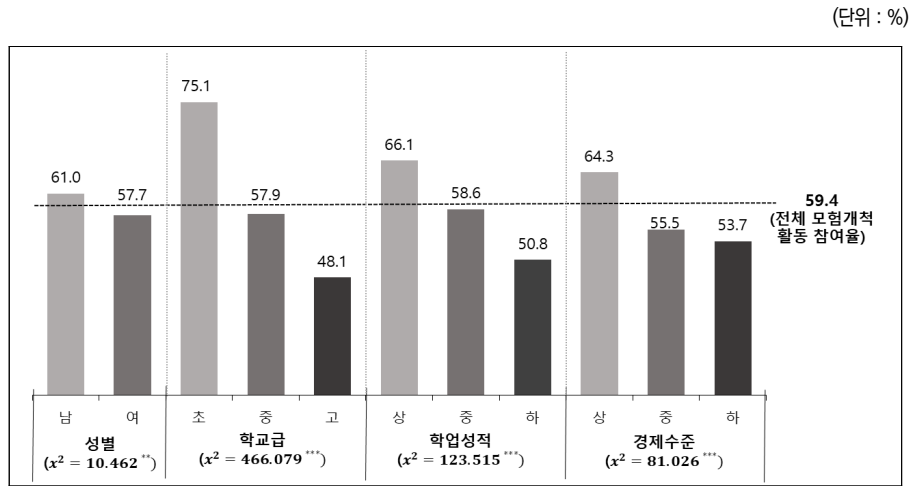
(단위 : %)



* 주: '기타'는 2015년 0.2%, 2016년 0.8%, 2017년 0.5%, 2018년 1.0%로 나타남.

그림 III-14 연도별 모험개척활동 참여율

청소년들에게 모험개척활동의 참여를 원활하게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 학교 등에서의 노력과 점점이 요청되며, 이를 토대로 참여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15 2018년도 모험개척활동 참여율

한편, 2018년도 모험개척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보면, ‘등반활동’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야영활동’이 40.1%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25.9%), ‘극기훈련활동’(16.4%), ‘기타’(1.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4>).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18년도 모험개척활동의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Ⅲ-15>와 같이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61.0%)이 여자 청소년(57.7%)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고($\chi^2=10.462$, $p<.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5.1%, 중 57.9%, 고 48.1%)($\chi^2=466.079$, $p<.001$),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66.1%, 중 58.6%, 하 50.8%) 참여율이 높게 보고되었다($\chi^2=123.515$, $p<.001$). 그리고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64.3%)가 중간(55.5%) 혹은 낮은 경우(53.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chi^2=81.026$, $p<.001$).

이어서 시도별 구분에 따른 2018년도 모험개척활동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그림 Ⅲ-16>), 전남(74.9%), 경북(71.6%), 대구(69.2%) 등은 전국 평균 참여율 대비 약 10%p 이상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경기(52.5%), 인천(53.9%) 등 일부 지역의 참여율은 전국 평균 참여율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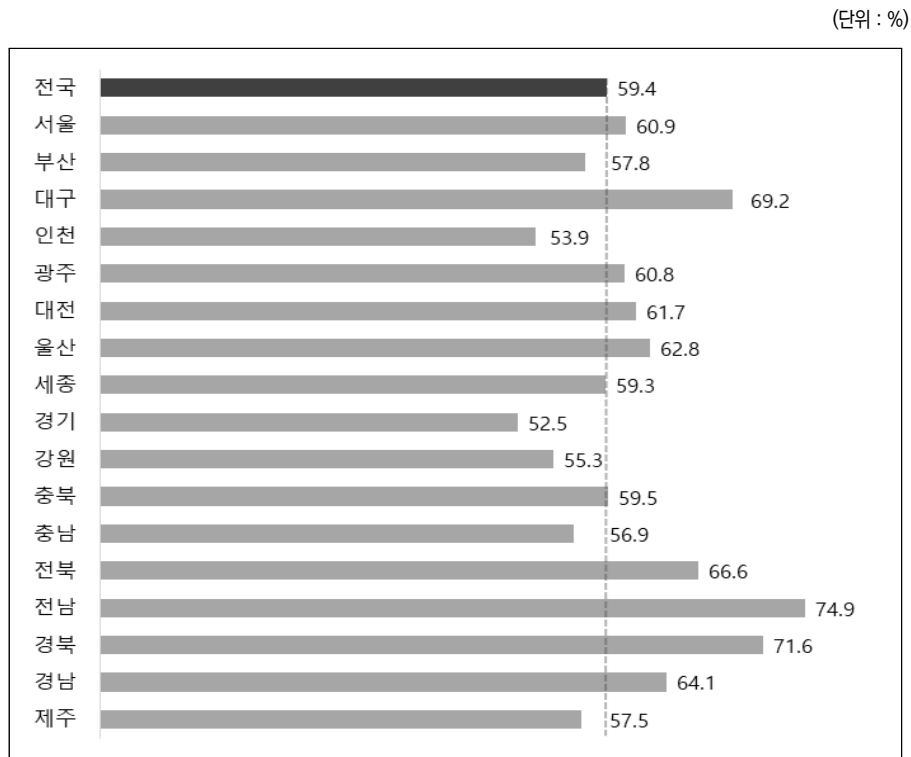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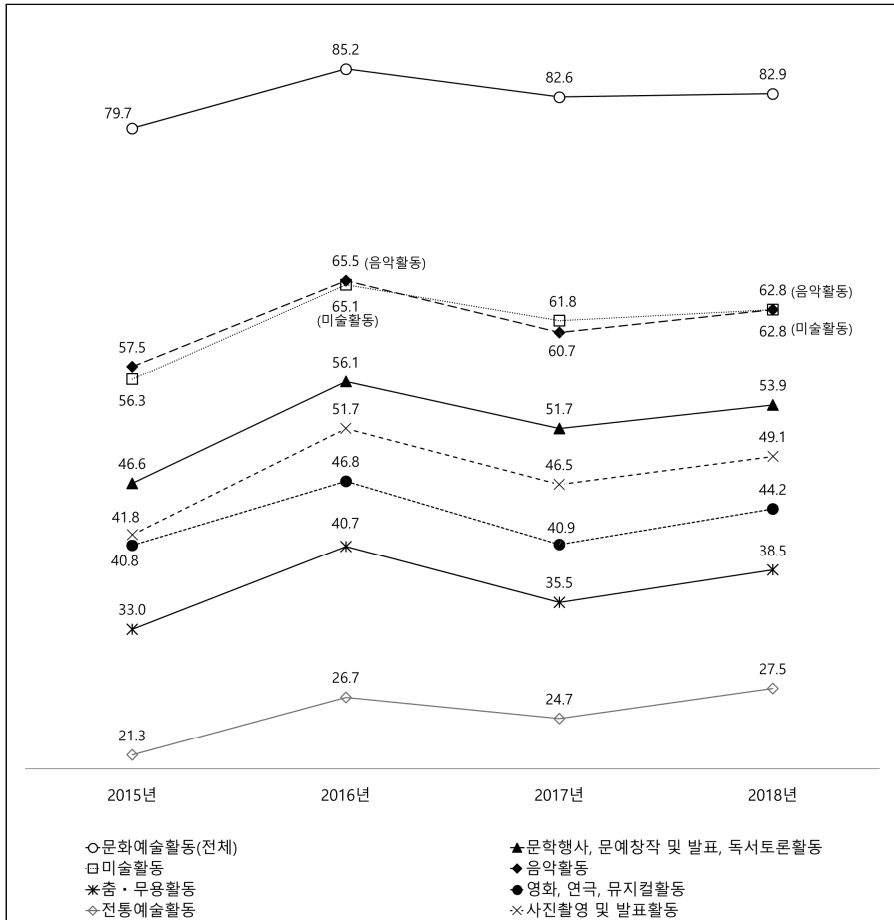


그림 Ⅲ-16 2018년도 시도별 모험개척활동 참여율

(5)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문화예술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연도별로 확인해보면(〈그림 III- 17〉), ‘미술활동’과 ‘음악활동’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면서 2016년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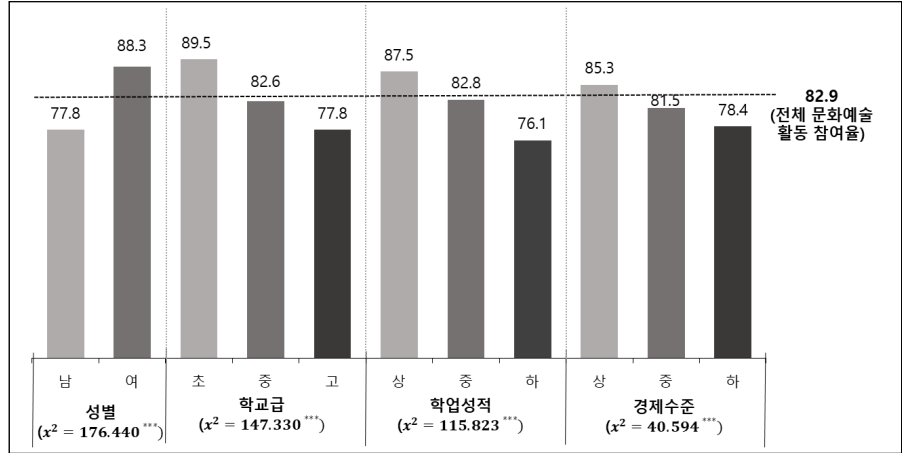


* 주: ‘기타’는 2015년 0.1%, 2016년 1.1%, 2017년 0.5%, 2018년 1.0%로 나타남.

그림 III-17 연도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이후에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경험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 활동’과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2015년도의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참여율은 ‘영화, 연극, 뮤지컬 활동’과 유사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5%p가량 격차를 보이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참여율이 낮은 세부 활동은 20%대의 참여율을 보인 ‘전통예술활동’으로, 세부 활동들 간의 편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활동 가운데 가장 활성화된 영역 중 하나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의 참여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세부 활동별 참여율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7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의 참여율이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 %)



*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Ⅲ-18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보면, ‘미술활동’ 및 ‘음악 활동’에 가장 많은 62.8%의 청소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 활동’(53.9%),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49.1%), ‘영화, 연극, 뮤지컬 활동’(44.2%), ‘춤·무용 활동’(38.5%), ‘전통예술활동’(27.5%), ‘기타’(1.0%)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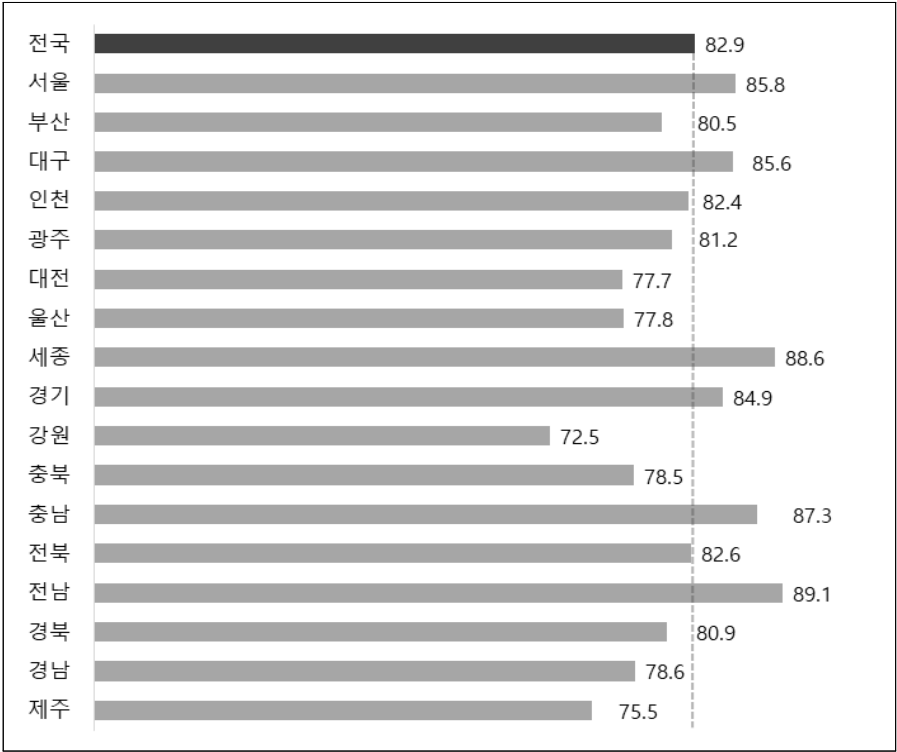


그림 III-19 2018년도 시도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그림 III-18>),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88.3%)이 남자 청소년(77.8%)보다($\chi^2=176.440$,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9.5%, 중 82.6%, 고 77.8%)($\chi^2=147.330$,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87.5%, 중 82.8%, 하 76.1%)($\chi^2=115.823$, $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5.3%, 중 81.5%, 하 78.4%)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chi^2=40.59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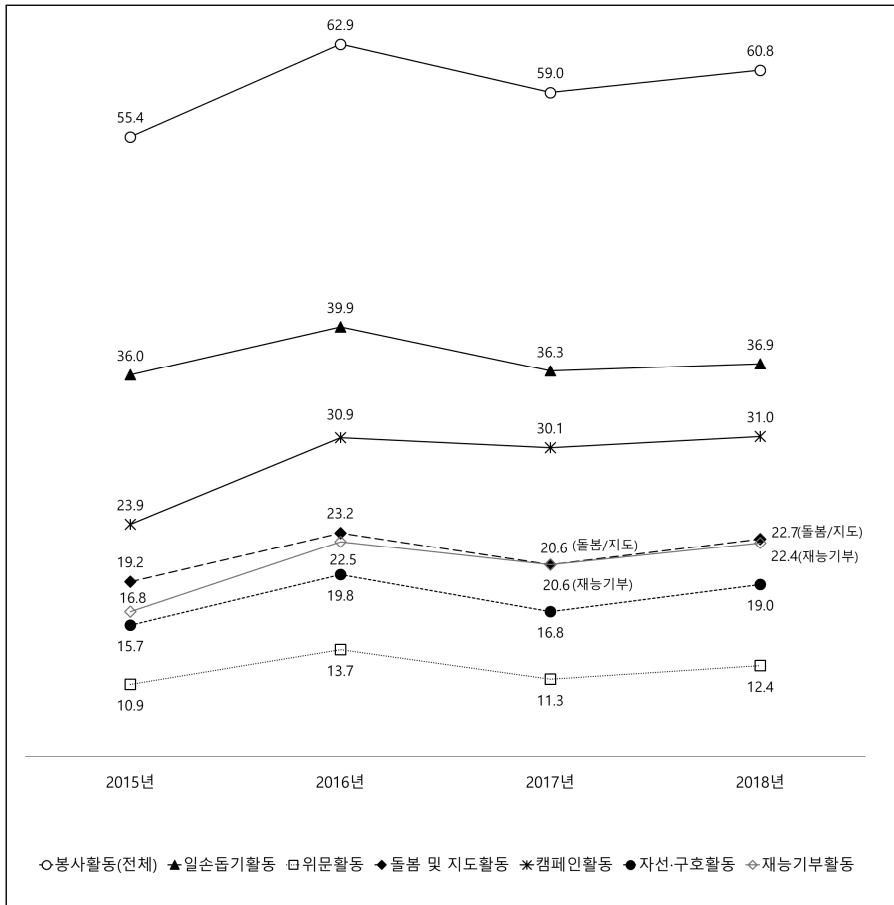
한편, 전국 17개 시도별로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III-19>와 같이, 전남(89.1%), 세종(88.6%), 충남(87.3%) 지역 등은 활발한 참여를 보인 반면, 강원(72.5%), 제주(75.5%) 등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봉사활동 참여경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봉사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그림 III-20>), 청소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활동은 ‘일손돕기활동’이고, ‘캠페인활동’의 참여율도 2016년도 이래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돌봄 및 지도활동’과 ‘재능기부활동’, ‘자선·구호활동’, ‘위문활동’, ‘기타’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도 봉사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율을 보면, ‘일손돕기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36.9%로 가장 많았고, ‘캠페인활동’이 31.0%, ‘돌봄 및 지도활동’이 22.7%, ‘재능기부활동’이 22.4%, ‘자선·구호활동’이 19.0%, ‘위문활동’이 12.4%, ‘기타’가 3.5%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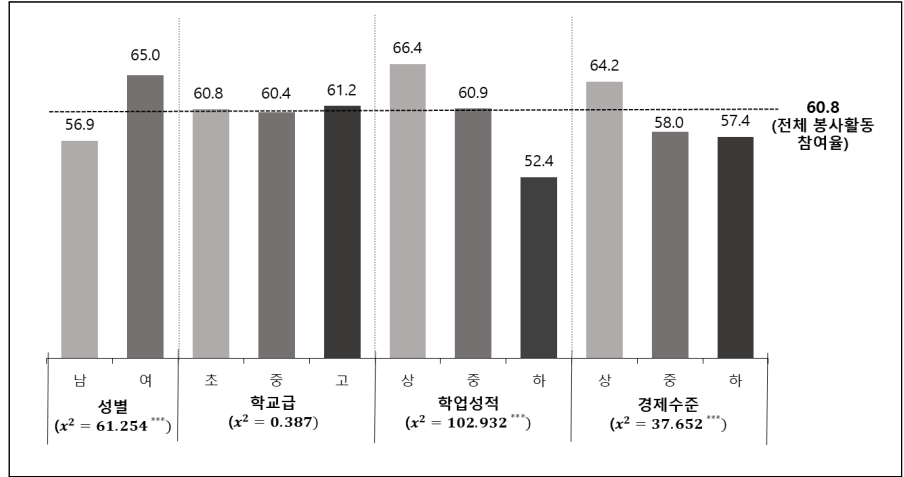


* 주: '기타'는 2015년 1.0%, 2016년 2.0%, 2017년 1.8%, 2018년 3.5%로 나타남.

그림 III-20 연도별 봉사활동 참여율

2018년도 봉사활동 참여율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그림 Ⅲ-21〉),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65.0%)이 남자 청소년(56.9%)보다($\chi^2=61.254$, $p<.001$),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66.4%, 중 60.9%, 하 52.4%) 봉사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였고($\chi^2=102.932$, $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64.2%)이 중간(58.0%) 혹은 낮은 청소년(57.4%)에 비해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7.652$, $p<.001$).

(단위 : %)



*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21 2018년도 봉사활동 참여율

한편, 지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그림 Ⅲ-22〉), 전남(75.1%)과 충남(70.1%) 지역은 전국 평균 보다 약 10%p 가량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서울(68.6%) 등의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강원(45.8%), 충북(51.6%), 부산(52.6%), 대전(52.6%) 등 일부 지역의 참여율은 다소 낮게 확인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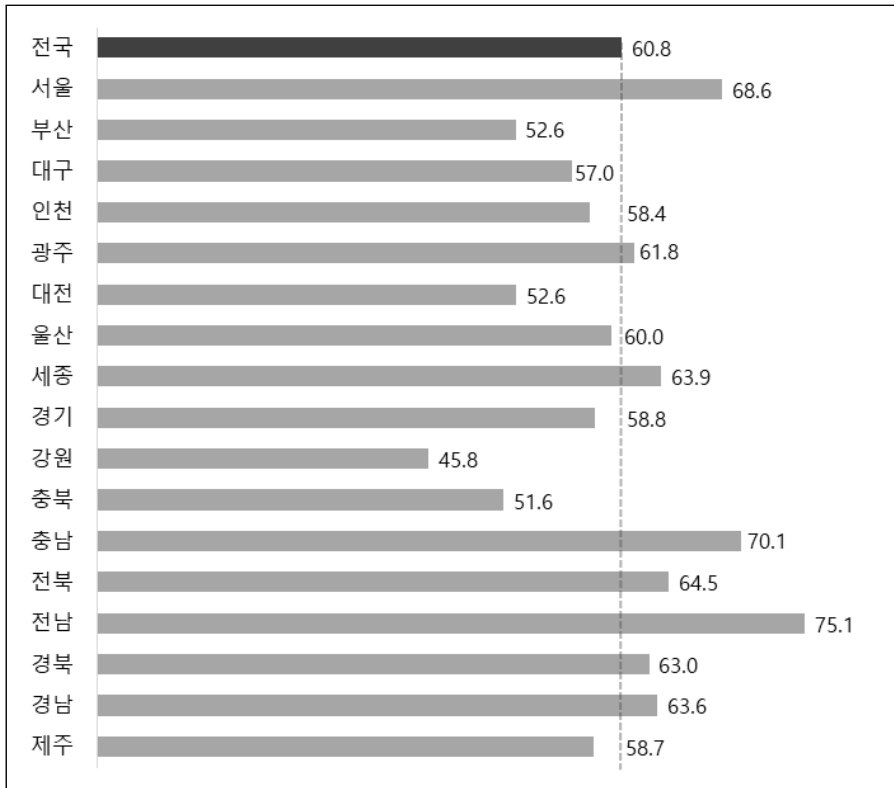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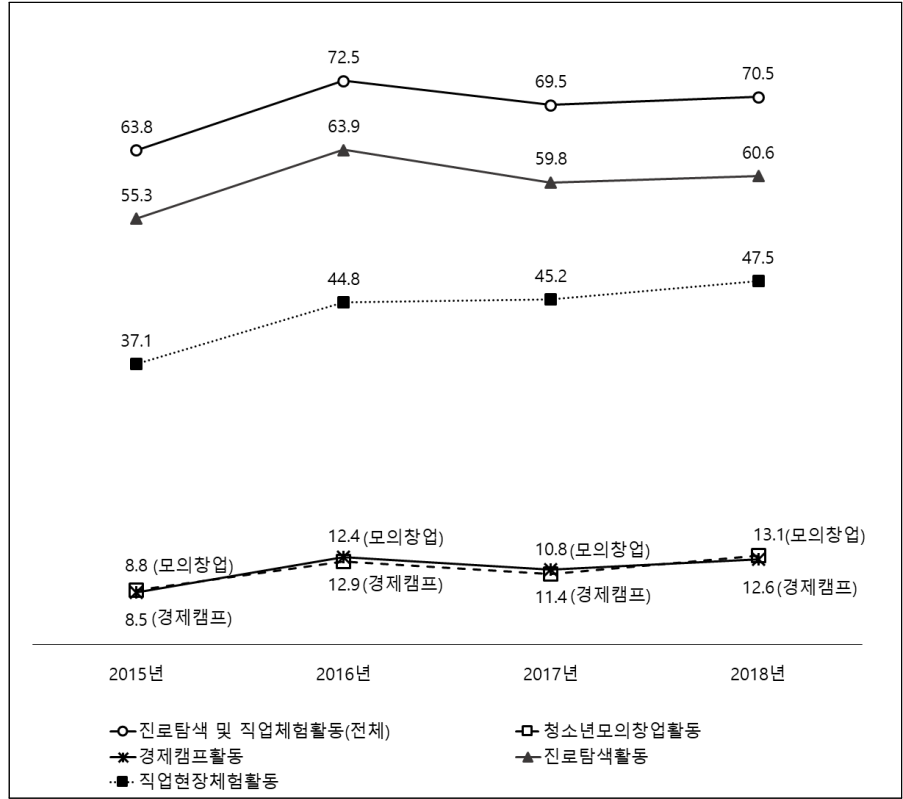
그림 Ⅲ-22 2018년도 시도별 봉사활동 참여율

(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세부 활동에 관한 참여율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그림 Ⅲ-23>), 해마다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60% 내외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직업현장체험활동'의 참여율이 매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모의창업활동'과 '경제캠프활동'은 2015년도에 8%대의 참여율을 보고하였으나 2016년도 이후 10% 이상의 참여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적극적인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과 진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개발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 및 참여 지원방안 또한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하겠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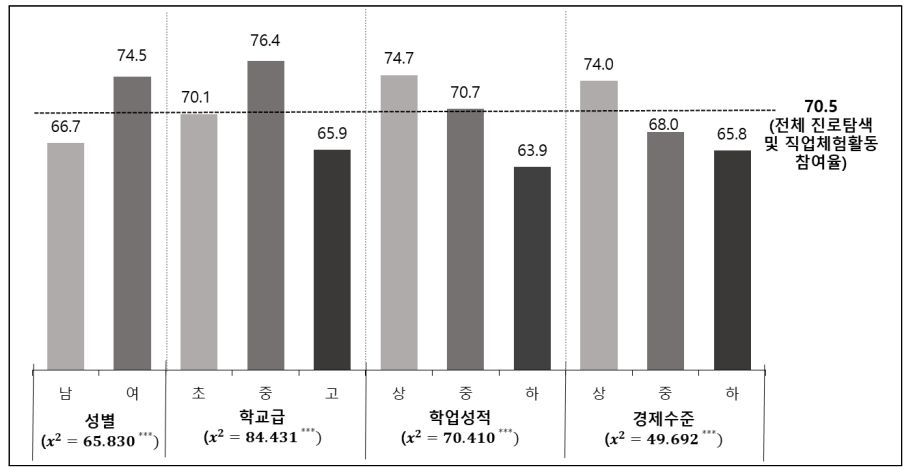
* 주: ‘기타’는 2015년 0.0%, 2016년 0.9%, 2017년 0.6%, 2018년 0.7%로 나타남.

그림 Ⅲ-23 연도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율

2018년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보면(〈그림 Ⅲ-23〉), ‘진로탐색활동’(60.6%), ‘직업현장체험활동’(47.5%), ‘청소년모의창업활동’(13.1%),

‘경제캠프활동’(12.6%), ‘기타’(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III-24>와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74.5%)이 남자 청소년(66.7%)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chi^2=65.830$, $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6.4%), 초등학생(70.1%), 고등학생(65.9%)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84.431$, $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74.7%, 중 70.7%, 하 63.9%)($\chi^2=70.410$, $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74.0%, 중 68.0%, 하 65.8%)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chi^2=49.692$, $p<.001$).

(단위 : %)



*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4 2018년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율

이어서 지역별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그림 III-25>), 전남 지역이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75.2%), 서울(74.5%), 광주(74.2%)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반면, 충북(62.1%), 부산(62.7%) 지역 등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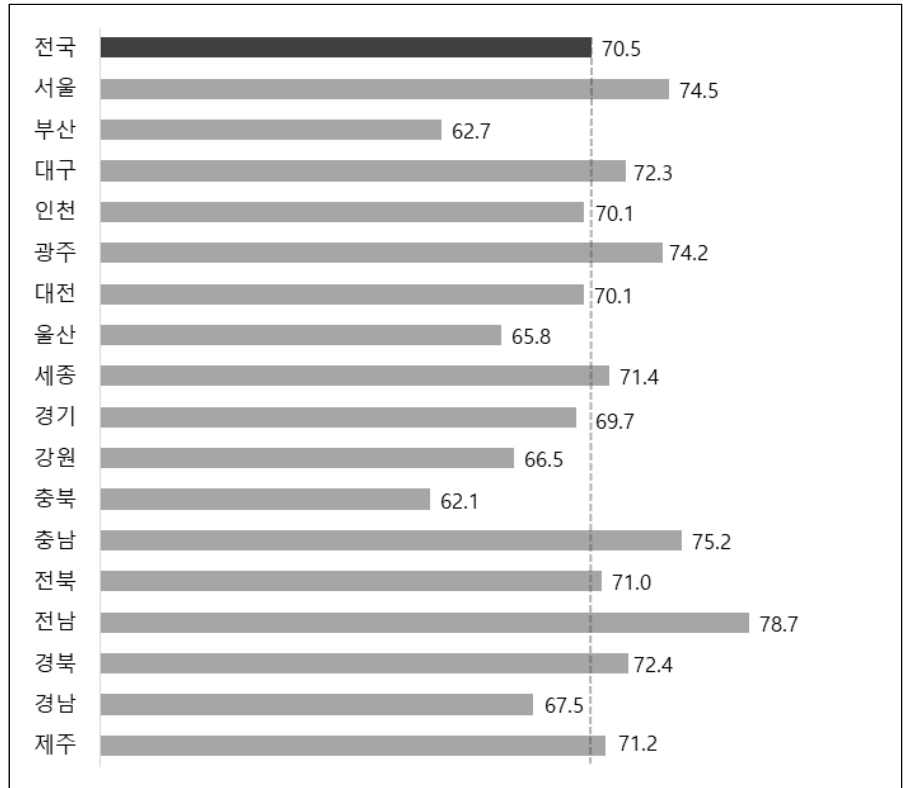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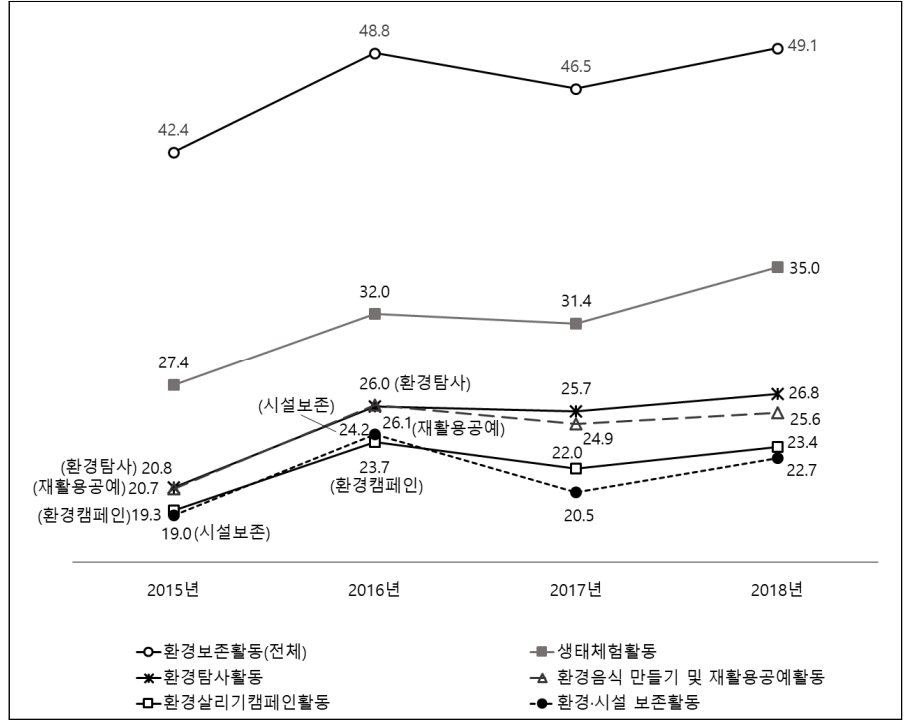
그림 III-25 2018년도 시도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율

(8)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

환경보존활동의 세부 활동 참여율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III-26〉), 대부분 20% 이상의 참여율이 지속되는 등 최근 4년 동안 청소년들이 환경보존과 관련된 활동에 유사한 수준으로 고르게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태체험활동’은 2016년도부터 3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환경보존활동의 참여율은 증가·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관해 경각심을 갖고 환경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하겠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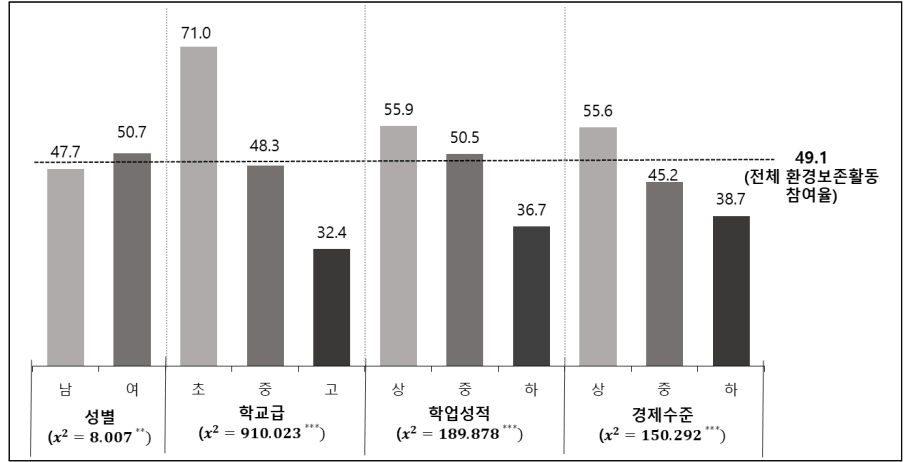


* 주: ‘기타’는 2015년 0.1%, 2016년 0.9%, 2017년 0.5%, 2018년 0.9%로 나타남.

그림 Ⅲ-26 연도별 환경보존활동 참여율

2018년도 환경보존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보면(〈그림 III-26〉), ‘생태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35.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환경탐사활동’이 26.8%,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이 25.6%, ‘환경살리기 캠페인활동’이 23.4%, ‘환경·시설 보존활동’이 22.7%, ‘기타’가 0.9%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그림 III-27〉),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50.7%)이 남자 청소년(47.7%)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chi^2=8.007$, $p<.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1.0%, 중 48.3%, 고 32.4%)($\chi^2=910.023$,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55.9%, 중 50.5%, 하 36.7%) 참여 경험의 상대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89.878$, $p<.0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상 55.6%, 중 45.2%, 하 38.7%)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chi^2=150.292$, $p<.001$).

(단위 : %)



*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7 2018년도 환경보존활동 참여율

한편, 지역별로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전남이 58.3%로 가장 높았고, 서울 (54.6%)도 전국 참여율보다 5%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37.5%), 대전 (39.8%) 등의 환경보존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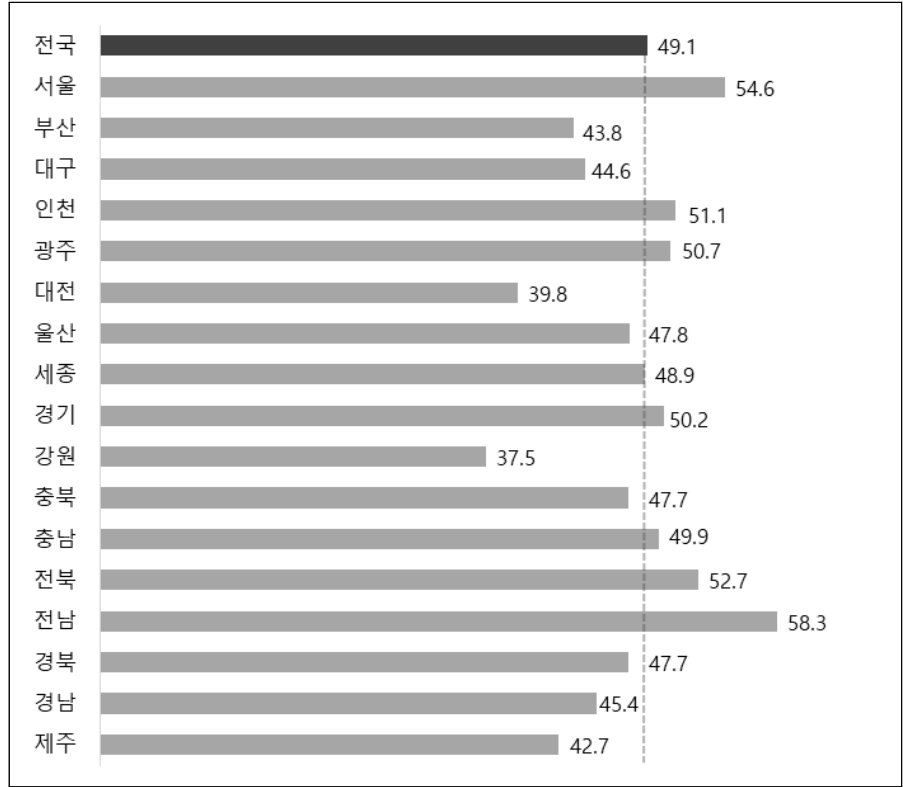


그림 Ⅲ-28 2018년도 시도별 환경보존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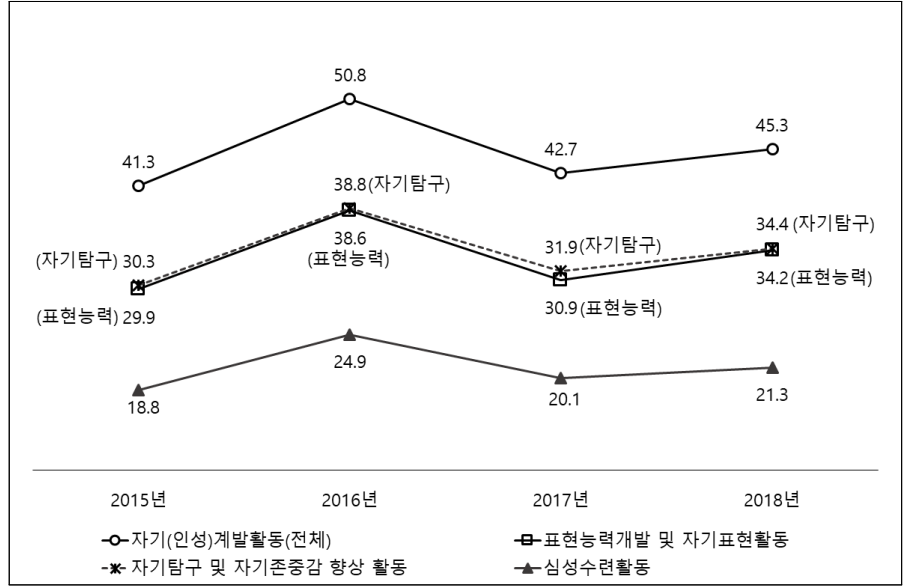
(9)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

자기(인성)계발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그림 Ⅲ-29〉). 그 결과,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과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

표현활동'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 하였으며, '심성수련활동'은 큰 변화 없이 20% 전후의 참여율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도 자기(인성)계발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은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34.4%),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34.2%), '심성수련활동'(21.3%), '기타'(0.6%)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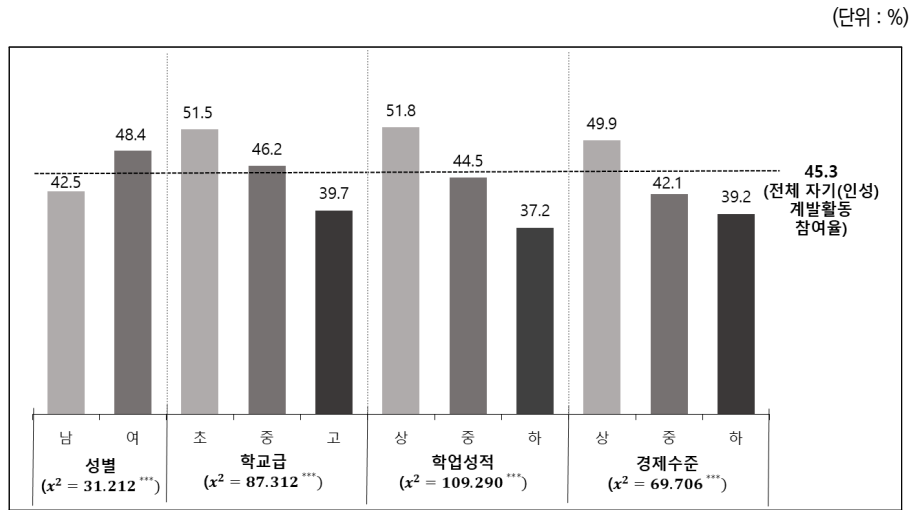


* 주: '기타'는 2015년 0.1%, 2016년 0.7%, 2017년 0.4%, 2018년 0.6%로 나타남.

그림 III-29 연도별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율

자기(인성)계발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그림 III-30〉),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48.4%)이 남자 청소년(42.5%)보다($\chi^2=31.212$,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1.5%, 중 46.2%, 고 39.7%)($\chi^2=87.312$, $p<.001$),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51.8%, 중 44.5%, 하 37.2%)($\chi^2=109.290$, $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9.9%, 중 42.1%, 하 39.2%) 자기(인성)계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9.706$, $p<.001$).



*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30 2018년도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율

다음으로 17개 시도별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그림 Ⅲ-31〉), 세종 지역이 58.3%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아울러 전남(52.5%), 서울(51.9%), 충남(50.9%)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참여율도 비교적 높게 확인되었다. 한편, 경남(37.3%), 부산(37.5%), 강원(38.9%) 지역 등의 자기(인성)계발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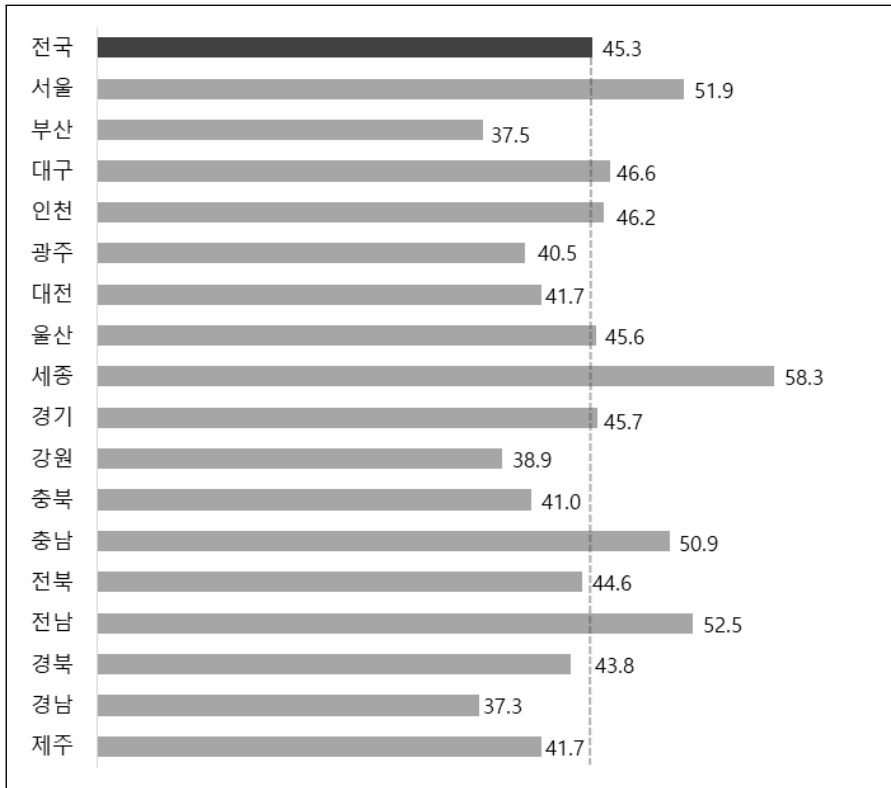


그림 III-31 2018년도 시도별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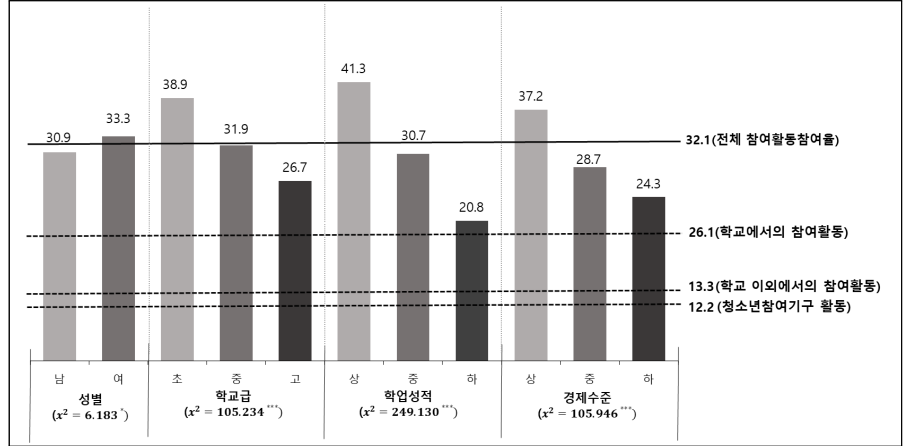
(10) 참여활동 참여경험

2018년도 참여활동의 참여율을 세부 활동별로 분석한 결과(<그림 III-32>), 학생회, 학생자치법정 등의 ‘학교에서의 참여활동’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13.3%), ‘청소년참여기구 활동’(12.2%), ‘기타’(0.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참여활동 참여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33.3%)이

남자 청소년(30.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chi^2=6.183$, $p<.05$). 그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8.9%, 중 31.9%, 고 26.7%)($\chi^2=105.234$,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41.3%, 중 30.7%, 하 20.8%)($\chi^2=249.130$, $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7.2%, 중 28.7%, 하 24.3%) 상대적으로 참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05.946$, $p<.001$).

(단위 : %)



* 주: 1) * $p<.05$, ** $p<.01$, *** $p<.001$
 2) '기타'는 0.8%로 나타남.

그림 Ⅲ-32 2018년도 참여활동 참여율

시도별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그림 Ⅲ-33〉), 서울(36.8%), 세종(36.6%), 전북(36.5%), 충남(36.2%) 등은 전국 평균 참여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23.5%), 대전(24.8%), 강원(25.2%), 경북(26.3%) 등 일부 지역은 전국 참여율에 못 미치는 참여율을 보고하는 등의 편차가 발견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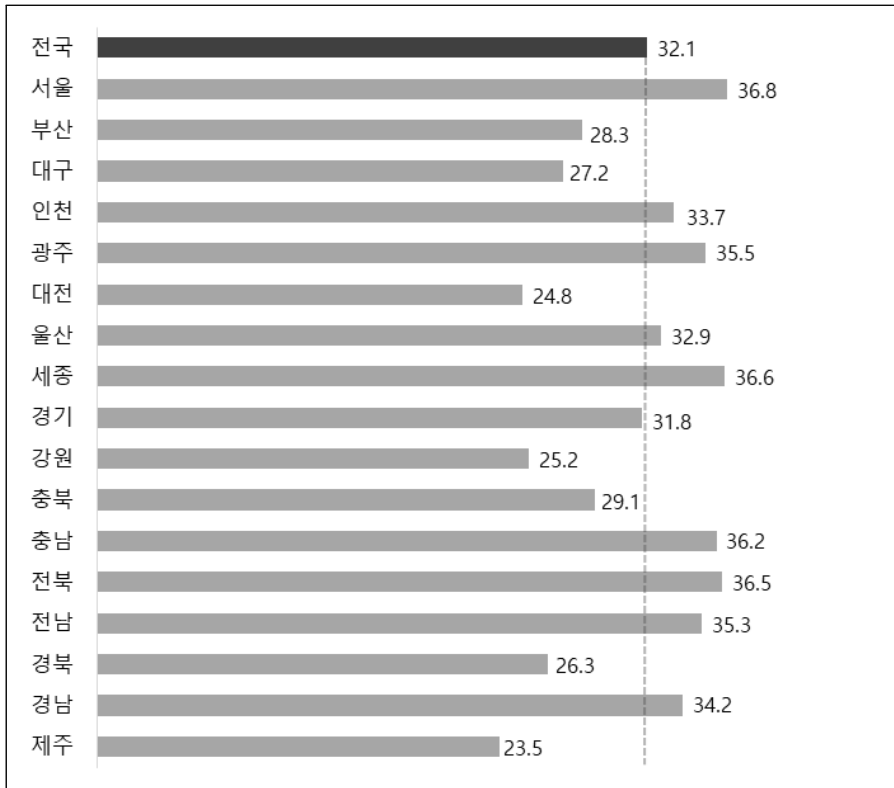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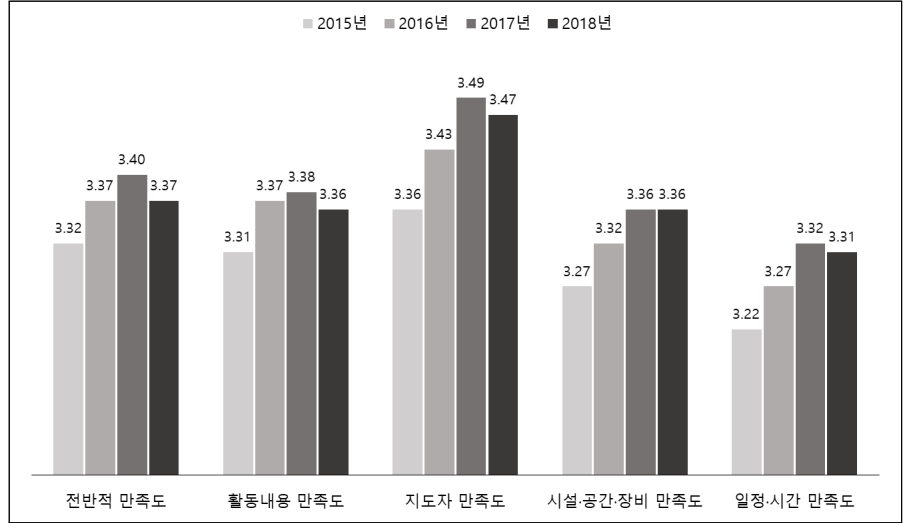
그림 III-33 2018년도 시도별 참여활동 참여율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반적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참여한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3.32~3.40 사이의 점수를 보이며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그 편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해마다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는 활동의 평가 및 보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재참여 의사, 활동의 효과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일정과 시간에 대한 고려와 청소년활동에 보다 적합한 장소 및 장비 등에 관한 지원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

(단위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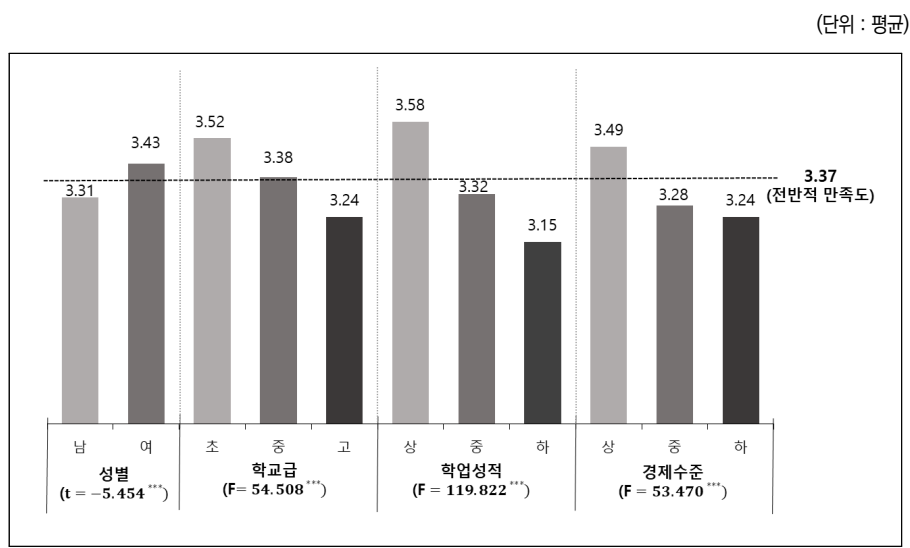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그림 Ⅲ-34 연도별 청소년활동 만족도

한편, 2018년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37로 확인되었고, 세부 내용에 따라서는 지도자 만족도가 3.4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한 정도와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

공간 및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3.36으로 평가되었다.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에 대한 적절성은 3.3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보통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34)).



*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5 2018년도 청소년활동 전반적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난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M=3.43)이 남자 청소년(M=3.31)보다 만족도가 높았고($t=-5.454$,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52, 중 3.38, 고 3.24) ($F=54.508$,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58, 중 3.32, 하 3.15)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F=119.822$, $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에는 상 집단(M=3.49)이 중 집단(M=3.28) 및 하 집단(M=3.24)에 비해 청소년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3.470$,

$p<.001$).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겠다.

4)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2016년도($M=2.99$)에 비해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평균 3.31의 수준으로 약간 높게 확인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통 수준 이상의 참여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에 따른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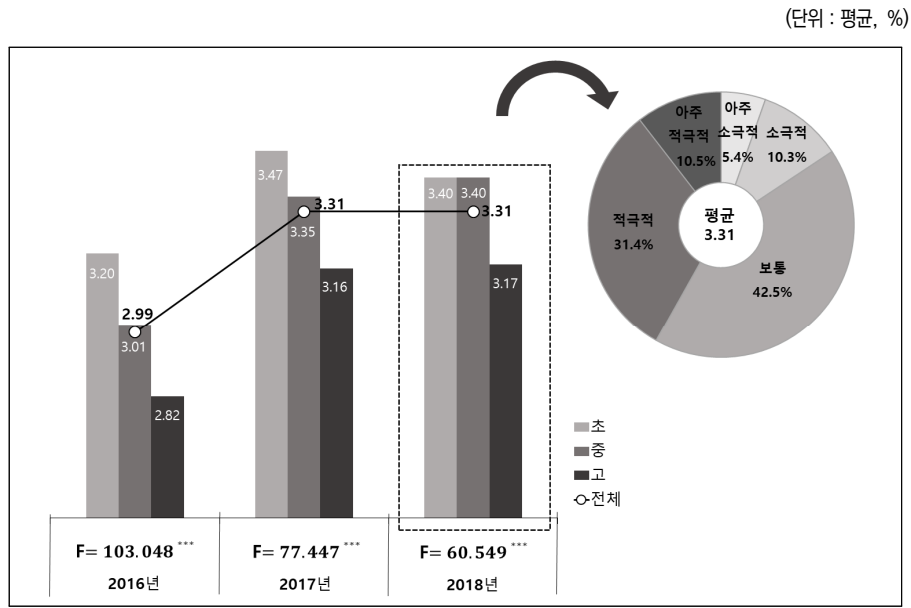


그림 III-36 연도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연도별 변화 양상이 발견되었다. 2016년도(초 3.20, 중 3.01, 고 2.82) (F=103.048, $p<.001$)와 2017년도(초 3.47, 중 3.35, 고 3.16)(F=77.447, $p<.001$)에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8년도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M=3.40)이 고등학생 (M=3.17)보다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60.549, $p<.001$).

5)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에 대해 최근 3년간 조사하였다(〈그림 III-37〉). 그 결과, 성취기대수준은 평균 3.05~3.12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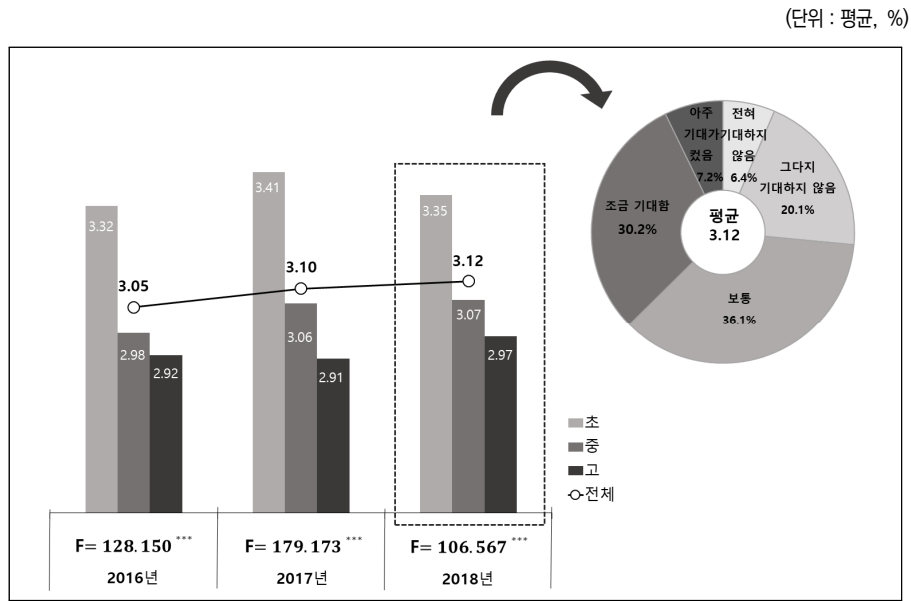


그림 III-37 연도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매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학교급에 따라 연도별로 성취기대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초등학생의 기대수준($M=3.32$)이 중학생($M=2.98$)이나 고등학생($M=2.9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128.150$, $p<.001$). 한편, 2017년도(초 3.41, 중 3.06, 고 2.91)($F=179.173$, $p<.001$)와 2018년도(초 3.35, 중 3.07, 고 2.97)($F=106.567$, $p<.001$)에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활동에서의 높은 성취기대수준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자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6)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하였는지 살펴본 결과(<그림 III-38>), 응답자의 약 60~70% 정도가 학교에서(학교에서 단체로 참여+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청소년단체 및 시설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였으나 그 참여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를 통한 청소년활동 형태가 주를 이루는 만큼 청소년지도사의 학교 배치 등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겠다.

한편, 2018년도의 참여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했다는 응답률이 48.8%로 가장 높았고, 교내동아리활동으로의 참여가 17.8%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12.1%, 가족과의 참여는 7.3%, 청소년단체 활동으로의 참여는 4.9%,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참여는 4.0%로 나타났다. 그밖에 교내-교외연계활동(2.5%), 종교활동(1.9%), 온라인동아리활동(0.8%)을 통한 참여율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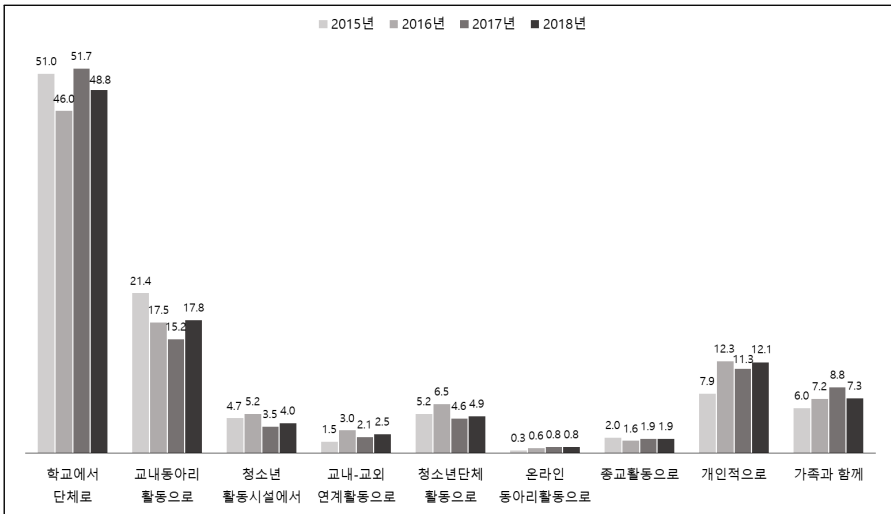


그림 III-38 연도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7)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지난 1년 동안 청소년활동에 주로 어떤 경로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2015년부터 분석한 결과를 보면(〈그림 III-39〉),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도 주요한 경로로 확인되었다.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참여한 비율은 2017년도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해마다 1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참여한 경우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 또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는 경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도의 청소년활동 참여경로를 살펴본 결과,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34.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21.4%),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13.6%),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10.5%), 기타(7.9%),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6.8%),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종교기관 지도자의 권유로,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거나 참여했었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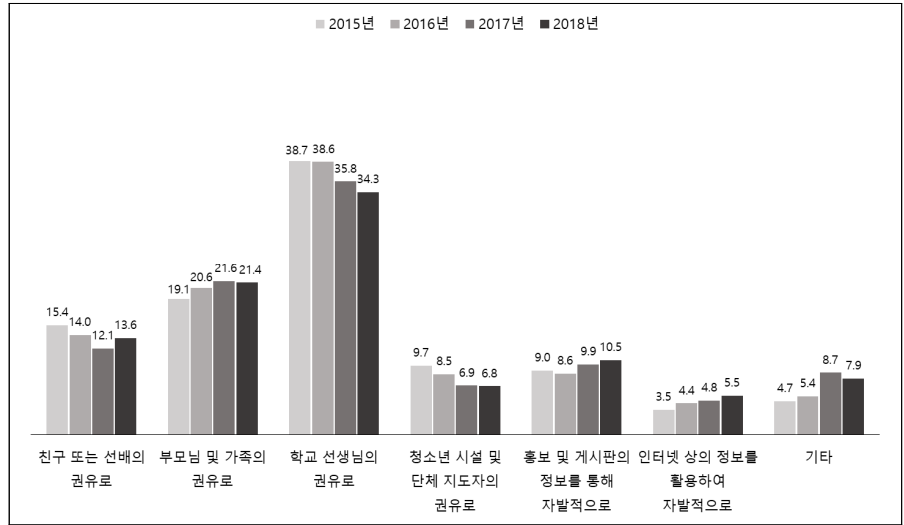


그림 III-39 연도별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8)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그림 III-40〉),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응답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꼽은 장애요인은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의견과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도까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응답이 조금씩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도에는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응답이 약간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가비용의 부담이나 부모님의 반대로 인한 청소년활동 참여의 어려움은 미약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부에 대한 방해나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응답률의 감소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 청소년활동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제약요건이 되지 않도록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동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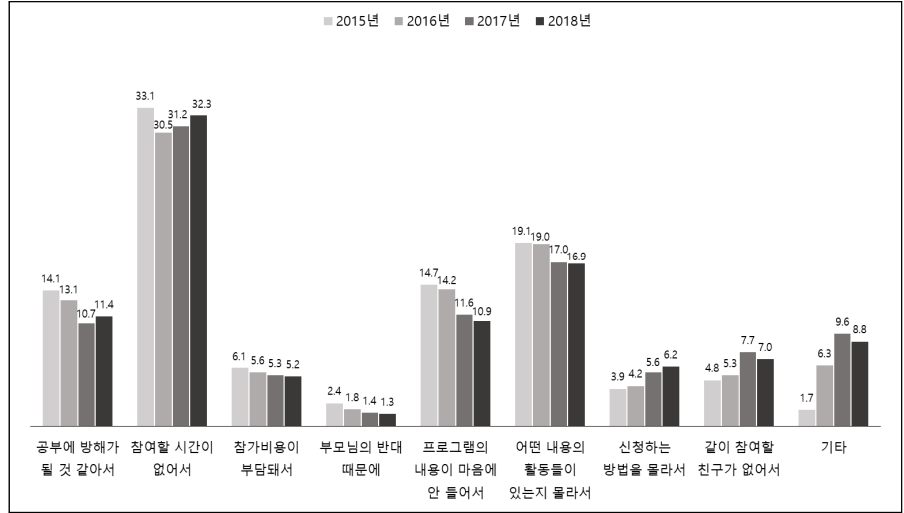


그림 III-40 연도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한편, 2018년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32.3%로 가장 높았고,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에 방해가 되었다는 의견이 16.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11.4%),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10.9%), 기타(8.8%),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다(7.0%), 신청 방법을 모른다(6.2%), 참가비용의 부담(5.2%), 부모님의 반대(1.3%) 순으로 제시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방해가 되는 요인이 없다는 의견과 관심 부족 등의 이유가 많았다. 또한 거리가 멀거나 교통의 불편함, 동반 참여자의 불참, 날씨 등의 환경적 제약과 게임 등 다른 활동으로 인한 시간부족, 안전에 대한 걱정, 건강과 체력 등의 이유가 청소년활동 참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II-18>),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1.2%),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4.6%),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2.0%) 등의 순으로, 여자 청소년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3.4%),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9.3%),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1.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chi^2=77.337$,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28.7%),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7.3%), 기타(12.9%) 등의 순으로, 중학생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2.0%),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6.2%),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4.8%) 등의 순으로, 그리고 고등학생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5.5%),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8.5%),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7.2%) 등의 순으로 응답하며 교급별 차이를 보였다($\chi^2=597.124$, $p<.001$).

표 III-18 2018년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χ^2
전체		11.4	32.3	5.2	1.3	10.9	16.9	6.2	7.0	8.8	-
성별	남자	11.7	31.2	5.0	1.3	12.0	14.6	6.4	7.3	10.5	77.337***
	여자	11.0	33.4	5.5	1.4	9.6	19.3	5.9	6.8	7.0	
학교급	초등학교	5.7	28.7	7.4	2.5	7.8	17.3	7.8	9.9	12.9	597.124***
	중학교	8.5	32.0	5.2	0.9	14.8	16.2	5.8	7.9	8.6	
	고등학교	18.5	35.5	3.4	0.7	10.0	17.2	5.1	4.0	5.6	
학업성적	상	13.2	34.4	5.2	1.3	9.7	13.9	5.5	7.3	9.5	85.345***
	중	10.2	32.9	5.0	1.4	10.3	19.0	6.4	6.8	7.9	
	하	10.8	28.2	5.7	1.3	13.8	17.7	6.4	6.9	9.2	
경제수준	상	11.4	34.0	4.2	1.0	10.2	16.8	5.4	7.7	9.3	72.136***
	중	11.6	31.3	5.2	1.5	11.6	17.3	6.5	6.2	8.8	
	하	10.8	29.7	8.6	2.0	11.2	16.4	7.2	7.1	7.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2)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⑦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⑧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⑨ 기타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의 청소년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4.4%),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3.9%),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3.2%) 등의 순으로, 중위권과 하위권에 속하는 청소년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중 32.9%, 하 28.2),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중 19.0%, 하 17.7%),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중 10.3%, 하 13.8%) 등의 순으로 응답하는 등 차이가 나타났다($\chi^2=85.345$, $p<.001$).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의 경우,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4.0%),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6.8%),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1.4%) 등의 순으로, 중 집단 청소년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1.3%),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7.3%),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1.6%)

등의 순으로, 하 집단 청소년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29.7%),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6.4%),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72.136, p<.001$).

표 Ⅲ-19 2018년도 시도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국	11.4	32.3	5.2	1.3	10.9	16.9	6.2	7.0	8.8
서울	10.2	34.7	4.7	1.2	11.3	15.3	7.0	6.4	9.3
부산	10.6	38.0	5.9	0.8	7.5	15.0	6.2	8.1	7.9
대구	11.2	32.5	4.7	1.2	9.5	17.1	3.4	10.1	10.2
인천	12.2	34.2	4.4	1.0	10.6	14.3	5.4	8.0	10.1
광주	13.2	33.1	5.0	1.0	7.4	18.0	8.3	3.2	10.9
대전	9.6	37.6	4.9	0.7	12.7	12.5	6.0	5.1	11.0
울산	13.1	23.3	4.5	1.0	13.6	20.6	8.9	8.4	6.7
세종	5.0	35.3	6.1	1.2	10.5	9.7	5.5	13.0	13.8
경기	12.9	30.5	4.7	1.3	11.0	17.8	6.3	7.1	8.3
강원	4.3	25.2	5.6	1.7	13.1	25.2	4.5	9.0	11.2
충북	8.6	27.7	8.9	1.8	14.5	16.9	4.5	8.5	8.5
충남	13.1	30.0	7.4	0.6	10.2	16.0	7.7	3.7	11.2
전북	10.0	29.2	6.2	2.0	11.9	21.1	9.1	6.2	4.3
전남	9.3	30.8	5.0	2.8	6.0	21.3	6.9	7.8	10.2
경북	12.5	32.5	6.2	0.9	12.2	17.4	3.7	6.1	8.5
경남	12.0	32.8	4.9	1.4	11.9	17.2	5.6	7.8	6.4
제주	13.8	34.7	5.5	3.7	12.8	12.8	3.8	5.1	7.8

* 주: 1)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⑦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⑧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⑨ 기타
 2) 음영처리 된 부분은 시도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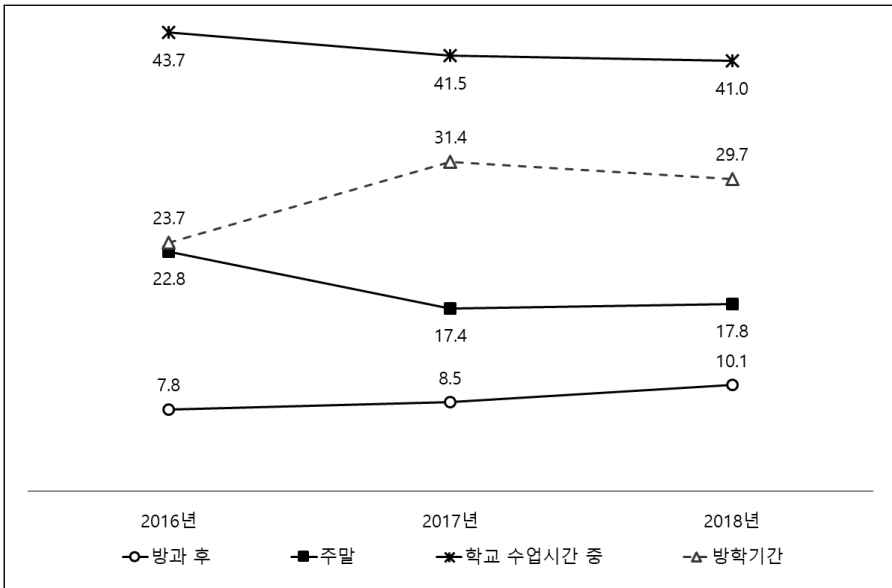
17개 시도별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19>와 같다. 모든 지역에서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나 강원 지역에서는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도 공동 1순위로 나타났다. 2, 3순위 또한 대부분 전국 순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와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를 선택하는 등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주요 응답에 대한 지역별 차이도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전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2순위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가 3순위로 나타났으며, 제주는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가 2순위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가 공동 3순위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서울, 울산, 강원, 충북, 전북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3순위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세종은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남은 ‘기타’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9)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장소, 대상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 장소, 대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III-41>~<그림 III-43>과 같다. 우선,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청소년활동 시간대는 학교 수업시간 중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0%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시간대는 방학기간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년도 23.7%에서 이후 30%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 주말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2016년도에 22.8%로 나타났지만, 2017년부터 약 5%p 가량 감소하였고, 방과 후라는 응답은 약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에 대한 2018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수업 시간 중’이 4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방학기간’(29.7%), ‘주말’(17.8%), ‘방과 후’(10.1%) 등의 순으로 조사되며, 3년간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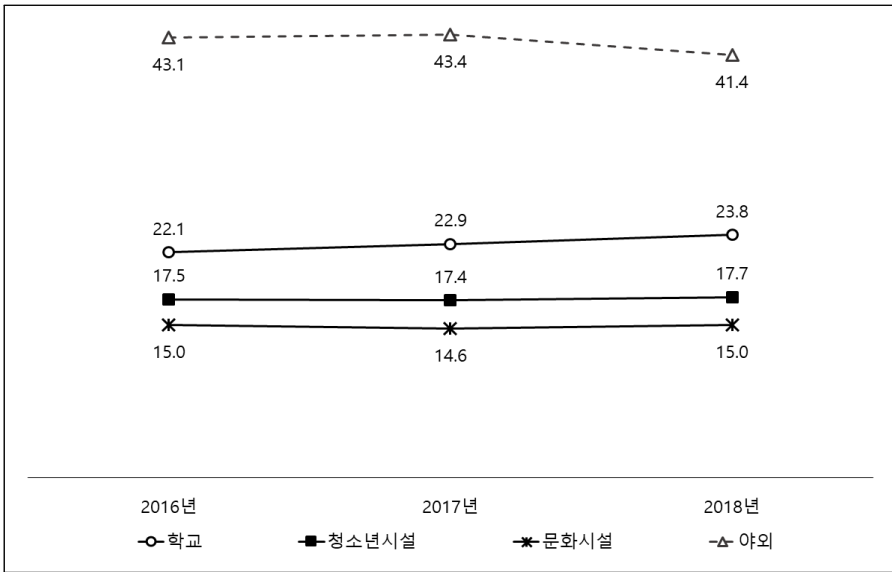
* 주: '기타'는 2016년 1.9%, 2017년 1.2%, 2018년 1.5%로 나타남.

그림 Ⅲ-41 연도별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활동의 희망 장소에 대해서는 '야외'라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선호되는 장소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학교',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의 희망 시간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가장 선호하지만 교내보다는 야외에서의 활동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실내외 장소와 환경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이 계획되어야 하겠다.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에 대한 2018년도의 응답률은 '야외'가 41.4%, '학교'가 23.8%, '청소년시설'이 17.7%, '문화시설'이 15.0%, '기타'가 2.2%로 분석되었다. 응답률과 응답 순위 등에 관한 이러한 양상은 최근 3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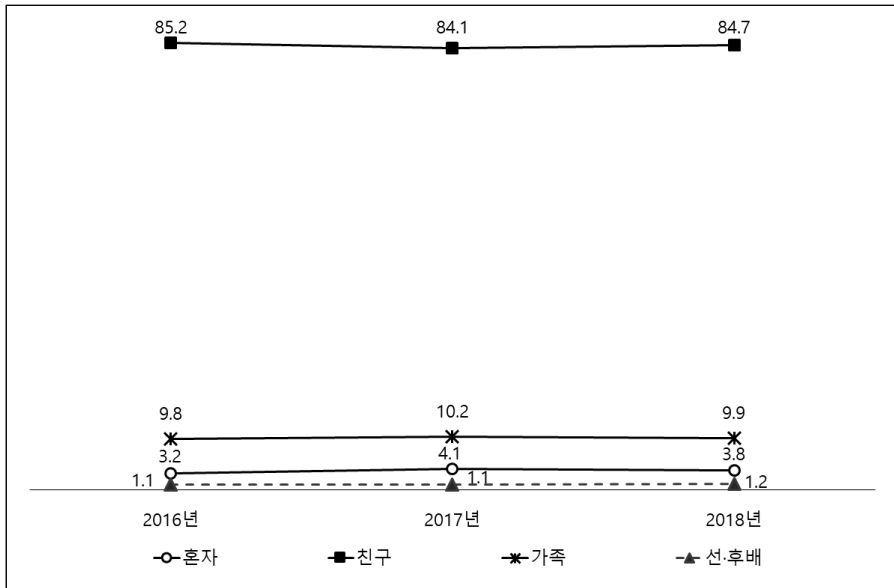
* 주: '기타'는 2016년 2.3%, 2017년 1.7%, 2018년 2.2%로 나타남.

그림 Ⅲ-42 연도별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친구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이 최근 3년 동안 85% 내외의 응답률을 이어가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10% 정도로 매년 비슷하였으며, 혼자 또는 선·후배와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에서 친구와의 동반 참여를 비롯한 친구와의 상호교류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중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결과와도 함께 재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2018년도의 구체적인 응답률을 보면, '친구'가 84.7%로 가장 높았고, '가족'이 9.9%, '혼자'가 3.8%, '선·후배'가 1.2%, '기타'가 0.5%로 확인되었다.

(단위 : %)



* 주: '기타'는 2016년 0.8%, 2017년 0.6%, 2018년 0.5%로 나타남.

그림 III-43 연도별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10)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시간의 확보와 흥미로운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선택 시 청소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비교적 강조되었으며, 청소년활동 정보에 관한 용이성은 2015년에 비해 덜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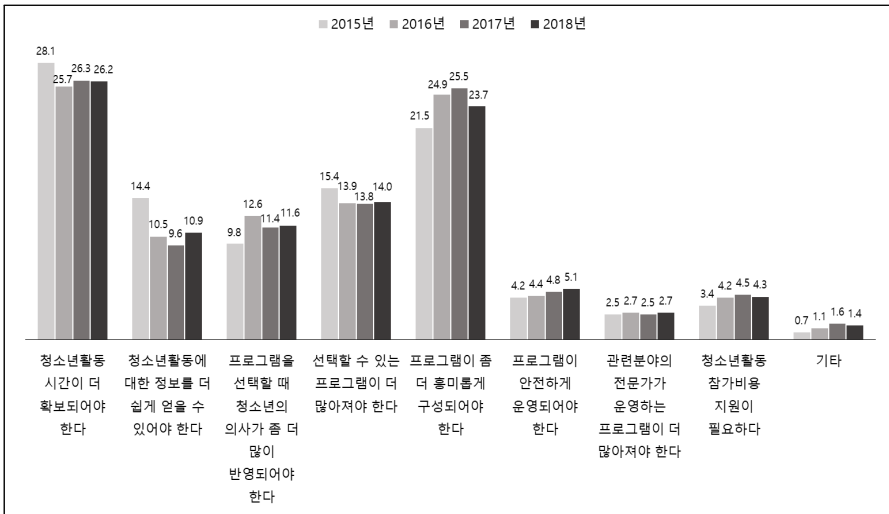


그림 Ⅲ-44 연도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한편,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에 대한 2018년도 결과를 확인해 보면, 청소년활동 시간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26.2%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23.7%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하고(14.0%), 프로그램 선택 시 청소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11.6%),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10.9%)는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활성화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급과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초 22.7%, 중 27.5%),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초 21.7%, 중 23.2%),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초 13.9%, 중 15.5%)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32.2%),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1.3%),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12.8%) 등의 순으로 응답하며, 교급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초 12.9%, 중 2.1%, 고 3.0%)는 높게 확인된 반면, 프로그램 선택 시 청소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초 6.9%, 중 14.9%, 고 12.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chi^2=704.892$, $p<.001$). 가정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응답 순위는 전체 순위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응답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상 집단(24.7%)과 중 집단(24.4%)이 하 집단(18.6%)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 하였고,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하 집단(8.0%)이 중 집단(3.8%)이나 상 집단(3.6%)보다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chi^2=88.320$, $p<.001$).

표 III-20 2018년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χ^2
전체		26.2	10.9	11.6	14.0	23.7	5.1	2.7	4.3	1.4	-
성별	남자	26.7	10.9	11.4	13.9	23.3	5.1	2.6	4.4	1.6	5.645
	여자	25.6	11.0	11.7	14.1	24.2	5.1	2.9	4.3	1.2	
학교급	초등학교	21.7	11.6	6.9	13.9	22.7	12.9	3.0	5.2	2.1	704.892***
	중학교	23.2	9.0	14.9	15.5	27.5	2.1	2.2	4.4	1.3	
	고등학교	32.2	12.1	12.6	12.8	21.3	1.5	3.0	3.6	0.9	
학업성적	상	26.1	11.4	11.4	13.7	24.2	4.7	2.6	4.3	1.6	25.993
	중	25.4	11.0	11.1	14.4	23.4	6.1	2.8	4.5	1.2	
	하	27.7	10.1	12.6	13.8	23.4	4.0	2.8	4.0	1.5	
경제수준	상	25.4	11.3	11.1	14.0	24.7	5.8	3.0	3.6	1.2	88.320***
	중	27.4	10.3	11.4	13.9	24.4	4.8	2.5	3.8	1.5	
	하	25.8	11.3	13.6	14.4	18.6	3.8	2.6	8.0	1.9	

* 주: 1) * $p<.05$, ** $p<.01$, *** $p<.001$
 2) ①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⑧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⑨ 기타

표 III-21 2018년도 시도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국	26.2	10.9	11.6	14.0	23.7	5.1	2.7	4.3	1.4
서울	25.6	10.7	12.5	13.2	26.7	4.3	1.9	3.7	1.3
부산	29.0	8.9	10.0	15.6	23.3	4.5	3.0	4.2	1.3
대구	26.9	7.8	12.0	13.5	26.3	4.3	2.8	5.2	1.2
인천	24.1	10.2	13.4	15.4	20.5	5.3	3.0	5.8	2.3
광주	29.7	13.1	8.7	9.3	24.4	5.3	3.9	5.0	.5
대전	34.8	7.1	13.2	14.1	21.9	3.6	2.3	1.1	1.8
울산	25.3	12.5	10.5	15.3	20.7	5.8	4.9	4.1	1.0
세종	25.9	7.2	9.5	10.0	34.2	6.8	3.3	2.6	.6
경기	25.5	12.9	10.8	13.6	23.4	4.8	2.6	4.5	1.8
강원	24.7	10.6	9.6	14.2	26.6	6.9	2.1	4.5	.7
충북	24.9	12.1	14.9	14.1	19.3	4.9	2.9	6.6	.5
충남	29.4	8.8	9.0	17.5	20.0	7.7	3.4	2.2	2.0
전북	22.3	12.9	12.7	15.5	25.7	4.2	1.1	5.0	.5
전남	30.6	9.5	9.0	13.5	23.8	5.7	1.8	5.6	.5
경북	25.6	10.1	11.4	16.9	20.0	5.8	4.1	4.6	1.5
경남	24.6	9.7	14.0	11.3	24.4	7.7	3.3	3.6	1.5
제주	22.9	13.7	12.4	15.5	21.4	4.1	4.2	4.8	1.1

* 주: 1) ①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⑧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⑨ 기타

2) 음영처리 된 부분은 시도별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3순위

이어서 각 시도별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표 III-21〉), 1~3순위에 해당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결과가 대체로 전국 응답 양상과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다만, 서울, 세종, 강원, 전북 지역에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3순위 응답에 대해서도 광주 지역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를 꼽았고, 충북과 경남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를 꼽는 등 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11)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의 10가지 영역 가운데 앞으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영역을 2015년부터 1~3순까지 조사하였으며, 그 중 1순위에 해당하는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는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문화예술활동’과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활동’이 매우 유사한 비율로 1, 2순위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선호도는 2016년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진로탐색 및 진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예술활동’은 2순위로 밀려났다. 그 뒤를 이어 ‘모험개척활동’이 계속적으로 3순위에, ‘과학정보활동’이 4순위에, 그리고 ‘건강·보건활동’이 5순위에 자리하는 등 청소년들이 주로 희망하는 활동영역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진로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지속적인 취업난과 같은 사회 불안과 진로교육 및 고용노동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영역의 청소년활동이 그러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진로활동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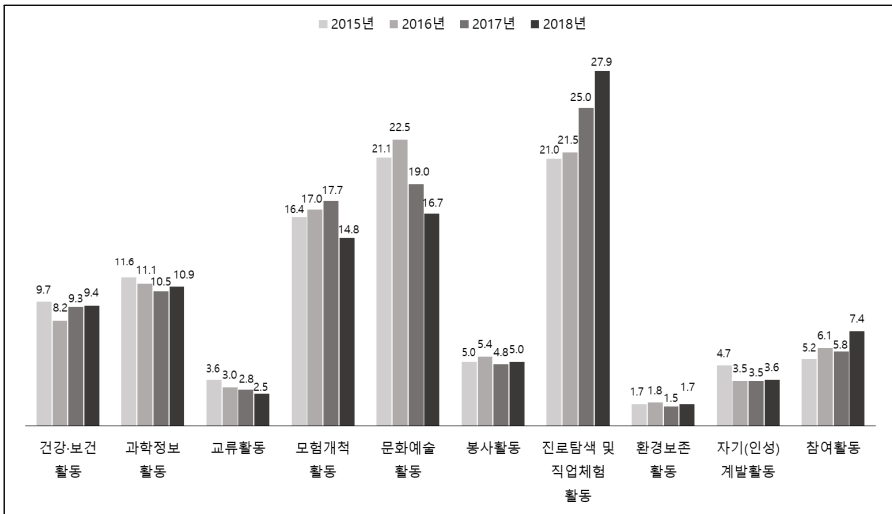


그림 Ⅲ-45 연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한편, 구체적으로 2018년도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살펴보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참여 요구가 2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16.7%), ‘모험개척활동’(14.8%), ‘과학정보활동’(10.9%), ‘건강·보건활동’(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Ⅲ-22〉),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3.2%), ‘모험개척활동’(20.2%), ‘과학정보활동’(16.4%) 등의 순으로, 여자 청소년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32.9%), ‘문화예술활동’(25.0%), ‘모험개척활동’(9.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chi^2=957.121$, $p<.001$).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6.7%), ‘모험개척활동’(18.4%), ‘과학정보활동’(12.9%) 등의 순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중 29.7%, 고 27.3%), ‘문화예술활동’(중 18.6%, 고 19.1%), ‘모험개척활동’(중 16.1%, 고 1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chi^2=349.237$, $p<.001$).

표 III-22 2018년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χ^2
전체		9.4	10.9	2.5	14.8	16.7	5.0	27.9	1.7	3.6	7.4	-
성별	남자	11.5	16.4	2.1	20.2	9.0	4.0	23.2	1.6	3.4	8.4	957.121***
	여자	7.2	5.0	2.9	9.0	25.0	6.0	32.9	1.9	3.9	6.3	
학교급	초등학교	10.7	12.9	0.5	18.4	11.7	5.0	26.7	2.7	2.3	9.2	349.237***
	중학교	7.6	9.3	2.1	16.1	18.6	4.1	29.7	1.2	3.2	8.2	
	고등학교	10.0	10.7	4.4	11.0	19.1	5.7	27.3	1.4	5.1	5.4	
학업성적	상	7.0	15.0	2.9	17.2	15.4	4.6	25.7	2.0	3.5	6.7	174.875***
	중	10.5	10.1	2.1	13.8	17.4	5.2	28.0	1.9	3.3	7.8	
	하	11.1	6.4	2.6	13.3	17.4	5.0	30.9	1.1	4.4	7.8	
경제수준	상	8.5	12.2	2.4	16.0	15.7	4.6	27.1	1.9	3.6	7.9	57.516***
	중	10.0	10.2	2.5	14.3	16.6	5.0	29.0	1.7	3.4	7.3	
	하	10.8	8.6	2.9	12.7	20.0	5.8	27.5	1.3	4.3	6.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건강·보건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교류활동, ④ 모험개척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봉사활동,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계발활동, ⑩ 참여활동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5.7%), ‘모험개척활동’(17.2%), ‘문화예술활동’(15.4%) 등의 순으로, 중·하위권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중 28.0%, 하 30.9%), ‘문화예술활동’(중·하 17.4%), ‘모험개척활동’(중 13.8%, 하 1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과학정보활동’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15.0%, 중 10.1%, 하 6.4%)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chi^2=174.875$, $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7.1%), ‘모험개척활동’(16.0%), ‘문화예술활동’(15.7%) 등의 순으로, 중·하 집단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중 29.0%, 하 27.5%), ‘문화예술활동’(중 16.6%, 하 20.0%), ‘모험개척활동’(중 14.3%, 하 12.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chi^2=57.516$, $p<.001$).

다음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구분에 따라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조사한 결과(〈표 III-23〉),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희망하였으나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의 청소년들은 ‘모험개척활동’을 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세종 지역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II-23 2018년도 시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국	9.4	10.9	2.5	14.8	16.7	5.0	27.9	1.7	3.6	7.4
서울	8.9	10.8	2.3	17.4	18.1	5.6	22.8	1.5	3.7	9.0
부산	9.7	8.6	3.9	14.9	20.2	4.4	26.9	1.2	2.9	7.2
대구	8.9	8.3	3.5	12.7	20.9	7.8	28.0	2.1	3.1	4.8
인천	10.2	11.2	2.2	15.1	17.6	7.8	25.3	1.2	2.3	7.0
광주	6.3	14.2	2.2	16.3	12.8	3.8	30.7	4.9	4.7	4.2
대전	10.7	10.1	1.4	14.7	19.3	2.0	25.7	2.0	3.1	10.9
울산	11.4	9.6	3.1	13.5	16.5	5.7	32.1	.3	2.3	5.5
세종	11.3	13.0	.8	12.6	23.2	8.8	23.0	.6	2.0	4.7
경기	9.7	11.7	2.5	15.0	16.6	4.6	26.6	2.2	4.3	6.9
강원	9.0	8.0	1.7	13.5	12.8	3.5	35.5	.5	6.4	9.1
충북	9.9	14.9	1.5	10.9	18.2	5.5	20.8	1.5	4.1	12.6
충남	7.6	9.0	2.4	13.5	15.6	3.8	36.8	1.7	3.6	6.0
전북	8.4	13.1	2.5	14.3	12.0	5.0	33.9	1.7	4.0	5.0
전남	6.0	9.4	3.5	12.6	11.6	4.6	41.4	.7	1.8	8.4
경북	10.0	10.2	2.8	15.0	16.2	4.8	30.7	1.5	2.5	6.3
경남	11.9	12.2	2.5	13.5	13.7	4.4	27.5	2.3	3.1	9.0
제주	9.7	10.4	1.2	15.5	15.1	1.9	35.0	.3	4.6	6.1

* 주: 1) ① 건강·보건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교류활동, ④ 모험개척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봉사활동,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개발활동, ⑩ 참여활동
 2) 음영처리 된 부분은 시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1~2순위

12)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최근 1년간 10곳의 청소년활동 관련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근 4년 동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시설은 ‘도서관’으로, 응답자의 2/3 이상이 이용하였으며, ‘공연 및 전시 시설’도 연간 53.8%~64.7%의 청소년이 이용하여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주민센터,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까지는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17년도 부터는 ‘주민센터, 문화센터’의 이용률이 약간씩 앞섰으며,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이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의 이용률보다 약간 높게 확인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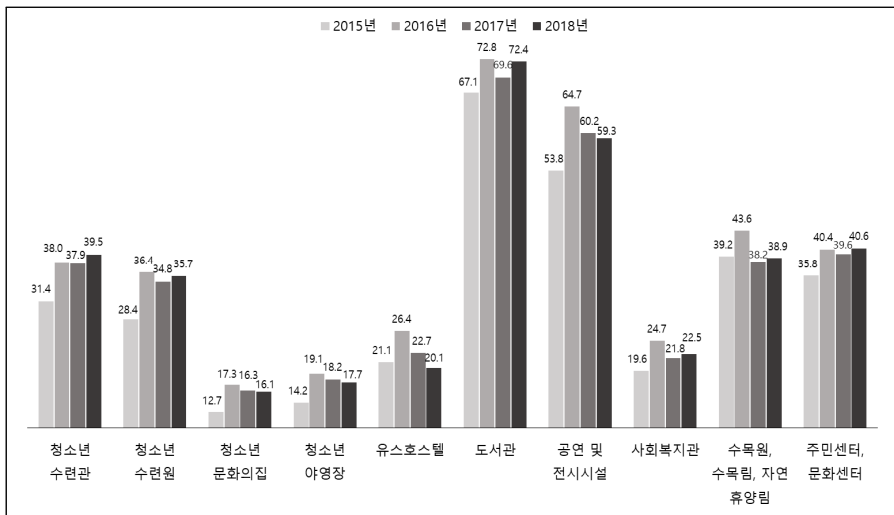


그림 III-46 연도별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률

또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률은 2016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35%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청소년활동 관련시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도서관’이 72.4%, ‘공연 및 전시시설’이 59.3%, ‘주민센터, 문화센터’가 40.6%, ‘청소년수련관’이 39.5%,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이 38.9%, ‘청소년수련원’이 35.7%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관’이 22.5%, ‘유스호스텔’이 20.1%, ‘청소년야영장’이 17.7%, ‘청소년문화의집’이 16.1%의 이용률을 보고하였다.

13)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활동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전혀 모른다’~‘잘 알고 있다’의 3점 척도 중 평균 1.40 전후로 나타났고, 이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이 평균 1.3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인지도는 평균 1.20 이상,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는 평균 1.20 이하의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최근 4년간 청소년활동정책의 인지정도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 학교, 가정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교사, 부모(보호자)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때이다.

한편, 2018년도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M=1.43) ‘청소년운영위원회’(M=1.41), ‘청소년참여위원회’(M=1.35), ‘청소년활동정보

서비스: e-청소년'(M=1.33),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M=1.29), '청소년특별회의'(M=1.2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M=1.25),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M=1.1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M=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연도별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15년	1.24	1.14	1.40	1.28	1.35	1.41	1.31	1.29	1.18
2016년	1.27	1.15	1.42	1.30	1.37	1.44	1.32	1.28	1.20
2017년	1.23	1.14	1.41	1.23	1.31	1.38	1.30	1.28	1.18
2018년	1.25	1.15	1.43	1.28	1.35	1.41	1.33	1.29	1.18

* 주: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2) 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②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③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④ 청소년특별회의, ⑤ 청소년참여위원회, ⑥ 청소년운영위원회, ⑦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⑧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⑨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4) 청소년 여가시간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식사시간, 취침, 학교수업, 학교숙제, 학원·과외 등의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평일과 휴일, 방학기간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3.43시간(SD=2.21),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8.04시간(SD=3.77),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8.30시간(SD=3.78)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 분포 양상도 작년과 유사하게 나타나 평일에는 3시간 이하의 여가시간을 갖는 비율이 59.7%로 가장 많았고, 휴일과 방학 중에는 응답자의 약 2/3 정도(휴일 61.2%, 방학 64.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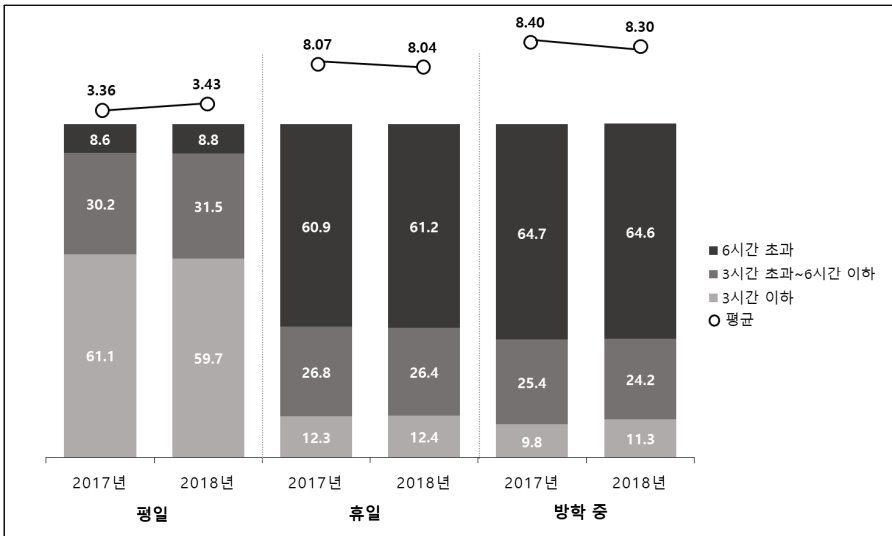


그림 III-47 연도별 청소년 여가시간

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청소년활동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태조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에 따른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의 차이와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정의적 특성 등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가 정의적 특성(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와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와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첫 번째로,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 25>와 같다. 먼저 참여형태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F=6.535$, $p<.001$). 구체적으로 청소년단체
 활동($M=3.58$) 및 청소년활동시설($M=3.53$)에서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M=3.51$)
 참여한 청소년이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M=3.19$)으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단체활동($M=3.58$)으로
 참여한 경우는 학교에서 단체($M=3.36$)로 혹은 교내동아리활동($M=3.32$)으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참여경로에 따른 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3.445$, $p<.001$). 즉, 홍보·게시판($M=3.51$) 또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M=3.47$)으로 참여하거나 부모님(가족)($M=3.45$), 청소년시설·단체 지도자
 ($M=3.45$), 학교 선생님의 권유($M=3.35$)로 참여한 청소년이 친구·선배의 권유
 ($M=3.20$)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보·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M=3.51$)으로 참여한 경우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M=3.35$)로 참여한 청소년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에 따른 참여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III- 26>). 참여정도는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문항이다. 참여형태($F=4.232$, $p<.001$) 및 참여
 경로($F=15.501$, $p<.001$)에 따른 참여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
 되었으나, 사후분석 결과, 참여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참여
 경로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홍보·게시판($M=3.49$) 혹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M=3.47$)으로 참여하거나 부모님(가족)의 권유($M=3.38$)로

표 III-2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참여경로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차이

구분		청소년활동 만족도 ¹⁾		F
		평균 ²⁾	표준편차	
청소년활동 만족도		3.37	1.02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a	3.36	0.97	6.535*** c,e,f>d e>a,b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b	3.32	1.01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c	3.53	1.04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d	3.19	1.20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e	3.58	1.07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3.18	1.28	
	종교활동으로 참여	3.35	1.12	
	개인적으로 참여	3.39	1.00	
	가족과 함께 참여 ^f	3.51	1.11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a	3.20	1.06	13.445*** b,c,d,e,f>a e>c b,e>g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b	3.45	1.04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c	3.35	0.97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d	3.45	0.98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e	3.51	0.98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f	3.47	0.98	
	기타 ^g	3.27	1.10	

* 주: 1) 본 분석에서의 청소년활동 만족도는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의 단일 문항임.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 음영처리 된 부분은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별 청소년활동 만족도 1~3순위
 4) * α .05, ** α .01, *** α .001

표 Ⅲ-26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참여경로에 따른 참여정도 차이

구분		참여정도		F
		평균 ¹⁾	표준편차	
참여정도		3.31	0.98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3.27	0.96	4.232***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3.32	0.99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3.46	0.98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3.27	1.05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3.44	0.98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3.39	1.04	
	종교활동으로 참여	3.25	0.98	
	개인적으로 참여	3.36	0.97	
	가족과 함께 참여	3.40	0.96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a	3.18	1.02	15.501*** b,e,f)a,c d)a e,f)g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b	3.38	0.94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c	3.25	0.97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d	3.36	0.90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e	3.49	0.96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f	3.47	1.00	
	기타 ^g	3.25	1.05	

* 주: 1) ①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음영처리 된 부분은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3순위
 3) * α .05, ** α .01, *** α .001

참여한 경우가 학교 선생님(M=3.25)이나 친구·선배의 권유(M=3.18)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참여정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단체 지도자의 권유(M=3.36)로 참여한 경우도 친구·선배의 권유(M=3.18)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참여정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별 성취기대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III- 27>). 성취기대수준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문항이다. 먼저, 참여형태에 따라서는 가족과 함께(M=3.38), 청소년단체활동(M=3.36)이나 개인적(M=3.18)으로 그리고 교내동아리활동(M=3.15)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단체(M=3.01)로 참여한 경우보다 성취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M=3.38) 참여한 경우는 교내동아리활동(M=3.15)으로 참여한 경우보다 성취기대수준이 높았다($F=15.257$, $p<.001$).

참여경로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M=3.33)으로 참여하거나, 부모님(가족)의 권유(M=3.29)로 그리고 홍보·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M=3.24)으로 참여한 경우가 학교 선생님(M=3.05)이나 친구·선배의 권유(M=2.95)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성취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단체 지도자의 권유(M=3.16)로 참여한 청소년은 친구·선배의 권유(M=2.95)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성취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F=29.679$, $p<.001$).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별로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활동에 청소년단체 활동이나 가족과 함께 등으로 참여한 경우, 그리고 홍보·게시판이나 인터넷 상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부모님(가족) 혹은 청소년지도자의 권유 등으로 참여한 경우 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및 성취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 -27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참여경로에 따른 성취기대수준 차이

구분		성취기대수준		F
		평균 ¹⁾	표준편차	
성취기대수준		3.12	1.02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a	3.01	0.99	15.257*** b,c,d,e>a e>b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b	3.15	0.99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3.21	1.02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3.16	1.03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c	3.36	1.05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3.31	1.11	
	종교활동으로 참여	3.21	0.93	
	개인적으로 참여 ^d	3.18	1.05	
	가족과 함께 참여 ^e	3.38	1.07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a	2.95	1.00	29.679*** b,e,f>a,c d>a b,c,d,e,f>g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b	3.29	1.00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c	3.05	1.00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d	3.16	0.92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e	3.24	1.02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f	3.33	1.05	
	기타 ^g	2.87	1.08	

* 주: 1) ①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②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기대하였다,
 ⑤ 아주 기대가 컸다
 2) 음영처리 된 부분은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3순위
 3) * α .05, ** α .01, *** α .001

(2)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과 학업성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III- 28〉~〈표 III- 33〉).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표 III-28〉),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M=3.60$)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M=3.45$)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3.467$, $p<.01$). 또한 10가지 영역별 활동에 따른 차이를 보면, 건강·보건활동(참여 3.61, 비참여 3.44) ($t=5.912$, $p<.001$), 과학정보활동(참여 3.65, 비참여 3.52) ($t=7.801$, $p<.001$), 교류활동(참여 3.67, 비참여 3.56) ($t=7.246$, $p<.001$), 모험개척활동(참여 3.66, 비참여 3.52) ($t=9.044$, $p<.001$), 문화예술활동(참여 3.62, 비참여 3.52) ($t=4.825$, $p<.001$), 봉사활동(참여 3.63, 비참여 3.55) ($t=5.055$, $p<.001$), 진로탐색 및 직업 체험활동(참여 3.63, 비참여 3.53) ($t=6.077$, $p<.001$), 환경보존활동(참여 3.67, 비참여 3.53) ($t=9.471$, $p<.001$), 자기(인성)계발활동(참여 3.68, 비참여 3.54) ($t=9.101$, $p<.001$), 참여활동(참여 3.70, 비참여 3.55) ($t=9.190$, $p<.001$)의 모든 활동에서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29〉와 같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살펴본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학정보활동(참여 3.64, 비참여 3.60) ($t=2.628$, $p<.01$), 교류활동(참여 3.66, 비참여 3.61) ($t=2.642$, $p<.01$), 문화예술활동(참여 3.64, 비참여 3.59) ($t=2.233$, $p<.05$),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참여 3.64, 비참여 3.60) ($t=2.348$, $p<.05$), 자기(인성)계발활동(참여 3.65, 비참여 3.60) ($t=3.106$, $p<.01$), 참여활동(참여 3.65, 비참여 3.61) ($t=2.268$, $p<.05$)에 최근 1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성숙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28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단위 : 명, 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활동(전체)	참여한 적 있음	8,775	3.60	0.73	3.467**
	참여한 적 없음	261	3.45	0.71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있음	8,363	3.61	0.72	5.912***
	참여한 적 없음	672	3.44	0.75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있음	5,615	3.65	0.71	7.801***
	참여한 적 없음	3,421	3.52	0.74	
교류활동	참여한 적 있음	3,203	3.67	0.71	7.246***
	참여한 적 없음	5,833	3.56	0.73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있음	5,365	3.66	0.71	9.044***
	참여한 적 없음	3,671	3.52	0.74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있음	7,487	3.62	0.73	4.825***
	참여한 적 없음	1,549	3.52	0.70	
봉사활동	참여한 적 있음	5,495	3.63	0.72	5.055***
	참여한 적 없음	3,540	3.55	0.74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있음	6,369	3.63	0.72	6.077***
	참여한 적 없음	2,666	3.53	0.74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있음	4,438	3.67	0.70	9.471***
	참여한 적 없음	4,598	3.53	0.75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한 적 있음	4,093	3.68	0.71	9.101***
	참여한 적 없음	4,942	3.54	0.73	
참여활동	참여한 적 있음	2,896	3.70	0.72	9.190***
	참여한 적 없음	6,140	3.55	0.73	

* 주: * α .05, ** α .01, *** α .001

표 III-29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단위 : 명, 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활동(전체)	참여한 적 있음	8,770	3.63	0.77	-0.511
	참여한 적 없음	261	3.65	0.85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있음	8,360	3.63	0.77	0.644
	참여한 적 없음	671	3.61	0.81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있음	5,613	3.64	0.76	2.628**
	참여한 적 없음	3,419	3.60	0.78	
교류활동	참여한 적 있음	3,202	3.66	0.77	2.642**
	참여한 적 없음	5,829	3.61	0.77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있음	5,361	3.64	0.76	1.939
	참여한 적 없음	3,670	3.61	0.79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있음	7,483	3.64	0.77	2.233*
	참여한 적 없음	1,549	3.59	0.80	
봉사활동	참여한 적 있음	5,493	3.64	0.76	1.276
	참여한 적 없음	3,538	3.61	0.78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있음	6,364	3.64	0.76	2.348*
	참여한 적 없음	2,668	3.60	0.80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있음	4,437	3.64	0.76	0.999
	참여한 적 없음	4,594	3.62	0.79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한 적 있음	4,093	3.65	0.77	3.106**
	참여한 적 없음	4,938	3.60	0.77	
참여활동	참여한 적 있음	2,895	3.65	0.77	2.268*
	참여한 적 없음	6,136	3.61	0.77	

* 주: * α .05, ** α .01, *** α .001

표 III-30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단위 : 명, 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활동(전체)	참여한 적 있음	8,776	3.86	0.77	4.862***
	참여한 적 없음	261	3.60	0.86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있음	8,364	3.87	0.77	7.133***
	참여한 적 없음	672	3.62	0.86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있음	5,615	3.91	0.76	9.560***
	참여한 적 없음	3,421	3.75	0.79	
교류활동	참여한 적 있음	3,202	3.95	0.75	9.434***
	참여한 적 없음	5,834	3.79	0.78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있음	5,366	3.94	0.75	13.042***
	참여한 적 없음	3,670	3.72	0.79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있음	7,487	3.87	0.77	6.554***
	참여한 적 없음	1,549	3.73	0.78	
봉사활동	참여한 적 있음	5,495	3.90	0.76	8.191***
	참여한 적 없음	3,541	3.77	0.79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있음	6,369	3.90	0.76	9.202***
	참여한 적 없음	2,667	3.73	0.80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있음	4,439	3.96	0.74	12.881***
	참여한 적 없음	4,597	3.75	0.79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한 적 있음	4,095	3.95	0.75	10.746***
	참여한 적 없음	4,942	3.77	0.79	
참여활동	참여한 적 있음	2,897	3.97	0.76	10.059***
	참여한 적 없음	6,139	3.79	0.78	

* 주: * α .05, ** α .01, *** α .001

〈표 III-30〉은 청소년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참여 청소년($M=3.86$)이 비참여 청소년($M=3.60$)보다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62, p<.001$). 또한 10가지 영역별 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라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즉, 건강·보건활동(참여 3.87, 비참여 3.62)($t=7.133, p<.001$), 과학정보활동(참여 3.91, 비참여 3.75)($t=9.560, p<.001$), 교류활동(참여 3.95, 비참여 3.79) ($t=9.434, p<.001$), 모험개척활동(참여 3.94, 비참여 3.72)($t=13.042, p<.001$), 문화예술활동(참여 3.87, 비참여 3.73)($t=6.554, p<.001$), 봉사활동(참여 3.90, 비참여 3.77)($t=8.191, p<.00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참여 3.90, 비참여 3.73)($t=9.202, p<.001$), 환경보존활동(참여 3.96, 비참여 3.75)($t=12.881, p<.001$), 자기(인성)계발활동(참여 3.95, 비참여 3.77)($t=10.746, p<.001$), 참여활동(참여 3.97, 비참여 3.79)($t=10.059, p<.001$)에 참여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III-31〉). 분석결과, 참여 청소년($M=3.56$)이 비참여 청소년($M=3.24$)에 비해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t=6.032, p<.001$), 건강·보건활동(참여 3.57, 비참여 3.36)($t=5.561, p<.001$), 과학정보활동(참여 3.61, 비참여 3.45) ($t=9.173, p<.001$), 교류활동(참여 3.67, 비참여 3.48)($t=10.207, p<.001$), 모험개척활동(참여 3.64, 비참여 3.42)($t=11.990, p<.001$), 문화예술활동(참여 3.60, 비참여 3.32)($t=12.230, p<.001$), 봉사활동(참여 3.67, 비참여 3.37)($t=16.347, p<.00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참여 3.62, 비참여 3.38)($t=11.994, p<.001$), 환경보존활동(참여 3.68, 비참여 3.43)($t=14.414, p<.001$), 자기(인성)계발활동(참여 3.69, 비참여 3.44)($t=14.255, p<.001$), 참여활동(참여 3.72, 비참여 3.47)($t=13.226, p<.001$)의 10가지 영역별 활동에 있어서도 참여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에 비해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

(단위: 명, 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활동(전체)	참여한 적 있음	8,773	3.56	0.83	6.032***
	참여한 적 없음	261	3.24	0.96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있음	8,362	3.57	0.83	5.561***
	참여한 적 없음	672	3.36	0.95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있음	5,613	3.61	0.82	9.173***
	참여한 적 없음	3,421	3.45	0.85	
교류활동	참여한 적 있음	3,202	3.67	0.82	10.207***
	참여한 적 없음	5,832	3.48	0.84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있음	5,363	3.64	0.82	11.990***
	참여한 적 없음	3,671	3.42	0.84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있음	7,485	3.60	0.82	12.230***
	참여한 적 없음	1,549	3.32	0.88	
봉사활동	참여한 적 있음	5,494	3.67	0.79	16.347***
	참여한 적 없음	3,540	3.37	0.88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있음	6,367	3.62	0.80	11.994***
	참여한 적 없음	2,667	3.38	0.89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있음	4,436	3.68	0.80	14.414***
	참여한 적 없음	4,598	3.43	0.85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한 적 있음	4,094	3.69	0.79	14.255***
	참여한 적 없음	4,940	3.44	0.85	
참여활동	참여한 적 있음	2,896	3.72	0.80	13.226***
	참여한 적 없음	6,138	3.47	0.84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2〉는 청소년활동의 참여여부와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M=3.64$)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M=3.37$)에 비해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t=5.108$, $p<.001$).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건활동(참여 3.65, 비참여 3.45)($t=6.086$, $p<.001$), 과학정보활동(참여 3.67, 비참여 3.57)($t=7.348$, $p<.001$), 교류활동(참여 3.69, 비참여 3.60)($t=6.084$, $p<.001$), 모험개척활동(참여 3.68, 비참여 3.56)($t=8.516$, $p<.001$), 문화예술활동(참여 3.66, 비참여 3.49)($t=8.624$, $p<.001$), 봉사활동(참여 3.70, 비참여 3.53)($t=11.527$, $p<.00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참여 3.68, 비참여 3.51)($t=10.596$, $p<.001$), 환경보존활동(참여 3.69, 비참여 3.57)($t=8.449$, $p<.001$), 자기(인성)계발활동(참여 3.74, 비참여 3.54)($t=14.659$, $p<.001$), 참여활동(참여 3.77, 비참여 3.57)($t=13.743$, $p<.001$)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III-33〉). 그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M=3.16$)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M=2.77$)에 비해 본인의 학업성적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t=5.996$, $p<.001$), 10가지 모든 영역별 활동에서도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적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보건활동(참여 3.17, 비참여 2.88)($t=6.998$, $p<.001$), 과학정보활동(참여 3.27, 비참여 2.94)($t=14.872$, $p<.001$), 교류활동(참여 3.33, 비참여 3.04)($t=12.923$, $p<.001$), 모험개척활동(참여 3.24, 비참여 3.00)($t=10.775$, $p<.001$), 문화예술활동(참여 3.20, 비참여 2.89)($t=10.666$, $p<.001$), 봉사활동(참여 3.23, 비참여 3.01)($t=9.986$, $p<.00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참여 3.21, 비참여 3.00)($t=8.578$, $p<.001$), 환경보존활동(참여 3.29, 비참여 3.00)($t=13.415$, $p<.001$), 자기(인성)계발활동(참여 3.28, 비참여 3.04)($t=11.166$, $p<.001$), 참여활동(참여

표 III-32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 차이

(단위 : 명, 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활동(전체)	참여한 적 있음	8,775	3.64	0.67	5.108***
	참여한 적 없음	261	3.37	0.84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있음	8,363	3.65	0.66	6.086***
	참여한 적 없음	672	3.45	0.80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있음	5,615	3.67	0.66	7.348***
	참여한 적 없음	3,421	3.57	0.69	
교류활동	참여한 적 있음	3,202	3.69	0.67	6.084***
	참여한 적 없음	5,834	3.60	0.67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있음	5,365	3.68	0.66	8.516***
	참여한 적 없음	3,671	3.56	0.69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있음	7,487	3.66	0.66	8.624***
	참여한 적 없음	1,549	3.49	0.74	
봉사활동	참여한 적 있음	5,494	3.70	0.64	11.527***
	참여한 적 없음	3,542	3.53	0.72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있음	6,368	3.68	0.63	10.596***
	참여한 적 없음	2,668	3.51	0.74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있음	4,438	3.69	0.64	8.449***
	참여한 적 없음	4,598	3.57	0.70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한 적 있음	4,094	3.74	0.63	14.659***
	참여한 적 없음	4,942	3.54	0.70	
참여활동	참여한 적 있음	2,897	3.77	0.64	13.743***
	참여한 적 없음	6,139	3.57	0.68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3 청소년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성적 차이

(단위 : 명, 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활동(전체)	참여한 적 있음	8,774	3.16	1.02	5.996***
	참여한 적 없음	261	2.77	1.10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있음	8,362	3.17	1.02	6.998***
	참여한 적 없음	672	2.88	1.07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있음	5,614	3.27	0.99	14.872***
	참여한 적 없음	3,420	2.94	1.06	
교류활동	참여한 적 있음	3,203	3.33	0.98	12.923***
	참여한 적 없음	5,831	3.04	1.04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있음	5,366	3.24	1.00	10.775***
	참여한 적 없음	3,669	3.00	1.05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있음	7,488	3.20	1.01	10.666***
	참여한 적 없음	1,546	2.89	1.05	
봉사활동	참여한 적 있음	5,495	3.23	1.00	9.986***
	참여한 적 없음	3,540	3.01	1.05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있음	6,369	3.21	1.01	8.578***
	참여한 적 없음	2,665	3.00	1.05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있음	4,439	3.29	0.97	13.415***
	참여한 적 없음	4,596	3.00	1.06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한 적 있음	4,095	3.28	0.99	11.166***
	참여한 적 없음	4,940	3.04	1.04	
참여활동	참여한 적 있음	2,897	3.40	0.98	16.453***
	참여한 적 없음	6,137	3.03	1.03	

* 주: * $p < .05$, ** $p < .01$, *** $p < .001$

3.40, 비참여 3.03)($t=16.45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최근 1년 동안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활동 등의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및 학업성적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경우는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활동에서만 참여여부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활동의 참여 여부, 횟수 등이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 뿐 아니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 실태가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참여실태 변인을 단계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인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 <표 III-34>와 같다.

분석에 앞서,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650~.995, 분산팽창요인(VIF)은 1.005~1.538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III-35>). 가장 먼저, 일반적 특성만 포함된 모델1에서는 성별($B=-.104$, $p<.001$), 학교급(중학교)($B=-.043$, $p<.05$), 지역규모

표 III-34 독립변인의 구성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성별	·남자, 여자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업성적	·학업 성적(2018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낮은 수준~매우 높은 수준)로 측정한 문항
	경제수준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매우 낮은 수준~매우 높은 수준)로 측정한 문항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만족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4개 만족도 문항(활동내용, 지도자, 시설·공간·장비, 일정·시간)의 평균 ·Cronbach's Alpha는 .919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5점 척도(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로 측정한 문항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에 대해 5점 척도(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아주 기대가 컸다)로 측정한 문항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었는지에 대해 5점 척도(전혀 지원이 없다~매우 지원이 많다)로 측정한 4개 문항(부모님·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평균 ·Cronbach's Alpha는 .714

(중소도시)($B=-.036$, $p<.05$), 지역규모(읍면지역)($B=-.054$, $p<.05$), 학업성적($B=.164$, $p<.001$), 경제수준($B=.123$, $p<.001$)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 특성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3.1%로 분석되었다. 참여실태 변인이 포함된 모델2의 설명력은 18.0%이고, 결정계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참여실태 변인 모두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시

표 III-35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B	β	B	β
성별(여자=1)	-.104	-.072***	-.127	-.088***
학교급(중학교=1)	-.043	-.027*	-.026	-.017
학교급(고등학교=1)	-.001	-.001	.043	.029*
지역규모(중소도시=1)	-.036	-.025*	-.019	-.013
지역규모(읍면지역=1)	-.054	-.023*	-.057	-.024*
학업성적	.164	.230***	.137	.193***
경제수준	.123	.200***	.107	.174***
청소년활동 만족도			.099	.12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58	.078***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43	.061***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040	.047***
상수	2.621***		1.970***	
R ² (R ² 변화량)	.131		.180(.049***)	
F	186.876***		172.721***	

* 주: 1) 성별 준거집단: 남자, 학교급 준거집단: 초등학교, 지역규모 준거집단: 대도시

2) * $p<.05$, ** $p<.01$, *** $p<.001$

말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B=.099$, $p<.001$), 그리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B=.058$, $p<.001$),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며($B=.043$, $p<.001$), 또한 참여한 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지원해줄수록($B=.040$, $p<.001$)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III-36)). 먼저,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모델1에서는 성별($B=.038$, $p<.05$), 학교급(중학교)($B=-.116$, $p<.001$), 지역규모(중소도시)($B=-.066$, $p<.001$), 학업성적($B=.069$, $p<.001$), 경제수준($B=.030$,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로 낮게 나타

표 III-36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B	β	B	β
성별(여자=1)	.038	.025*	.028	.018
학교급(중학교=1)	-.116	-.070***	-.110	-.067***
학교급(고등학교=1)	.014	.009	.034	.021
지역규모(중소도시=1)	-.066	-.043***	-.059	-.039**
지역규모(읍면지역=1)	-.053	-.022	-.054	-.022
학업성적	.069	.091***	.054	.072***
경제수준	.030	.046***	.024	.037**
청소년활동 만족도			.052	.062***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51	.065***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17	.023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021	-.023
상수	3.325***		3.052***	
R ² (R ² 변화량)	.021		.032(.011***)	
F	25.916***		25.814***	

* 주: 1) 성별 준거집단: 남자, 학교급 준거집단: 초등학교, 지역규모 준거집단: 대도시

2) * $p < .05$, ** $p < .01$, *** $p < .001$

났다. 참여실태 변인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만족도($B=.052$, $p<.001$)와 참여정도($B=.051$, $p<.001$)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정계수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p<.001$), 모델2의 설명력도 3.2%로 낮게 분석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III-37〉). 그 결과, 일반적 특성이 포함된 모델1의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B=-.118$, $p<.001$)이 남자 청소년보다, 중학생($B=-.079$, $p<.001$)과 고등학생($B=-.128$, $p<.001$)이 초등학교생보다, 중소도시($B=-.061$, $p<.001$)와 읍면

지역($B=-.066, p<.05$)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의 청소년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낮았다. 학업성적($B=.131, p<.001$)과 가정의 경제수준($B=.138, p<.001$)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4%로 나타났다.

모델2의 설명력은 20.9%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된 참여실태 변인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활동 만족도($B=.170, p<.001$), 참여정도($B=.044, p<.001$), 성취기대수준($B=.052, p<.001$) 및 지원정도($B=.066, p<.001$)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III-37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B	β	B	β
성별(여자=1)	-.118	-.077***	-.149	-.097***
학교급(중학교=1)	-.079	-.048***	-.052	-.031**
학교급(고등학교=1)	-.128	-.080***	-.064	-.040**
지역규모(중소도시=1)	-.061	-.039***	-.033	-.021*
지역규모(읍면지역=1)	-.066	-.026*	-.067	-.027**
학업성적	.131	.174***	.096	.127***
경제수준	.138	.211***	.116	.178***
청소년활동 만족도			.170	.202***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44	.055***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52	.068***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066	.071***
상수	2.989***		2.084***	
R ² (R ² 변화량)	.124		.209(.085***)	
F	174.595***		207.448***	

* 주: 1) 성별 준거집단: 남자, 학교급 준거집단: 초등학교, 지역규모 준거집단: 대도시
 2) * $p<.05$, ** $p<.01$, *** $p<.001$

넷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38>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이 포함된 모델1에서는 성별(여자)($B=.173, p<.001$), 학교급(중학교)($B=-.045, p<.05$), 학교급(고등학교)($B=.050, p<.05$), 지역규모(중소도시)($B=-.104, p<.001$), 지역규모(읍면지역)($B=-.070, p<.05$), 학업성적($B=.087, p<.001$), 경제수준($B=.111, p<.001$)의 모든 변인이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8%로 확인되었다.

모델2의 설명력은 19.0%로 확인되었으며, 결정계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p<.001$). 그리고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든 참여실태

표 III-38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B	β	B	β
성별(여자=1)	.173	.104***	.132	.080***
학교급(중학교=1)	-.045	-.025*	-.008	-.004
학교급(고등학교=1)	.050	.029*	.136	.080***
지역규모(중소도시=1)	-.104	-.062***	-.071	-.043***
지역규모(읍면지역=1)	-.070	-.026*	-.076	-.028**
학업성적	.087	.107***	.038	.047***
경제수준	.111	.158***	.082	.116***
청소년활동 만족도			.190	.209***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85	.100***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95	.117***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082	.083***
상수	2.751***		1.527***	
R ² (R ² 변화량)	.058		.190(.131***)	
F	76.519***		183.809***	

* 주: 1) 성별 준거집단: 남자, 학교급 준거집단: 초등학교, 지역규모 준거집단: 대도시
 2) * $p<.05$, ** $p<.01$, *** $p<.001$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B=.190, p<.001$),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B=.085, p<.001$),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B=.095, p<.001$),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원정도가 클수록($B=.082, p<.00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지원정도가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III-39〉). 모델1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학교급(중학교)($B=.160, p<.001$), 학교급(고등학교)($B=.281, p<.001$), 지역규모(중소도시)($B=-.063, p<.001$), 지역규모(읍면지역)($B=-.074, p<.01$), 학업성적

표 III-39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B	β	B	β
성별(여자=1)	.020	.015	-.012	-.009
학교급(중학교=1)	.160	.112***	.180	.126***
학교급(고등학교=1)	.281	.205***	.340	.248***
지역규모(중소도시=1)	-.063	-.047***	-.039	-.029**
지역규모(읍면지역=1)	-.074	-.035**	-.078	-.036***
학업성적	.176	.270***	.139	.213***
경제수준	.120	.212***	.099	.175***
청소년활동 만족도			.142	.19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91	.133***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45	.069***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054	.068***
상수	2.414***		1.519***	
R ² (R ² 변화량)	.149		.259(.110***)	
F	216.136***		275.196***	

* 주: 1) 성별 준거집단: 남자, 학교급 준거집단: 초등학교, 지역규모 준거집단: 대도시
 2) * $p<.05$, ** $p<.01$, *** $p<.001$

($B=.176$, $p<.001$), 경제수준($B=.120$, $p<.001$)의 일반적 특성들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9%로 확인되었다. 모델2에서는 설명력이 25.9%로 나타났고, 결정계수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p<.001$). 참여실태 변인들 중에서는 청소년활동 만족도($B=.142$, $p<.001$), 참여정도($B=.091$, $p<.001$), 성취기대수준($B=.045$, $p<.001$) 및 지원정도($B=.054$, $p<.001$)의 모든 변인이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해보면,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는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에는 모든 참여실태 변인들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또한 참여한 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지원해줄수록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성숙도의 경우 만족도와 참여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4. 요약 및 시사점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9,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97% 내외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의 의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수의 청소년이라도 청소년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은 지난 5년간 22.8%~93.7%까지 나타나며 영역 간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영역별 참여율에 대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도 함께 도모해야 하겠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은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7개 시도별 참여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적·정책적 지원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 만족도

최근 4년간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 그리고 활동내용, 지도자, 시설·공간·장비 및 일정·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32~3.40 사이의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그 편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도자 만족도는 해마다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일정·시간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는 청소년활동의 평가 및 보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재참여 의사, 활동의 효과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일정과 시간에 대한 고려와 청소년 활동에 보다 적합한 장소 및 장비 등에 관한 지원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

3)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약 60~70% 정도가 학교에서(학교에서 단체로 참여+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를 통한 청소년활동 형태가 주를 이루는 만큼 청소년지도사의 학교 배치 등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겠다. 한편, 어떤 경로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도 주요한 경로로 확인되었다.

4)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최근 4년간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응답자의 1/3 정도가 이같이 대답하였다. 두 번째 장애요인은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의견과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도까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응답이 조금씩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도에는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응답이 약간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가비용의 부담이나 부모님의 반대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은 미약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부에 대한 방해나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응답률의 감소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제약요건이 되지 않도록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동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5)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장소, 대상

최근 3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 장소, 대상을 분석한 결과, 가장 원하는 시간대는 학교 수업시간 중이며, 장소는 야외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가장 선호하지만 교내보다는 야외에서의 활동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실내외 장소와 환경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이 계획되어야 하겠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는 ‘친구’라는 응답이 최근 3년 동안 85% 내외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에서 친구와의 동반 참여를 비롯한 친구와의 상호교류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중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결과와도 함께 재고될 필요가 있다.

6)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 청소년활동 시간의 확보와 흥미로운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선택 시 청소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비교적 강조되었으며, 청소년활동 정보에 관한 용이성은 2015년에 비해 덜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18년도 활성화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높게 확인된 반면, 프로그램 선택 시 청소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은 중·상 집단보다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의 학교급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7)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최근 4년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5년도에는 ‘문화예술활동’과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활동’이 매우 유사한 비율로 1, 2순위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선호도는 2016년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예술활동’은 2순위로 밀려났다. 그 뒤를 이어 ‘모험개척활동’이 계속적으로 3순위에, ‘과학정보활동’이 4순위에, 그리고 ‘건강·보건활동’이 5순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진로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지속적인 취업난과 같은 사회불안과 진로교육 및 고용노동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영역의 청소년활동이 그러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진로활동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17개 시도별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별 차이는 희망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정책의 개발·보급 등에 있어 지역별로 다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주요 변수들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에 따른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별로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활동에 청소년단체활동이나 가족과 함께 등으로 참여한 경우, 그리고 홍보·게시판이나 인터넷 상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부모님(가족) 혹은 청소년지도자의 권유 등으로 참여한 경우 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및 성취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과 학업성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활동 등의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및 학업성적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또한 참여한 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지원해줄수록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 뿐 아니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의 참여에 있어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청소년의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1. 질적 연구 개요
- 2. 청소년활동 참여자들의
면접결과
- 3. 청소년기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질적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자들의 ‘활동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완 혹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뿐 아니라, 양적인 자료 뒤에 숨어있는 청소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다. 그동안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활동 실태 혹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연구에 주로 집중해 온 경향이 있었기에, 이러한 질적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적 면접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생각, 어떤 계기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에 진입하고 활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이 고려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면접을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비교적 민감하지 않고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초점집단면접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활동 경험의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집단면접을 부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³⁰⁾

집단면접의 대상은 청소년 17명(4개 그룹)과 지도자 4명(1개 그룹)으로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나 양적 연구에서 파악하기 힘들었던

30) 청소년 대상 면접의 조사도구, 분석틀, 분석방법 등 논의(2018. 7. 19. 전문가 자문회의)

개인적인 참여 맥락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취지와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회당 약 1~2시간 연구참여자가 활동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진행되었고, 반구조화된 질문목록을 활용하였으나 질문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격려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듣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면접과정은 녹음되었으며, 면담 후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는 녹음한 원자료를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강조하는 표현, 의미를 중심으로 일차 개방코딩을 하였다. 이후 의미단위의 유사성에 따라 합산하면서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다시 범주로 통합하였다.

1) 청소년 면접 대상자

질적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청소년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선정하였다. 청소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활동 참여율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자발성이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통해 본인과 주변의 적극적 참여자 및 활동 중단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의도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본인과 동료들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청소년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활성화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청소년 집단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을 하다가 그만 두었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주변 청소년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표 IV-1 청소년 FGI 집단 구성

	중학생	고등학생
대도시지역(서울)	1집단(남녀 4명)	1집단(남녀 5명)
도농복합지역(경남)	1집단(남녀 4명)	1집단(남녀 4명)

표 IV-2 청소년 FGI 참여자

참여자	성별	지역	학교급	학년	참여기간	대표적인 활동
1	남	서울	중학교	1	2018~현재	청소년봉사단
2	남		중학교	1	2018~현재	동아리(합합)
3	여		중학교	3	2017~현재	동아리(댄스)
4	여		중학교	3	2016~현재	동아리(생태보호)
5	여	경남	중학교	1	2017~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
6	남		중학교	3	2018~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7	남		중학교	3	2016~현재	지역사회변화프로젝트
8	여		중학교	2	2018~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9	여	서울	일반고	2	2017~현재	베이커리봉사단
10	여		일반고	2	2017~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
11	남		특성화고	1	2016~현재	베이커리봉사단
12	여		일반고	2	2017~현재	마을기획봉사단
13	남		일반고	2	2017~현재	동아리(과학창의멘토링)
14	여	경남	일반고	2	2014~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
15	여		일반고	3	2013~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16	여		일반고	1	2015~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17	남		특성화고	1	2017~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 국제교류

질적 면접에서는 총 4개 집단의 청소년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면접을 위한 청소년 집단을 구성할 때, 청소년기관에서의 활동경험이 청소년의 연령이나 기관이 처한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대도시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1개소, 경남의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시설 1개소를 선정하였고, 각 기관의 추천을 통하여 기관 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각 집단에 남녀 학생이 비슷한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집단별로 4~5명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여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집단별로 면접은 각 1회씩 이루어졌다.

2) 지도자 면접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자 면접 외에, 청소년기관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도 함께 수행하였다. 기관장 중심의 초점집단면접은 청소년들의 초점집단면접 이후에 부가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청소년 초점집단면접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들의 활동경험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나아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참여성과를 파악하고 지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활동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얻고자 하였다.

표 IV-3 지도자 FGI 참여자

참여자	지역	청소년분야 활동경력	비고
A	경기	13년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B	서울	19년	
C	경남	25년	청소년면접 참여기관
D	서울	20년	청소년면접 참여기관

집단면접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2개소와, 경기권에 위치한 청소년시설 1개소, 경남에 위치한 청소년시설 1개소의 센터장급 4인이었으며, 이 중 2인은 청소년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한 기관의 지도자이다.

2. 청소년활동 참여자들의 면접결과

청소년 초점집단면접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청소년활동의 범주 혹은 특성,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청소년활동을 통한 변화 혹은 유익,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주위의 인식, 어려움,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질문의 흐름에 맞추어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청소년들이 인식한 ‘청소년활동’의 범주 혹은 특성

가장 먼저 “청소년활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어떤 활동이 청소년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범위를 확인해 보았다.

청소년활동의 개념 혹은 범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는 매우 다양하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활동이 청소년활동에 속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청소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대상자 중심의 개념도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본 결과, 청소년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활동’, ‘청소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활동’, ‘자신들의 관심사에 맞고’, ‘자신의

성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 ‘사회참여의 특성을 가진 활동’을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스로/자발성’, ‘흥미/관심’, ‘자율/주도’, ‘성장/발전’, ‘사회변화’ 등의 키워드 등이 반복되어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야기에는 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여서 중학생들에게서는 ‘흥미/관심/재미’, ‘자발성/자유/자율’의 키워드가, 고등학생들에게서는 ‘성장/발전’,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1) 청소년이 하는 활동

평소에 청소년활동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청소년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적이 없는 청소년들일수록, 직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이란 표현 그대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활동 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청소년이 하는 거, 모든 활동 아닌가’(참여자 2)

‘청소년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청소년활동’(참여자 6)

‘만 19세 이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이 직접 사회생활을 해 볼 수 있는 경험들, 그런 활동들 전체를 청소년활동으로’(참여자 13)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청소년활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참여자 14)

대표적인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동아리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그 외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 축제 및 청소년이 신청, 참여 가능한 대회 등도 청소년활동에 포함하였다.

‘청소년 참여 축제 같은 거. 대회 같은 것도 청소년들끼리 동아리끼리 해서 하는 대회도 있고, 학생들이 각각 나와서 재량을 뽐내면서 서로 대결해서 상 받는…’(참여자 17)

이렇게 참여자(혹은 프로그램 대상자)의 연령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을 규정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학교든, 학교 밖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개 다 포함되지만…’(참여자 15)

그렇지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 즉 성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일단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청소년이 가르쳐 주고 청소년이 배우고 모든 상호 작용이 청소년에 의해서여야 하는데…’(참여자 15)

(2)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활동

참여자들은 청소년활동이라면 프로그램(활동) 참여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택권. 무슨 행사가 열리면 내가 나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참여자 2)

‘짜여진 프로그램이라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고, 자신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5)

‘왜냐하면 청소년활동 자체가 자발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자기가 정말 좋아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가 하려는 곳에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그거를 통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게 청소년활동이 아닐까…’(참여자 12)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체능 관련 배움까지도 청소년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원에 가서 내가 배우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게 되면 청소년활동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인데, 자기가 억지로 하는, 공부랑 관계없는 사람인데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청소년활동이라기보다…’(참여자 13)

‘저는 부모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고 싶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는 거는 청소 활동 같은데, 강제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참여자 17)

나아가 활동의 시작이 학교나 부모님이 시키는 ‘반강제적’이었더라도 거기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청소년활동에 포함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강제적’인 활동은 청소년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 자치위원회 경험) 반강제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는 하고 싶기는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랑 의견을 조율을 해 보고 맞춰 가는 거 좋아해서 저는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 왜냐하면 너무 싫었으면 안 한다고 말을 했는데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하겠다는 게 그래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8)

‘반강제는 괜찮은데 강제적은 아니에요. … 저는 동아리를 탁구를 하고 싶은데, 탁구는 다 여자 주위로 하고 족구랑 축구 같은 거를 다 남자 주위로 하니까 강제로 생각해가지고.’(참여자 6)

(3) 자신들이 주도하고, 자유로운 통제받지 않는 활동

앞의 내용이 활동 참여의 자발적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활동 과정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도하고 계획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활동내용을 스스로 정해 나가는 경험과 같이 ‘통제받지 않는’ 활동이어야 청소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청소년활동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4)

‘저희 같이 문화의집에서, 수련시설에서 활동하는 거랑, 학교에서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12)

‘청소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예산부터 기획 전부 청소년이 하는 거고요. 담당 선생님은 계세요. 왜냐하면 결재나 사인은 선생님이 해 주셔야 하니까. 조금 조금씩은 도움을 받지만 가장 큰 목표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타이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참여자 15)

‘이 활동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든다 이런 게 취지이거든요. … 이 활동은 저희가 직접 토의하고 저희가 직접 이런 정책은 어떡할까 이런 거를 따지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 가지 따져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참여자 14)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활동 기반이 학교든 청소년기관이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학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제한되고 통제되는’ 활동이었고 그래서 청소년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활동이기도 하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고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고 ... 학교 동아리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 게 있어도 없으면 못 들어가고, 만들려고 해도 만드는 절차가 복잡하고, 정해진 게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인원이 차면 들어가지 못하고, 자유도가 떨어지는 게’(참여자 1)

‘학교가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통제한다고 생각하고’(참여자 4)

‘교과 동아리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런 선생님들이 관여를 직접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학교 동아리에서 일부는 청소년활동에 해당되지만 일부는 아니지 않나...’(참여자 14)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제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이 정해져 있고 계획서가 있잖아요.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거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거예요...’(참여자 15)

(4)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활동내용이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이라면 학교 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까지도 청소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원일지라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이라면 청소년활동이라고 보고 있었다.

‘저는 자기 재능이, 관심 분야나 재능이 활동을 하는 거, 요리하는 것도 학원 외에는 없는데, 활동 하는 곳에서는 베이커리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기자단이나 그런 데서 자기 관심 분야랑 발전하고 싶은데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참여자 11)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하잖아요. 다른 애들 봉사할 때 가기 싫다 할 때 저는 웃으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도 있고 학교에서는 동아리는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나 그런데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봉사까지 그렇게 맞춰서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웃으면서 잘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참여자 9)

‘솔직히 학원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과목을 좋아하거나 그 과목이 되게 올려야겠다고 다짐을 해야지 가는 건데, 대부분 학원은 엄마들이 보내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미술이나 운동이나 그런 거는 자기 의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참여자 4)

그럼에도 ‘돈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활동은 청소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런 사교육적인 거는 청소년활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청소년활동에 포함하기에는, 청소년활동은 돈을 받고 지불하는 대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교육적인 거는 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참여자 15)

어떤 내용의 활동이든, 어디에서 수행되든, 어떤 방식의 활동이든,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이라는 점이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측면인 것 같다. 자신이

‘처음으로 참여한 청소년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활동을 주로 이야기하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5학년인가 그때 제 꿈이 다이빙 선수였거든요. 엄마한테 나는 커서 다이빙 선수가 되고 싶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 달라고 해서 그 학원에 보내줬어요. 한번 체험해 보라고 가서 해서 세, 네 달 동안 한 게, 저는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2)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여기 수영을 다니셨는데, 그때 저도 한번 따라 가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졸라가지고… 한번 해 봤더니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때 그래 가지고, 어머니한테 한 번 더 해 가지고 여기 강습을 들으면 안 되냐 물어봤는데, 콜 해 가지고.’(참여자 6)

기본적으로는 활동기반과 상관없지만, 청소년들의 경험 속에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나 진로활동과 관련된 활동일지라도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청소년활동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정해진 동아리가 한정적이고 마음에 드는 게 한정적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돼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찾기가 어렵기는 해요.’(참여자 3)

‘저는 그 과목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재미가 없었어요. 제 진로에 관련된 것도 없고, 그냥 진짜 뭐 만들기 수학 퀴즈 그런 거 밖에 없어 가지고…’
(참여자 4)

‘학교 동아리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 게 있어도 없으면 못 들어가고, 만들려고 해도 만드는 절차가 복잡하고, 정해진 게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인원이 차면 들어가지 못하고 자유도가 떨어지는 게, 학원을 자신이 원해서 자유도가 높아 가지고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1)

(5) 자신이 성장, 발전하게 되는 활동

청소년들은 자신을 성장, 발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이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봉사나 학습이나 자신에게 도움 되는 거’(참여자 1)

‘자기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진로를 잡아주는 그런 활동’(참여자 3)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진짜 그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청소년활동에…’(참여자 13)

‘저는 인식 확장이 되면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실제로도 여기 시설에서 했던 활동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거에 신경 쓰게 되어서, 그 활동으로 인해 자기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거를 보게 되고 어떤 거를 알아가게 되는 거에 따라, 그걸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2)

‘제가 몰랐던 저를 찾을 수 있는 기회. 학교에서는 조직이고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양보하고 숨어 있다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여기에서는 제가 하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참여할 수 있으니,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학교랑 다른 거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랑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여기서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5)

성장과 관련하여, 학교활동에 비해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갖는 장점으로 다양성이 언급된 것도 이와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되었다. 이 다양성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으로도, 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언급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표현되었다.

‘저는 다양성이 다른 거 같은데... 학교 내에서 하는 거는 같이 하는 사람들도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인 반면에, 여기 나오면 그냥 활동을 하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활동을 하거나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른 거 같아요.’(참여자 10)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좁은 공간에서 살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넓은 세상에 나와 있고 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참여자 13)

‘학교에서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넓은 거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여기서 다양하게... 청운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많은 거를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같아요.’(참여자 16)

(6) 사회 참여 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오래 지속하여 지도력을 가진 위치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발달단계상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등 사회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성을 가지는 연령대이기도 해서, 청소년활동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저는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좁은 개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10)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활동은 중학교 때 환경지킴이 동아리를 했었어요. 다른 동아리 못지않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캠페인도 나가고 학교 화단에 꽃도 심어보고 하면서, 청소년도 학교 혹은 사회를 위해서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청소년도 어느 정도 크면 어른들의 통제나 도움만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할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된 거 같아요.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책임감도 생기고 자발성도 따라오는 거 같고.’(참여자 9)

‘청소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청년이 될 거고 사회를 이루는 사람이 될 건데,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살아갈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정책도 생각하고...’
(참여자 14)

2) 청소년활동의 참여 계기 혹은 동기

본인이 참여했던 청소년활동 중에서 가장 오래한 활동 혹은 가장 열심히 참여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관심이 있는 거’ 혹은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친구랑 같이’ 가는 활동, ‘재미있어 보인다거나’, ‘나한테 새로운 거를 하게’ 해주었던 혹은 해주는 활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1) 동아리 활동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활동은 역시 다양한 동아리활동이었고, 댄스, 노래, 랩 등을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동아리활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청소년기관이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없는 연습실 및 연습 시간, 그리고 무료 강습 혹은 이런저런 활동경비 지원 등의 혜택이 매력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저희가 원래 1학년 때 학교 수련회 때 장기자랑을 해 볼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디 연습실 사용할 데 없나 해서 찾다가 문화의집을 찾아서 여기 연습실 사용하려면 동아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동아리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 제일 기본적인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에어컨이 잘 나오는 연습실. 많은 (행사참여)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의상비도 문제여서 그것도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활동도 있고 하니까.’(참여자 3)

‘저는 원래 댄스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방과 후에 방송 댄스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신감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다가, 1월 달에 원래 여기를 많이 오기는 했는데, 1월 달에

여기를 본격적으로 봤는데 동아리 선생님이랑 친해졌어요. 동아리 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댄스 가르쳐 주는데 해 볼래 이래서 세 명이랑 그 언니
한 명으로 네 명이서 들어갔어요.’(참여자 5)

‘저희가 설립한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셨던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면접을 봐서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냥
신청을 했는데 어찌 어찌 되어서 면접에 붙어서 계속 쪽 활동을 했어요.
뭔가 꾸준히 하면 남을 거 같아서.’(참여자 4)

물론 이러한 동아리 구성 신청과 활동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하면 재미있는 것도 웬지 학교에서 하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면도 있고, 학교는
지원이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청소년기관
에서의 활동이 더 편리하고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서 내야 된다고 하고 만드는 절차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문화의집이 좀 더 편리하고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데고, 시간도 우리끼리 조정을 하고, 장소도 여기 밖에 없어서…
여기 와서 ‘선생님, 만들고 싶어요.’ 하면 너희가 몇 명이니? 하는 절차
밖에 없어서 너무 편리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선생님께.’
(참여자 2)

‘이런 (청소년)시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는 시간도
없고 금전적인 것도 없다 보니까 퀄리티가 낮은 동아리들이 많은데, 저희
동아리는 돈도 지원금도 많고.’(참여자 13)

(2) 봉사활동 참여

특히 중학생이 되면서 봉사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다양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어머니가 이제부터 봉사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어머니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저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한 시간 주니까 재미있게 한 시간을 채우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찾아 가지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봉사활동 계속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7)

‘(기관을 통과해) 나가다 보니까, 딱 오른쪽 보니까 광고지 붙어 있는데, 요즘 뭐 있지 하고 보니까 중학교 되니까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OO(동아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겠다 하고.’(참여자 6)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봉사활동 꾸준히 하는 걸 찾다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참여자 10)

(3) 주위의 권유

청소년활동은 부모, 교사 등 주변 어른들의 정보제공 혹은 권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청소년기관 지도사들이나 이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선배들의 추천 혹은 홍보활동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님이, 엄마가 처음에 추천해 줬어요. 빵도 만드니까 이런 거 해 보면 어떠냐, 당연히 좋아서 알았다 했죠.’(참여자 11)

‘그때 한참 꿈이 판점사라서, 그런 거 알아보다가... (어린이 국회) 종이가 붙어 있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옆에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떠냐 해서...

법관복이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쁜 놈도 잡고... 그런 거 해 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게 됐죠.’(참여자 17)

‘알게 된 경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면서 (기관)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머니 지인이 일을 하시고 계셔서 어머니께 들어서... 제가 두 번을 들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머니도 얘기하셨고 청참위에서도 얘기하셨고, 같은 내용을 들으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참여자 17)

‘중3 때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자치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고, 동아리 언니 오빠들이 한다고, 같이 하자 해서 들어간 게 지금까지...’(참여자 15)

(4)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

청소년들은 누군가의 권유, 추천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없는, 해보고 싶었던(혹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 기대감이 생기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저는 솔직히 봉사하는 거 좋아해서 (봉사)시간 (주는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본래. 그냥 성격이 적극적이라서. 아닌가? 뭔가 참여하는 거 좋아해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찰나에 그걸 찾아서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4)

‘솔직히 전 대회는, 학교 교내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는 생기부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기피하는 대회인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선생님께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참여자 14)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이 많기는 한데, 이거는 직접 저희가 정책제안서를 쓰고 이런 구청이나 의원님한테 전달을 해서 저희 의견을 직접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참여할 수 있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신청)했어요.’(참여자 10)

‘직접 운영 중인 선배들이 우리 동아리는 이런 이런 동아리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여기는 들어가면 재미있겠구나 싶어서’
(참여자 13)

3) 청소년활동의 지속요인: 변화 혹은 성과(outcome)

어떤 활동을 시작하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든, 특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청소년들이 꾸준히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청소년의 자발성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면접이 특히 적극적으로 혹은 오래 청소년활동에 참여해 온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이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 즉 왜 그렇게 열심히, 오래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이 이번 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도 생각 되는데, 면접 참여자들은 면접 과정 내내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 혹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애정을 보였고 특히 이러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인들이 열심히 한 활동의 결과에도 만족감 혹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학년이거나 리더의 위치에 있을수록 동아리 조직이나 활동 대상 등에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 때론 힘들지만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1) 성장, 발전하는 기쁨

어색하고 서투른 처음도, 낯선 관계도, 힘든 과정도 이기고 버티게 해주는 것은 뭔가를 더 배우고, 더 발전하게 될 자신에 대한 기대감,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많이 얻어 가는 게 있다 싶고, 애들이랑 이런 걸로 인해서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잘 하게 된다면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동아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을 배워 보고 싶어서...’
(참여자 5)

‘저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 공연도 어느 정도 오르고 이제 긴장도 안 하게 되고 저희한테는 스스로의 발전이고’(참여자 3)

‘어느 면이라고 딱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모든 면에서 발전하는 거 같고’(참여자 1)

‘봉사시간 얻으려고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는... 봉사라는 거를 따로 해 봤을 때 쓰레기 줍는다든지 마라톤 대회나 그런데 가서 하는 봉사와 다르게,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함으로써 바뀌는 활동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더 흥미가 가서 자발성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 인식이 바뀌어져 있고’(참여자 12)

‘아이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게 하지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성장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참여자 13)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나갈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 같아요. 제가 운영 위원장을 3년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몇 개월 있으면 사회에 나갈 성인이 되잖아요. 청소년에 포함되지만, 저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쪽쪽 나올 청소년위원회 아이들이 많이 바뀌는 거 같아요.’
(참여자 15)

(2) 자신감 증진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소규모 집단의 자율적인 구조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관심이나 흥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특성상 활동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 동아리활동 발표나 회의 진행 등을 통해 사람들 앞에 서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말하기의 자신감. 제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그럴 때 내 의견을 존중하는 느낌이 드니까, 자신의 모든 거에 만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참여자 8)

‘아이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들어 와서 자신감을 가진 게... 사회생활은 자신감이 필요해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참여자 6)

‘이런데 와서 자기 의견 계속 말하다 보면, 자신을 더 솔직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되고 자신감이 더 붙게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17)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보고 뭘 할 때 겁이 많아서 쉽게 잘 못하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두드려 보고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조금 겁을 덜 먹는 거죠. 내가 청소년활동이라는 지평으로 앞으로 헤쳐 나갈 돌을 두드려 보고 돌에 대한 겁을 덜 먹고 앞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참여자 15)

(3) 대인관계능력의 향상

동아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도사, 친구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해야 하고, 또는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계속 접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다양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발전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뭐든지 혼자 하면 쓸쓸하잖아요. 그거를 발견하고 함께 하니깐 실력도 늘어나고 이거를 함께 하니깐 재미있구나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참여자 1)

‘동아리는 공동체잖아요. 어떤 활동하는 거에 혼자만 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같이 하니깐 체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참여자 4)

‘라디오를 저희끼리 만들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들 이랑 친해지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라디오 같은 거를 하니깐 그런 것도 배우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지내는 시간이 즐겁다는 거를 배운 것 같아요.’(참여자 7)

‘원래 좀 되게 까칠하고 성격이 안 좋았어요. 막 나가는 성격이었는데 자발성도 생기고 남한테 베푸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성격도 바뀌고 인성이 바뀌었어요.’(참여자 11)

‘노인분들 대하는 게, 이번 활동하면서 (노인에 대한) 편견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완화된 거 같아요.’(참여자 9)

(4) 진로에 도움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청소년활동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진로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빨리 혹은 강하게 가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활동경험 속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를 새로이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체험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니까 그쪽으로 더 잘 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뚜렷해져서 진로를 빨리 결정해서 성장할 것 같아요.’(참여자 7)

‘저는 그나마 되고 싶은 게 PD 아니면 기자 될 거 같은데요. 체험, PD는 연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곳을 체험하게 되면 그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환경적으로 좀 더 알면, 환경이 앞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쪽으로 집중이 될 거 같은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참여자 4)

‘저는 있었던 거 같은데 제 꿈이 방송 작가인데 다양한 체험이 일단 중요하고, 심지어 이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너무 신경 잘 써 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한 번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적 있었어요.’(참여자 12)

(5) 즐거움과 보람

활동과정의 즐거움과 활동의 보람 역시 청소년활동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활동내용보다 활동과정이 즐겁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봉사는 딱딱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봉사단 누나 형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재미있기도 하고, 가끔씩 피자 같은 거 시켜서 먹고 그런 것도 좋아 가지고… 그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1)

‘기대했던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서 재미있게 활동하고 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활동하는 것도 재미있고 재미있게 활동하는데, 그게 좋은 거 같아요.’(참여자 7)

‘그런 것들도 나의 지식을 어린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뭔가 좋았고, (중략) 제가 말한 대로 환경이 되어 가지고 그런 점도 좋았고 뭔가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뿌듯해요.’(참여자 1)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느낀 건데 정말 솔직히 아직 얘기들이기는 하지만 가르치면서 엄청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아이들이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뭔가 들어주면 우리도 드디어 뭔가,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참여자 13)

(6) 인정과 책임감

청소년지도사 혹은 선배들로부터 자신의 존재, 활동을 인정받거나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또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는 등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확인받게 될 때 청소년들은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활동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신청할 때, 담당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생명의 은인이 왔다고, 나이도 제일 많아서 잘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호감을 얻고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 주시고 책임감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온 지 한 달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부단장을 맡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이 책임감도 주시고
이걸로 뭘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봉사상도 받고 올해 와서 담당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한테 제발 다른 데 가지지 마시라고
하다 보니까 더 애정도 생기고 더 책임감도 생겨서.’(참여자 12)

‘선배님들이, 저희가 직접 뽑는 것도 있는데 저를 직접 추천을 해 주셨어요.
위에서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 선배님들의 기대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했던 것도 있고, 점점 맡다 보니까 책임감이 강해져 가지고 제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거 많이 좋아해서 저희 동아리 부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거죠...’(참여자 13)

(7) 참여를 통한 변화 경험

작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어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 나아가 사회적 참여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해주는 경험이었다.

‘저희가 우리는 이런 점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런 거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별한 거 같아요.’(참여자 5)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이런 데 건의하고 싶은 거는 불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해 볼 수 있구나 알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 10)

‘저도 처음에는 청소년정책에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
리가 살아갈 사회의 정책도 생각하고, 나중에 저희가 커서 아기를 낳는다면
그런 애들이 살아갈 사회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참여자 14)

4) 주위 반응: 전반적인 무관심·묵인 속에서 지지 혹은 반대의 경험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물어보았다.

(1) 친구들

가장 공감대가 크거나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물어보았는데, 예상보다 ‘무관심하다’ 혹은 ‘모른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적극적인 청소년 활동 참여자들 스스로도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도 혹은 적극 권유를 해 봐도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 참여자들도 굳이 다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을 하기는 했는데 거의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 같아요.’

(참여자 5)

‘모르겠어요, 서로 신경을 안 써서.’(참여자 7)

‘(친구들은) 그냥 나 오늘 수련관 가 하면, 왜 가? 응, 청소년운영위원회 하려고 그러면 끝. 더 궁금해 하지 않고 자기들 관심 밖이니까... 일단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관심 밖인 거예요. ... 소개를 해 봤는데, 따라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아닌 친구가 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아예 저도...’

(참여자 15)

친구들은 봉사시간 역시 형식적으로 ‘때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귀찮거나 피곤한데, 혹은 (시간, 노력) 아깝게 굳이 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그냥 제 친구 같이 할래 말했는데 10시에 어떻게 일어나, 그 시간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못 일어난다 하고’(참여자 4)

‘친구들은, 제가 이런 봉사 하면 자기가 만드는 거 이런 활동 하는 거야 하면 ‘피곤한데 왜 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조금 활동적이거든요.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만들고 가서 노는 그런 거라서 에너지 소비도 있는데 아깝다고 반응을 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9)

청소년들은 이러한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친구들이 (청소년활동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무관심한 거’라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또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오가는 데 따르는 불편함 등 친구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사실 제가 처음 청소년 운영 위원회나 이런 거 시작할 때, 제 포래에서는 저희 지역에 저 밖에 없었어요. 여기 촌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거 뭐야 그거 왜 해 이런 반응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저희 학교에 두 명 있어요. 저 포함해서, 한 명도 제가 데려온 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아직 그렇게 좋지 않고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참여자 15)

‘제일 처음 혼자 했으니까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서 주변에 많이 물어 봤는데, 멀다 보니까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서, 친구들이 그것 땀에 일단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 다 진짜 여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 없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게... 그냥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16)

물론, 주위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부럽다고… 제가 뭐 활동 할 때마다 애들한테 나 이런 거 한다 이러면, 재미있겠다 했는데, 이거 해서 봉사시간 나온다 하면 저도 소개해 달라고… 놀고 봉사시간 받는 거에 흑해요…’(참여자 17)

‘친구들도 저희 동아리 부러워해요. 저희 학교 동아리 들어가고 내가 이 동아리 왜 들어왔지 후회하는 애들이 엄청 많고 진로랑 관련된 게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동아리 들어올 걸, 저희 동아리가 봉사시간으로도 유명하고 동아리는 친밀도도 유명하고 체계적인 동아리다 보니까 다른 동아리들보다 애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13)

‘제가 이 활동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따로 봉사시간 합쳐서 100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걸로만 100시간이니까 '대박이다, 그거 100시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도 할꼐…’(참여자 12)

(2) 부모님

무관심한 부모님도 있으시지만, 청소년활동을 권유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만큼, 활동을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지지를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많았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활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다양하였다.

‘이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지를 하시는 편이고, 처음에 동아리 같은 경우를 들어왔을 때는 엄마가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부족해지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자신감을 찾는 거라면서 좋아하셨는데…’
(참여자 5)

‘부모님은 뭔가를 원해서 한다는 거에 기특하게 생각해서, 동아리활동을 원해서 다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고’(참여자 3)

‘대견하다’(참여자 13)

‘잘하고 있다’(참여자 9)

‘차 태워달라고 하면 차 태워주세요.’(참여자 5)

‘무슨 활동 하는지는 관심 없는데, 제가 봉사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봉사시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뭐를 하든간에 니 선택이고, 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셔서 딱히 반대는 안 하세요’(참여자 17)

그렇지만, 자녀의 학습과 성적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의 경우 청소년활동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여 크게 반대하기도 한다. 특히 참여자들이 고학년이 되어 감에 따라 부모님의 반응도 달라져서 ‘이제 그만 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제 부모님은 제가 항상 랩 하러 갈 때마다 그걸 왜 하나냐 소리를 듣고 가지 말고 차라리 책상에서 공부 좀 해라 그 소리 맨날 들어서’(참여자 2)
‘저는 시간, 한다는 거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회의를 간다거나 하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세요. 공부할 시간을 줄여서 그걸 가는 거니까’(참여자 14)

‘반대하시죠. 매년 새로 갱신될 때마다 하시는 말이, ‘또 하계? 안 하면 안 돼? 또 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또 해? 이제 고2인데 또 해? 야 이제

대학 가야 하는데 고3인데 또 하게? 그리고, 응 그냥 하게... 하면 아휴...
이렇게 하면서 끝났던 거 같아요.’(참여자 15)

처음에는 반대하던 부모님이지만, 자녀의 꾸준한 설득과 확신에 의해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경우도 있었다.

‘반대는 하셨지만, 이미 시작한 거 말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께. 오늘 이런 거 했어, 이래서 좋았어. 이번에
이런 거 한대, 재미있을 거 같아... 이런 말씀을 자주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크게... 물론 교외적인 거고 성적하고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제가 얻어가는 게 있고 경험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지지해주는 거 같아요, 이제는...’(참여자 15)

(3) 교사들

참여자들은 (학교)선생님들이 보통 자신들의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반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쌤들 그런 거 관심 없어요.’(참여자 5)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쓰실 거 같아요. ... 그래서 동아리 간다 말씀 드렸는데
별 생각 없으신 거 같아요. 그냥 동아리 간다 하니까 그냥 조퇴증 끊어
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동아리 가는구나 정도.’
(참여자 16)

‘(선생님이) 지지는 안 해 주세요. 선생님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저희 선생님은 크게 터치 안 하시는데, 저는 문과이고

그 친구는 이과 담임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거 왜 하냐고. ‘니, 그거 해서 대학 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신대요. 그게 딱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을 제대로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참여자 15)

‘저희 선생님이 보수적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역시 그거 해서 대학 가냐고 말씀하실 거 같아요.’(참여자 14)

하지만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잘 채우는 것,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다양한 활동을 권장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와 대단하다 하고’(참여자 4)

‘중학교 3학년이고 하니까 진로가 이쪽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너의 진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활동이다 생각을 하시고’(참여자 3)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저희가 활동 열심히 하고 교내에서 학급동아리랑 하는 거 좋아하세요.’(참여자 13)

‘학교 선생님들은 진로연계 봉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그런 분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지해 주시고’(참여자 12)

언급된 인용문의 지역분포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대도시지역 청소년들이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 태도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데 비해, 도농복합지역 청소년들은 교사들의 부정적인 태도 혹은 반대를 더 많이 언급하였다.

5) 청소년활동의 중단 이유: 학업 혹은 진학

참여자들에게 활동과정 중 청소년활동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주위에 그만 둔 친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공통적으로 중단 이유로는 ‘시간, 공부, 나이’의 세 가지가 언급되었다.

‘나가는 애들은 여기 활동을 하는데 개인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현혈 같은 것, 그런 걸로 시간 빠르게 채울 수도 있고 해야 되나 싶은 게 그런 거.’(참여자 11)

‘청소년활동은 봉사시간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기도 하고, 학업도 그렇고, 나이가 드는 것도 요인에 포함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세 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13)

면접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경우 스스로 중단하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주위에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을 본 적은 있었고, 그들이 그만 둔 이유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고등학교 진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들도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않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던 이들이 ‘다 찢어지고’, ‘거리가 멀어진다(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많고, 학교 끝나고 오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학 후에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혹은 주말에도) 자습’하거나 ‘학원에 가야 하니까’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리 내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분열이 나거나, 저희 위에 선배들은 고등학교가 다 찢어지다 보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없어지는 동아리도 있고,

저희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동아리를 못 하는, 고등학교가 다 달라지니까.’
(참여자 3)

‘고등학생 되면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잖아요. 그게 걱정이예요. 청운위가 거의 토요일 날 회의나 프로그램이 많은데, 토요일 날 학교에 가면 그게 조금 힘들까봐 그게…’(참여자 8)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청소년활동은 고2, 혹은 고3 1학기까지는 가능한데, 고3때(2학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부모, 교사들도 이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도 고3이면 1학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시기라서. … 고3, 1학기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관)선생님이 고3이면 보내주실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참여자 12)

‘수능 때문에 포기하죠.’(참여자 13)

‘이런 활동을 하려면 최소 11시, 12시에는 이 기관에 와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달에 두세 번. 저는 운영 위원장이다 보니까 선생님과 면담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자주 (토요일) 자습을 빠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눈치가 보여요. 솔직하게… 선생님도 그게 뭔데, 자꾸…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참여자 15)

‘내년에 안 하는 아이들은 학업 때문에 안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거 같아요.’
(참여자 15)

하지만, 실제로는 참여자들이 일반고등학교 학생인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인지에 따라, 혹은 대학진학을 위해 수능을 보는지 정시에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진학과 관련된 중요한 시기가 다르고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활동 가능 시기가 달라진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고등학생의 경우 고2 시기까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3학년이 되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지만 수능이 끝난 고3 2학기에는 오히려 시간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고2에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3 시기에는 오히려 시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3 때 청소년활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마음속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대학 진학 이후의 연계활동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 서포터즈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담당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가서 서포터즈로 들어오라고 권유해서 그런 거로 다시 올 생각이 있어요.’
(참여자 12)

‘지금도 작년에 하셨던 선배님들이 가끔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기회가 되면 비슷한 활동들을 많이 찾아서 해 보려고요.’
(참여자 13)

6)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

참여자들에게 청소년활동에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봉사시간을 인정받는 것과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과 시간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1) 제도적인 유인요인: 봉사시간 인정

청소년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역시 많았다. 특히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매우 매력적인 요인이라고 한다.

‘봉사활동이라는 어필도 아무래도 조금은 있죠. 아무래도 저희는 원서를 써야 하는 입장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이 필요하거든요. 메리트가 있는,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되는… 그거에 가장 끌리지 않았을까요.’(참여자 15)

‘대다수가 거의… 거의 제 주변에서 보면 봉사활동을 찾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지정된 봉사시간을 못 채워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13)

‘봉사시간을 안 준다고 가정하면 참여율이 훨씬 많이 떨어질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참여자 13)

‘애초에 봉사시간으로 이런 거 찾는 걸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게 되는 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참여자 12)

‘시작이 봉사시간인 사람이 많아요. 그니까 저희는 어떤 활동 하는지 알고 어떤 거에서 얻어 가는지 아니까 지금은 봉사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확실히 대답 드리지만,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는 봉사시간 없이 활동 한다고 하면 애들이 혹할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특히… 그거 없으면 안 시킬 부모님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참여자 15)

(2) 제도적인 유인요인: 생활기록부 기재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기관에서의 활동내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실제 생기부에 기재 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활동은 ‘필요없는 활동’으로 취급받게 되기도 한다.

‘저희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는 모르잖아요. 1년이 지나고 활동 같은 거를 생기부 보면서 점검하는데 우리 동아리는 몇 줄 안 써줬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많이 써주죠.’(참여자 13)

‘여기(타 학생의 경우)는 학교 소속 동아리라서 생기부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봉사시간에 자치단 이름 들어가고 무슨 활동을 했다 들어간 거라서 자소서에서 봉사시간 따로 적어야 되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활동, 저희 청소년 기본법이나 진흥법에 의거하는 동아리잖아요. 저희… 법에는 의거하는데 대학갈 때는 안 돼, 이게 약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이 있는데 왜 그게 대학 갈 때 스펙에는 안 되냐고. 그게 너무, 저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바뀐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참여자 15)

하지만 생기부 기재가 청소년활동의 자율성을 해치고, 청소년활동을 오히려 형식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오히려 안 적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냥 다 없이 하면 진로에 안 맞춰도 되고 자유롭게 찾아보면 되니까.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은데 다른 활동 하면 그러면 넌센스니까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해요.’(참여자 9)

(3) 학교-청소년기관 연계체계 구축

참여자들은 학교와 청소년기관 사이에 연계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청소년활동에 관한 홍보를 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거. 학교에서 시간도 지원을 해주고 홍보도 안내문 같은 거 나눠줘서 홍보 위주로, 일단.’(참여자 17)

또한, 청소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지원(예산, 공간 등)을 받을 수도 있고, 활동 자체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원비가 너무 작아서 연결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연계하면) 댄스 동아리도 있고 연극부도 연계해서 지원금을 받고 활동 공간도 확실히 인정된 장소에서 같이 하면 지도교사도 있을 수 있고.’(참여자 12)

‘저희 같은 동아리가 많으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막무가내로 학교에서 선생님 한 명 주고 아이들끼리 뭔가 구성해서 하는 동아리보다는 이런 시설 이랑 연관이 되어서 내가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하는 게 좀 더 활동에 많이 도움도 될 거 같고요.’(참여자 13)

(4) 활동비용 지원

참여자들 중 일부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이 지금보다 더,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양질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퀄리티가 달라지죠. 저희 같은 경우 가끔 시설에서 행사 활동을 하면 만들어줘요. 그럴 때 지원금이 많으면 밖에서 할 때 부스 같은 거 예쁘게

꾸미고, 하는 애들한테 시원한 물이라든가 좀 더 줄 수도 있고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백만 원짜리 행사하고 천만 원짜리 행사가 다르듯이 퀄리티 문제라고 생각해요…’(참여자 11)

하지만 실제 활동비용 지원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기도 해서, 적정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진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어디에 쓰는지 일일이 다 적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또 금전적인 거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이 많아져서) 활동이 많아지기보다는 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이 좋아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적정선을 넘어서 많아지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참여자 13)

(5) 홍보

참여자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가 부족하니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홍보활동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활동 자체가 있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활동 자체가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직접 나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구나 생각하는 학생이 없는 거 같아요.’(참여자 13)

‘지금 홍보, 사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청소년기관 홈페이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홈페이지에만 올라와요. 사람들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홈페이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수거든요. 일단 홈페이지 외에 광고가 있어야 돼요. 홍보가 있어야 되고…’(참여자 15)

참여자들에게 만일 본인이 친구들에게 청소년활동을 권유한다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처음에 봉사시간, 두 번째 면접. 건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사회생활 잘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참여자 17)

‘제가 이제껏 한 활동이랑 제가 많이 변했던, 제가 처음이랑 지금이랑 바뀌어 왔던 점을 말하면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걸 많이 말해 줄 거 같아요’(참여자 15)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생기부에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같이 가자…’(참여자 16)

7) 참여자들에게 ‘청소년활동이란…’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자들에게 ‘청소년활동이란 ~이다’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을 표현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을 자율, 해방, 계단, 취미, 사회생활, 일상, 도전, 삶의 변화, 성장 과정, 신기루, 자원, 또 하나의 세계, 지팡이, 헬스, 로손, 날개 등으로 표현하였다.

‘나에게 청소년활동이란 자율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이다.’(참여자 13)

‘저는 청소년활동이란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구속당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청소년활동 할 때 저에게 자유를 주는 거 같아서 해방이다.’

(참여자 1)

‘청소년활동이란 계단이다. 이게 자기 꿈이 있으면 거기에 가까워지고 올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3)

‘나에게 청소년활동은 취미 생활이다. 그냥 가볍게 스트레스도 풀고 그냥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으니까. 그냥 취미 생활 같아요.’

(참여자 4)

‘취미. 취미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서 주로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재미있으니까 모든 게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하는 거다. 성취감이다 이런 게 있어서.’(참여자 8)

‘사회생활. 이른 사회생활. 저희가 만약에 어른 되었을 때는 진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빠른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참여자 6)

‘일상생활.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일상처럼 너무 편해요.’

(참여자 7)

‘저에게 청소년활동이란 도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도전을 해 보고 내가 이런 거에 잘 한다는 거를 이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걸음 내딛는 거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 5)

‘삶의 변화이다. 봉사를 하기 전에 타인의 배려를 잘 안 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좀 더 인성이나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 바뀌어지고 주변에 좀 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제 행동에 맞는 애들이 있었다면 바뀐 행동에 맞는 애들이 옆에…’(참여자 11)

‘성장 과정. 들어오고 나서 가장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성장을 많이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전에는 무슨 활동이 있든지 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백수 같은. 그랬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뭔가 대인관계도 많이 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다는 거를 느끼니까 이것저것 다 참여해 보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는 의미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충분히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13)

‘저는 신기루 같아요. 신기루가 더운 사막같이 한정돼 보이잖아요. 한정된 상황에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안 보이다 보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신기루가 환상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더운 데서 오아시스가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을 텐데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가 신기루 같아요.’(참여자 12)

‘저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앞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나 기반이 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참여자 10)

‘나에게 청소년활동은 또 하나의 세계.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거의 살잖아요. 저희는 집, 학교, 학원 이렇게만 사는데 조금 더 뭔가 좋은 일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 만나고 다른 어린 친구 만나면서 그런 세상이 좋은 거 같아요.’(참여자 9)

‘저에게 청소년활동은 지팡이. 내가 청소년활동이라는 지팡이로 앞으로 헤쳐나갈 돌을 두드려 보고 앞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참여자 15)

‘저에게 청소년활동은 헬스다… 솔직히 처음에 헬스장 가려고 하면, 가고 싶은데 좀 귀찮잖아요. 가서 운동 같은 거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면 좀 뿌듯하잖아요. 뿌듯한 느낌에 가면 갈수록 몸이 더 커져가니까, 활동이 쌓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귀찮지만,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 생각합니다.’(참여자 17)

‘로션. 기초 제일 처음에 할 때 로션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시작할 때 여기서 뭔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게, 더 올라갈수록 탄탄하게 밑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16)

‘저에게 청소년활동이란 날개이다. 아무래도 학교 내에 있는 시간과 성적 그런 거 다 신경 쓰려면 가끔 생각하면 울타리, 장애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활동은 그 각진 일상 속에서 가끔씩 자유를 뭔가 느끼게 해주는… 그렇게 하면서 저를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인 거 같다고 생각해서 날개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4)

3. 청소년기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면접에서 드러난 활동경험의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집단면접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 면접 내용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4명의 참여자 중 2명은 청소년 집단

면접을 실시한 기관의 지도사로 선정하였다. 또한 면접 참여자 전원이 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장급 지도사들이었기 때문에 활동 여건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참여성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수 있었다.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활동 분야,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적극성, 청소년활동의 성과,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 최근 기관(지역) 내 청소년활동의 주요 흐름

먼저 참여자들에게 최근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는 활동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집중 혹은 확장해 나가려 하는 활동영역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교류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노력)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관련된 청소년활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참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아진 욕구와 관심사는 청소년대상 면접에서도 확인된 바이기도 하다.

‘교류 활동, 더 나아가서 국제교류 여기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그거에 맞물려서 교류와 해외 봉사 이런 국외 체험에 대한 활동에 욕구가 분명해요. 그러면서 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진로는 1순위로 나오는 건데, 진로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압축해서 데이터 뽑기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달라지는 부분이 아이들 참여에 대한 부분의 욕구가 많아졌어요.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부분이 많은 거죠.’(참여자 A)

‘저희는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무기력의 해소. 그래서 다양한 작은 일들로 성취 경험을 쌓아가게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활동을 기획하고, 매점을 운영해

보고, 동네 어린 아이들을 도와보고, 이럴 수 있는 작은 시도들, 이런 것들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OOOOO’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의 일상과 또 그 주변을 바꾸는 사회참여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B)

‘실제로 변화되는 사업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개진했고 군수님이 승인해서 국제교류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 친구들이 지금은 단순 봉사활동하고 단순 참여활동보다, 본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변화되는 활동, 조금 다양한 섹션이 나뉘는 활동을 원하는 거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의견이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 또 지역 사회랑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학교랑 교류하는 사업도 있지만, 학교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모임을 통해서 수련관에 들어오셔서 저학년이라든지 중고생 중에서 수학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도 있고,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참여자 C)

‘방식과 주제로 나뉠 수 있을 거 같아요. 방식은 앞에서 말했듯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 같고 이왕이면 대면을 하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고 ... 경험이 많아질수록 본인이 뭘 잘 하는 건지 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게 아마 정보가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하고 있고 좋아하는 거를 공공과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늘고 있어요.’(참여자 D)

2) 청소년지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활동의 특성 혹은 범주

청소년 참여자들에게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혹은 청소년활동이 가져야 할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지도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청소년들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주인의식, 자발성. 참여, 만들어 가는 활동’ 등의 중요 표현들이 등장했다.

‘체험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섹션들을 나누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뷔페형으로 제공하는 거를 청소년활동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이 청소년지도자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만들어 가는 일들, 도모하는 활동, 그런 것들이 청소년활동이라고 좀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참여자 B)

‘제가 봤을 때는, 꼭 청소년기관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적 동적인 모든 활동을 청소년활동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학교이든 마을이든 청소년시설이든 꼭 움직여야 하는 액티비티 활동이 아닌, 애들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하는 모든 창조적인 활동을 청소년활동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참여자 C)

‘저는 폭넓게 해석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액티비티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무브먼트까지 다 청소년활동이라고 바라보는 편이고’(참여자 D)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청소년활동’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도, 지도자들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경험’, ‘성장을 지원함’ 등의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 그게 활동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스스로 기획을 해 가지고 경험을 쌓는 모든 것이

청소년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꼭 청소년지도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참여자 A)

‘본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 그게 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과정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바라봐야지 ... 어떤 활동은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필요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자발성이 떨어지더라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마다 접근을 달리 하되 큰 측면에서 넓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참여자 D)

3) 청소년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그렇다면, 개별 기관단위의 최고운영자 혹은 정책결정자로서 참여자들은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도자로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 가기를 기대하는가, 혹은 어떤 가치관을 키워주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청소년기관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청소년활동의 지향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목적 및 활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기관 내 현장 실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이지 않으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면접결과,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거나 자신의 ‘꿈(진로)’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좀 추상적인 면이 있지만 ‘사회적 역량’을 키우거나 ‘배려와 같은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경험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진로로 연결 되는 친구가 있고, 꿈이 바뀐 친구가 있고, 조금 활동을 오래 할수록 소극적인 친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크게 두드러지는 거 같아요.’
(참여자 C)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아이들한테 올림을 하나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올림만 주면 된다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이 갖는 어떤 인식의 변화 그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고요. … 지금의 세대는 디지털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통한 아날로그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지만 감성적으로는 조금 아날로그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아까 말씀하신 활동을 통한 성장이나 방향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지금 제 자녀를 봐도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배려라든가 양보 이런 것들이…’(참여자 A)

‘청소년활동이 길러줄 수 있는 게, 지식 역량은 아니… 뭐 지식 역량일 수도 있어요. 지식 역량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 역량이고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는 존재이고 거기서 나도 당당한 하나의 구성체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결과로… 그걸 역량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 그니까, 뭐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하게 되고 거기서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당당해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뭘 잘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활동의 막바지에 자신의 말과 글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게끔 지도해요. 그걸 대중 앞에 보고하든지, 뭐 이런 마지막 단계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 또 협업하는 능력, 자기 자립심, 성취감, 이런 것들을 키워내는 거, 이거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청소년활동이 그걸 키워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아까 무기력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참여자 B)

‘청소년들이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 작용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 삶의 소중한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거, 그게 결국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참여자 D)

청소년활동의 의미, 성과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난 용어가 바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다. 이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참여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점에서, 청소년들 스스로도 ‘동네 혹은 주위를 변화’시키는 역할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청소년활동을 통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거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동료애’를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도자들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경험시키려 하고, 나아가 이들을 ‘사회변화의 주체’로 키워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은 애초에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아이들이 청소년기관에 와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해요.’(참여자 D)

‘청소년활동에 오는 친구들 중에, 이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데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작은 변화라도 도모할 수 있고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 되죠. 저희는 그런 걸 계속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뭔가 노력하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수 있어...’(참여자 B)

혹은 청소년활동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관(지도자)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역량의 ‘성장 기회 혹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저는 양면적이라고 보는 게 인간은 누구나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중략)... 제일 처음에는 거의 마음이 없었던 애도 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또 감동시키고 그렇게 움직여 간다고 저희는 보거든요.’(참여자 B)

‘저는 뭐 처음에 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활동이라든지 경험의 부족으로, 학교에 있는 교과 학습을 통해서만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가, 와서 또래 친구들과 또 다른 학교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뭐 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면서 사회성을 좀 더 느끼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참여자 C)

‘저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좀 무언가 조금 구체적이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일종의 기질이 있었으나,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기관이 가진 전문성이라든가 지도자의 지도력으로 의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가를 찾아가고, 일종의 연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집단을 지어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시민의식 중의 하나가 지역에 대한 연대의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연대감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거는 청소년기관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D)

4) 청소년지도사 전문성의 본질: 아이들과 ‘관계’ 맺기

청소년들이 청소년기관에서 다양한 성장 경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바탕 혹은 본질적인 기제는 무엇일까? 이에 관하여 참여자들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들이 맺는 ‘관계’를 언급하였다.

‘저희는 관계. 저희는 만남과 관계, 우발성... 이런 것들을 열어 놓고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는 우연히 굉장한 기회로 만나는 건데 학교는 필연적으로 만나니까 이 관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우연히 자기를 환대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관계가 쌓이게 되니까 같이 용기가 나고, 그러다가 우발적인 활동하면서 굉장히 재미나지고... 그런데 학교는 제도적인 시스템이니까 자기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 센터에 왔을 때 그런 걸 경험한 아이들이, 숨통이 터진다. 내가 지구에 왜 왔는지 알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되고 그게 이 친구들한테 전파 되고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참여자 B)

그래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개개인과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대접’. ‘진심어린 환대’, ‘리액션’, ‘이름 부르기’, ‘아이들 챙기기’ 등 표현은 다 다르지만, 지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로서만 만나지 않고 아이들과 ‘(개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저희는 기관에 오는 학생들한테 대접을 해주라고 해요. 대접... 저희는 대접 이라고 하는데,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따뜻하게... 애들아,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줄까, 이런 식으로라도... 지지, 관심 그런 부분을 해서... 자율성 이나 아이들한테 기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죠.’(참여자 A)

‘저희는 환대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요. 실제로 그 환대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자발성이 생긴다고 저희는 믿고… 그래서 워크숍 할 때도 이왕이면 좋은 먹거리,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가가면서 보여주려고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매번 수업에 제도적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는 만날 기회가 그 한두 번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만나면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뭔가 파편화시키고 한 분야만 아는 거라고 얘기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저희 선생님 활동하는 거 보면 그런 자세, 영성,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발성을 잘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죠.’(참여자 B)

‘저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리액션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리액션을 해요. 아이들이 오면, 뛰어가서 안아 준다든지… 리액션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그 리액션 때문에 찾아오지 않나 싶기도 해요.’(참여자 C)

‘저는 초기에서의 팁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어요. 이름을 불러라, 모르면 찾아 가라, 멀리서 ‘야’라고 부르지 마라. 청소년들이 그러면 접근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접촉 빈도가… 이름을, 어 누구 왔어 하면 그 아이가 다음에 또 오게 되더라고요. … 담당 지도자들에게 이름을 외우도록 제가 해요. 이름을 말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어, 누구 왔어 해 주면 자기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나를 알고 있는 선생님, 내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집안에서 케어의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차적으로 시작할 때, 자기에 대한 인정 이런 거를 해주면 그 후의 활동들을 기폭제를 주는 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D)

‘이게 도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특성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이 방문하게 되면, 점차 나아가서 그 아이의 진로부터 상가까지

제가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프로파일을 저만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손하고 살고 있어서 제가 가정 방문 간다든지, 이런 부분 까지도 제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쁠 때하고 슬플 때 함께 해주는, 어떻게 보면 보호자 같은 역할, 저는 조력자보다 보호자가 훨씬 더 맞을 거 같아요.’(참여자 C)

5)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방안

지도자들의 집단면접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현실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개선안)도 이루어졌다.

(1) 접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들

① 낮은 사회적 인지도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청소년기관과 청소년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은 뭐하는 곳인지 제가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사람들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중략) 그래서 내가 정작 필요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겠다.’(참여자 D)

그리고 이는 전반적인 청소년기관 및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과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진로와 관련된 사업은, 정책과제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진로와 관련된 교육들은 청소년기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역으로 청소년활동이 반드시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사업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기 에는 반드시 이 활동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거나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중요도나 필요도에 대해서 알려서...’.(참여자 D)

그러므로 청소년기관과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면 1365가 아주 상징일 거 같아요. 자원봉사를 쓰려면 어디를 가느냐, 1365로 가거든요. 그런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개개의 열악한 시설, 특히나 지방에서의 인원이 적은 데는 그런 걸(홍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화시키려면 그런 종합적인 인식들을 시켜야 하는데... (중략) 그런 대표적인 통로가 있어서, 개개 시설들이 고민할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내용을 전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참여자 D)

② 프로그램의 폐쇄적인 운영구조

한편,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관 들이 연초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만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열린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원봉사 예를 들게요. 사실 저희도 핸디캡 중 하나가, 자원봉사를 연초에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데려 가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우수 사례로 많이들 발표해요. 그런데 중간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애들이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와서 저 자원봉사하고 싶는데 할 수 있어요? 하면 아마 대부분 답이 연초에 봉사활동 다 끝났는데…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은 청소년 시설 가면 자원 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갔더니 다 안 된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나 했을 때,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동아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활동도 가려고 하니까 시간제한도 있고 뭐도 있어서, 실제로 가보니까 막상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저희가 말할 때는 청소년문화의집 오면 참여활동 할 수 있고 자원봉사 할 수 있고 동아리활동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해보려고 하면 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상시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연초에 모집해서 발대식해서 끝까지 가 버리고 그걸 또 우수 사례로 발표해 버리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애들한테 할 수 있나…’ (참여자 D)

그렇지만, 이는 청소년기관의 인력 및 공간적 한계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전반적 법률,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평일 날은 학교 단체 프로그램이 집중이지만, 오셔서 보셨던 것처럼 토요일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참여하는 인구들이… 이럴 때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에도 제한이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C)

‘맞아요. 수시로 오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저희도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일상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야 하는 일만 해도 엄청 나게 많으니까… 또 올 수 있는 시간이 한정 되고 비슷하니까. 늘상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회는 많이는 못 가지는 거 같아요.’(참여자 B)

‘저는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1인만 두면 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문화의집도 직원이 25명 되는데 법적으로는 지도사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해 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끌어 올려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처우 개선이라는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능력이 되면 처우를 올려줄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해 주면 좋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전 보다 처우가 좋아지면 우수 인력이 많이 가게 되고 경쟁력이 높아지죠.’
(참여자 D)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에 지도사 한 명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화장실도 갈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확실히 변화가 되어야 하고… 군이라든지 도는 특히나 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 이상은 안에서 만들기가 나름이니까, 법적인 제도는 확실히 바뀌야 되지 않는가… 문화의집들이 수련관보다 개수는 훨씬 많은데, 한 명의 지도사가 학교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 부분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참여자 C)

(2) 다양한 홍보노력들

물론 개별 기관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인터넷 혹은 SNS 활용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인터넷 혹은 SNS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기관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알리고자 할 때 상당히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수련관 출신 친구들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많이 와 있고 가수가 되는 친구가 있고 댄서가 된 친구들을 활용한 페북러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수련관을 거꾸로 홍보해 주는… 그게 뭐 2만명 달리고 30만명 달리고 유명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물어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기관에서 노력하는 홍보의 정도, 보통 SNS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홍보지 보다는.’(참여자 C)

‘큰 행사 같은 경우에 전국에 블로거가 동시에 오기도 하더라고요. 취재하시고 블로그 올리시고 수익이 남으시니까 굉장히 하시더라고요.’(참여자 C)

이처럼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는 홍보가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통한 맨투맨 방식의 홍보가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혹은 장기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관에의 ‘접근성’이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② 청소년 참여자들을 통한 홍보

‘저희는 이런 방법도 다 쓰고, 이번 축제 할 때에는 버스에다가 이렇게 홍보도 붙여 보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 그런 거 보다는 저희가 볼 때,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관계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후배들을 데리고 오고 성취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고 느낀 아이들이 후배들한테 안내해 가지고 후배들을 모아 가지고 오고, 그게 또 문화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지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B)

‘저희는 다 비슷하겠지만 (청소년)자치기구를 일단 1순위로 하고 있었어요. 각 학교 대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단을 관할하는 게 교육청이잖아요. 그 대표단을 활용하니깐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학교에 신청 공문을 보내면, 관련 담당선생님도 관심이 있는 선생님 빼고는 잘 안 봐요. 그래서 학생, 대표 학생들하고 모여서 교육청 관계자 같이 해서 방법을 찾았더니, 이거는 학교공문을 뿌리지 않아도, 그냥 다 전체가 홍보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학생 대표단(을 활용합니다).’(참여자 A)

③ 학부모를 통한 홍보

‘저희는 성인 이용자하고 부모들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죠. 한편으로는 문화의집이 가진 핸디캡이었는데, 성인이용자가 있다는 게 다른 측면에서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플러스 측면이 있고...’(참여자 D)

‘저희 같은 경우 수영장, 요가하고 기타 문화 강좌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홍보하게 되면 못 해도 2, 3천 명이 참여하시거든요 이 분들이 옆에 가족을 또 그 옆에 가족들을 함께 해서 참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이 분들의 입소문 통해서 지역에 홍보가 자동으로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항상 오시는 분이니까...’(참여자 C)

④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교사들을 통한 홍보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창제를 했던 13개 학교들이, 보통 선생님과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학년 전체를 주세요하면 그럼 알림장처럼 동시에 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예 일괄로 홍보해주시는 거예요.’(참여자 C)

‘저희는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위키 청소년들 있을 때 지역에서 어떻게 도울지 같이 네트워크해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이럴 때 참여하거나, 저희 활동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거나 이런 선생님들하고는 지역활동을 할 때 협업이 가능하고 저희가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참여자 B)

‘저희는 교육청에서 교장단이나 교감, 부장 선생님 연수가 있잖아요. 부장 선생님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 연수할 때 그때 교육청 통해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교감 선생님들은 다 선생님들한테 전달하시니까 그게 학생들한테 또 전달이 되고 그 유인물이 학부모한테 가더라고요. 저희는 욕구 조사나 다른 거 할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단 정보에 대한 취득은 다 하더라고요. 그에 따른 선택은 다 하시겠지만 정보는 다 제공하는 거죠.’(참여자 A)

⑤ 청소년기관의 위치나 입지 요인

상대적으로 교통편의가 발달하고 생활권이 밀집된 대도시 청소년기관보다, 지리적 공간은 넓은데 대중교통 편의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의 청소년기관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경남지역 청소년들의 면접에서도 거리가 멀거나 버스를 타면 시간이 많이 걸려 힘들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한편, 청소년기관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함께 위치해 있다면,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한다.

‘제가 이전에 문화의집에서 진로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어요. 매년마다 한 학년이 한번 이상 문화의집에 오게 돼요. 1년 지나면 3년 지나게 되면,

모든 중학생은 한 번씩 저희 문화의집을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문화의집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생소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공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접근성이나 참여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청소년기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깨뜨려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참여자 D)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가 공공 도서관하고 같이 있거든요. 저는 공공 도서관하고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봐요. 청소년문화의집이면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만 아이들이 와야 한다는 게 조금 생기는데, 와이파이 잘 되고 책 볼 거 있고 놀상 가도 괜찮고, 시험 기간에는 특히나 가면 괜히 이해받는 거 같고... 우리가 시설을 건립할 때부터 조금 더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요구에 잘 맞게 기획하면 저는 쉽게...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주민들이 오가면서 보고 있고 그 활동들이 그래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고, 수련관도 청소년 전용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용자가 성인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참여자 B)

‘저희 문화의집은 바로 맞은 편에 육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우체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일종의 공공 타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받으러 가면서 해당되는 기관을 인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둘째 보내고 저희 기관에 첫째를 보내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한 번에 두 아이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죠. 최근에는 행정 타운 안에 청소년기관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련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면 그 시설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관에 가면서 연계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D)

6) 청소년들의 활동 중단

개별적인 청소년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활발하게 혹은 장기적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시체제와 매우 관련이 깊다.

‘그거는 학년이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입시랑, 중3 되면 애들이 좀 빠지고, 고3 되면 빠지고… 제일 안타까운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그리고 고3 되어 수능한다고 빠져버리면, 열심히 키워놓은 재목들이 중간에…’(참여자 D)

‘저희도 마찬가지로인 거 같고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졸업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참여자 B)

‘저희는 상대적으로 대학 가면 빠져요. 지방이니까 서울로 대학을 다 가잖아요, 위쪽으로… 고3도, 저희는 실업계 친구들이 많고 인문계도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 같아요. 오히려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고3 반 그룹이 있는데 학교에서 권장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3 애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저희 진로 프로그램 중에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고3이 아예 단체로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니까 사업 성향, 지역 특성상 조금 달라지는 거 같긴 해요.’(참여자 C)

부모들이 제재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제재하시는 경우도 있죠. 아이는 너무 하고 싶은데 오셔서 그만 시켰으며 좋겠다고 하시고, 이제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참여자 C)

청소년지도자들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연계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청년이 된 이후에는, 눈치 때문에 못 오는 거 같아요. 나이 때문에…’
(참여자 B)

‘저희는 고3 되면 자치 기구를, 간사직분을 뒹요.’(참여자 A)

‘저희는 자문기구로 빼요, 대학생들… 그런 친구들은 애들은 자문해 줄 수 있도록, 너희가 어떻게 기획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했어… 대학생이나 성인이 된 친구가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참여자 C)

7)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인 변화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1) 학교와의 협업

자유학기제나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기관이 지역 학교와 연계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먼저 협업 요청을 해서 오시면 저희가 같이 협업 활동해 주고… OO(지역)에 단독이잖아요. 13개 학교랑 연계하고 있고, 왜 (학생들이) 꼭 찾아 와야 하느냐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활동영역에 교사 활동이 증가되어 있어요.

예전에 오시면 뒷집 지고 계시고 관망만 하셨잖아요. 지금은 같이 참여하시고 저희가 오히려 조력자이고 선생님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참여자 C)

하지만 보통 청소년기관이 시군구 단위에 1~2개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학교의 요청에 반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이 소수의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대행자가 되기보다, 선도모델의 개발 및 보급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저희는 구에 얼마 전까지 하나 밖에 없는 문화의집인데, 지역의 학교에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고 하면, 서비스 제공자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포기하자면 한두 학교랑 손잡을 수 있고, 대행자의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 선도 모델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저희가 서비스 대행하려고 학교를 전전공공하는 거 보다 우리가 수준 높은 도전을 하고 그걸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퍼트려 가고 안내해 주고 그게 저희한테 더 좋은, 조직의 전략으로 봐서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참여자 B)

(2) 청소년활동의 생활기록부 등재

이번 청소년지도자들의 초점집단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역에서의 청소년 활동 내용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장 많은 시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사한, 심지어 같은 청소년활동을 하면서도 어느 부서(교육부)에서는 생기부 들어가고 어느 부(여가부)의 활동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시스템적

으로 막혀 있는 거거든요.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 B가 있으면 (학생이) 딱 봤을 때 어, A는 생기부에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 신청하게 되는 거죠.’(참여자 A)

‘지자체마다 어떤 지자체는 청소년 미래형 배움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배움터를 추가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기존 수련시설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활동들을 등재해주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그거는 학생부에 기록되면 안 된다 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르지 않죠…’(참여자 B)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내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들(특히 고등학생)이 대학입시제도에 매어있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면접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 않는 활동은 쉽게 선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부모 혹은 교사의 반대(활동저지)에 부딪치기 쉽다.

‘우리나라 같이 특수한 입시제도 내에서는, 저는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참여자 A)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 청소년활동 영역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념 규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공공 도서관처럼 국가가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는 공적 영역의 활동은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 여가부가 법 제도 테두리에서 만들어 둔 조직이고 전달 체계이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국가 조직인데 국가 시스템 안에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 연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참여자 B)

한편으로는, 입시제도의 틀 안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현재 청소년활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자발성이나 자율성을 해치고 그럼으로써 청소년활동이 대학입시를 위한 형식적인 활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그 문제를 푼다고 청소년활동이 더 활성화 되나? 오히려 활동의 성격 자체, 주도성이나 참여의 부분들이 오히려 훼손될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참여자 D)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 중에서 학생부에 기록되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초기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형식화되는 우려가 커져요. 지금은 센터에 와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큰 성취가 아니라도 만족하고 숨통이 트인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자기 이력으로 한 줄 넣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다 보면 자발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죠.’(참여자 B)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내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자 한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을 더 많이 설치하고 더 적정한 수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법적, 제도적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지금 청소년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아이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 조건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일한 국가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청소년시설이 인프라 되는 지역하고 열악한 지역들을 동일한 잣대로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국가에서는 이게 기회의 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균등하게 제공되었을 때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참여자 D)

4. 요약 및 시사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활동이 가능하겠지만, 특히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혹은 시설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청소년들이 털어놓은 다양한 활동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주위의 권유나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처음 청소년활동을 시작하는데 주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매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활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배우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간다. 때로는 새로운 진로를 찾기도,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타인, 나아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보람을 느끼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조직적, 사회적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힘과 영향력을 학습하기도 한다.

이처럼 변화되어 가는, 발전해나가는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과 보람, 활동결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이들이 청소년활동에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지만, 대학입시의 부담이 강해지는 고학년이 되면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나 교사의 반대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청소년활동의 부담감은 커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스레 대학진학을 위해 해오던 청소년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에 즐겁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며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있었다. 한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제한된 인프라, 접근성 등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도자 면접 결과, 청소년활동에 관한 청소년지도자들의 경험과 기대가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 그 가운데서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부터, 청소년활동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거나 자신의 ‘꿈(진로)’을 발견해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역량’을 키우거나 ‘배려와 같은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경험해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등이 모두 청소년들의 경험과 일치했다.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기관을 운영해나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노력이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기관 설치,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유연함 등-도 요구된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활동경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는 현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이고 이들이 청소년들과 맺는 ‘관계’라는 점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 — 제5장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현황과 통합방안

- 1.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현황
- 2.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의 문제점
- 3.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통합안 도출

1.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현황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청소년활동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초 기대하였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인지 등을 비롯한 청소년활동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은 증거기반 정책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가 있으며, 활동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활동을 비롯한 청소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조사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사의 조사체계,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각 조사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경우에

31) 이 장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따라서는 각 조사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이 상이함에 따라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각각의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 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가 3개 진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사들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청소년활동 실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조사들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 실태와 관련한 통합적인 조사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각 조사들의 조사 체계(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수행기관, 조사시기, 조사주기, 조사기준시점 등), 조사 대상(조사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 조사방법 등) 및 조사내용(조사문항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각 조사들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1) 조사체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2014년에 1차 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총 5년간 진행되는 조사이다. 본 조사의 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14년 당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2018년까지 매년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는 본 조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본 조사는 당초 예정된 대로 2014년에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8년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되어 옴으로써 실질적인 조사주기는 1년이며, 2018년의 5차 년도 조사는 5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2) 조사대상

2018년에 실시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2017년 4월 교육통계 DB 기준의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현황을 기초로 하여 총 17개 광역 시도의 지역 구분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의 학교 구분 및 학년 구분을 층화변수로 설정하여 확률 비례추출법을 통해 조사 대상 학생 수가 9,000명이 넘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조사에 포함된 학생 수는 9,041명으로 초등학교생이 2,828명, 중학생이 2,642명, 고등학교생이 3,571명이다.

본 조사에서의 표본추출은 기본적으로 학교 구분과 지역 구분을 층(層)으로 하는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표본추출틀에 의한 가중치(설계가중치)와 무응답 가중치로 이루어진 기본가중치와 사후층화가중치의 곱으로 산출된 최종가중치를 제시함으로써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표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조사도 조사 대상 학교의 학급을 찾아가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는 집단조사의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3) 조사내용

2018년에 진행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V-1)). 우선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관련하여 청소년 활동 영역별 참여 경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지원정도, 참여형태, 참여경로, 장애요인, 희망 시간, 희망 장소,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활성화 요인,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청소년활동 정책 인지도, 여가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은 활동의 영역을 10개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4~8개

표 V-1 2017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문항 수	비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건강·보건활동	7	각 영역별 세부 활동에 대하여 참여 여부 및 참여 횟수를 측정
	과학정보활동	6	
	교류활동	4	
	모험개척활동	5	
	문화예술활동	8	
	봉사활동	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5	
	환경보존활동	6	
	자기(인성)개발활동	4	
	참여활동	4	
	청소년활동 만족도	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4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1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	2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및 장소	2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1	
	청소년활동 활성화 요인	1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 경험	10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9	
	청소년 여가시간	3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10	
	진로성숙도	7	
	행복감	7	
	공동체의식	4	
	리더십 생활기술	30	
배경변인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3	

* 출처: 본 보고서의 pp. 79-80의 내용을 재구성

내외의 주요 하위 영역을 제시하고 각 하위 영역별 참여 경험 및 참여 횟수를 서열척도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활동 참여 경험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정의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공동체 의식, 리더십 생활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적 특성들은 청소년활동의 성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활동 경험 및 참여 정도에 따라 정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참여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응답자의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등의 3개 문항을 배경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1) 조사체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2항에 따르면,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6년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들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는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는데,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실태 및 요구 수준을 조사한 기존의 조사와 달리, 2017년 조사는 여름방학 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요구, 수능 이후 청소년활동에 대한 요구, 청소년 친화적인 가족활동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3번의 조사가 각기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017년 조사 결과에는 조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조사에 관한 메타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6년에 진행된 조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 실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인 2016년 조사는 4월부터 8월까지 학급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각 지역별로 현장 실사를 담당하고, 조사된 자료의 통합 및 분석, 보고서 작성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담당하였다.

(2) 조사대상

2016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되어 있다(문성호 외,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의 범위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본 조사에서는 해당 집단은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17개 시·도 단위에서 최소 70% 이상의 단위 시·군·구 지역의 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표본을 할당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2~4개의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학급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표본의 성비 및 고등학교 구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남녀 공학 학교를 선정하였고, 특수목적고가 지역별로 10% 이상 포함될수록 하였다. 이렇게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각 시·도별로 최소 875명에서 최대 1,4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표본의 규모는 18,334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각 시·도별 표본 규모의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표본조사에 따른 가중치 관련 정보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의 표본은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 내에서 선정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도 센터의 담당자나 교사의 지도하에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된 집단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표 V-2 2017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문항 수	비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세부 영역	건강증진활동	18	각 영역별 세부 활동에 대하여 참여 여부, 참여 횟수 및 만족도를 측정
		과학정보활동	15	
		교류활동	9	
		모험탐사활동	12	
		문화예술활동	12	
		자원봉사활동	12	
		진로활동	12	
		참여	12	
		기타	1	
청소년활동 참여 요구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		1	
청소년활동 결정요인	정보획득경로		1	
	참여 동기		1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		1	
	참여 결정 요인		1	
	참여 장애 요인		1	
	참여가 도움이 된 점		1	
	희망 활동장소		1	
	희망 활동시간		1	
	청소년활동 사업에 대한 인지		1	
	청소년활동 시설에 대한 인지		1	
	청소년활동 시설 이용경험		1	
정의적 특성	관계형성(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10	
	협동(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8	
	개인시민성(권리 및 책임의식)		4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		15	
일반적 사항	성별, 학교급, 학교유형, 지역, 학업성적		5	

* 출처: 문성호 외(2016), p. 24의 조사도구 내용을 재구성

(3) 조사내용

이 조사에서는 2015년에 개발된 청소년활동 공통지표를 활용하여 청소년활동을 건강증진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탐사활동,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활동, 진로활동, 참여활동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3~6개의 세부 활동을 제시하고, 세부 활동별로 지난 1년간의 참여여부와 참여횟수, 각 참여한 세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밖에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 청소년활동 결정 요인으로, 정보획득 경로, 참여 동기,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 참여 결정 요인, 참여 장애 요인, 참여가 도움이 된 점, 희망 활동 장소, 희망 활동 시간, 청소년활동 사업에 대한 인지, 청소년활동 시설에 대한 인지, 청소년활동 시설 이용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성과와 관련하여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 역량에 주목하고 관계형성, 협동, 개인 시민성, 진로설계와 관련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 학교급 등이 배경 문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3)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 조사체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54013호)이다. 본 조사의 작성 주기는 3년으로 2011년, 2014년, 2017년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7년 조사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조사 전반을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 총괄 및 조사표 작성, 조사 자료의 분석을 담당하였으며, 한국궐립조사연구소가 조사 실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7년 조사는 6월 27일부터 9월 29일 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2) 조사대상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을 의미하는 만 9~24세 청소년이다.³²⁾ 2017년 조사에서 적용된 목표 모집단은 “조사 기준 시점(2017년 6월 1일) 현재 대한민국 내 만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의 청소년 및 주양육자”이다(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12). 따라서 앞서 언급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여 해당 학급에 있는 학생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한 반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학교가 아닌 가구를 표본추출 단위로 하고 있다.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3년 세종특별센서스”, “2015년 신축아파트 조사구” 자료 등을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조사 대상 가구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집단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백혜정 외, 2017: 14).

목표 허용 오차의 크기, 사용 가능한 예산의 규모, 통계생산 단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표본규모는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5,000가구로 정하였으며, 가구당 1.5명의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여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수를 7,500명으로 설정하였다.

17개 시·도별 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7개 시·도로 1차 층화를 실시하고,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시도별 안정적인 통계 생산을 위해 변형비례배분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고, 확률비례계통 추출법에 근거하여 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조사구에서는 동부의 경우 10개 가구, 읍면부의 경우 5개 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7,676명, 주양육자는 5,086명이었다.

32)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대상에는 청소년들과 더불어 그들의 주양육자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음.

본 조사에서는 조사결과에 기초한 추정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가중치 산정, 무응답에 대한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여 실제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가구를 기본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면접원의 가구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3) 조사내용

앞서 언급한 두 조사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 영역 이외에도 청소년의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전체적인 조사 내용보다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항목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조사 문항은 우선 청소년 활동의 9개 세부 영역(문화예술 관련 활동, 과학정보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국제교류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에 있어서의 참여 여부와 횟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참여 경로, 참여 동기, 만족도, 향후 하고 싶은 활동, 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및 개수, 청소년 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는 다른 조사와 달리 주관적 안녕감, 수면,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건강평가, 참여, 부모와의 활동, 부모와의 관계, 가정생활 만족도, 가족관, 사회관,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사교육, 방과 후 활동 등과 관련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의 문제점

지금까지 청소년활동 실태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3개 조사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조사체계,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3개 조사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 각 조사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조사체계 비교

〈표 IV-3〉에는 청소년활동 관련 3개 실태조사의 조사 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활동의 실태가 매년 급변하는 현상은 아닐 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는 꾸준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조사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청소년활동 실태와 관련한 조사를 위한 근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 이 조사는 현재 시점에서 2018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특정 현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당 현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심하다면 조사의 주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조사주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 현재 조사주기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경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실태의 변화 정도가 매년 조사를 필요로 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일정 주기를 설정한다면 몇 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V-3 조사체계 비교

구 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의 법적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조사주기	1년(2019년 이후 실시하지 않음)	1년	3년
조사기간	2018년 5월 2일 ~7월 20일	2016년 4월 ~ 8월	2017년 6월 27일 ~9월 29일
조사체계	현장실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현장실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 조사대상 비교

〈표 V-4〉에는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크기, 층화, 표본추출, 가중치, 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3개 조사의 특징에 대한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3개 조사에서 조사 모집단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재학생은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전국의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는 모집단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 연령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청소년의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연령대인 19세부터 24세까지의 집단의 청소년활동 참여율이 9세~12세까지의 집단이나 13세~18세까지의 집단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5〉).

표 V-4 조사대상 비교

구 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모집단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전국 17개 시·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조사기준시점 (2017년 6월 1일)에 대한민국 내 만 9세~ 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의 청소년
표본 추출틀	2016년 12월 교육통계 DB 기준의 전국 초등 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조사대상 학교 추출	17개 시·도 단위에서 최소 70% 이상의 단위 시·군·구 지역의 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표본을 할당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2~4개의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2015년 신축아파트 조사구 자료 등을 사용하여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규정
표본크기	8,773명	18,334명 (각 시·도별로 최소 875명에서 최대 1,440명)	7,676명
층화	6개 광역 시도의 지역 구분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구분 및 학년 구분으로 층화	-	17개 시·도로 1차 층화를 실시하고,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
표본추출	층화집락추출법	-	확률비례계통추출법
가중치	설계가중치, 무응답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에 기초한 최종가중치 산출	-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을 통해 최종가중치 산출
조사방법	학급 방문을 통한 자기 기입식 집단조사	학급 방문을 통한 자기 기입식 집단조사	가구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표 V-5 연령대별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단위 : %)

연령구분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9~12세	57.5	32.4	25.2	16.8	20.7
13~18세	60.2	23.5	21.7	37.9	34.6
19~24세	68.5	3.9	12.9	18.1	18.7
연령구분	국제교류	건강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	-
9~12세	2.4	24.6	15.4	26.8	
13~18세	3.4	24.7	16.8	17.6	
19~24세	3.8	10.2	9.4	9.2	

* 출처: 백해정 외(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 55의 표 III-25에서 해당 내용 발췌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이 주로 학교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청소년활동 참여의 성격이 변화함을 감안하여, 청소년 활동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및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와 「청소년종합 실태조사」의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표본 추출 단위에 관한 것이다. 앞의 두 조사에서는 전국의 학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이나 학교급, 학교 종류 등에 따라 층화 작업을 통해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확률표집 방식을 통해 조사 대상 학교를 추출함으로써 기본적인 표본 추출단위는 학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1차로 조사구에 따라 층화하고, 2차로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층화한 표본추출틀로부터 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가 대상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는 조사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반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와 같이 가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와 같이 시·도 단위까지의 청소년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규모를 상당히 확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활동 실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한정된 조사비용으로 가능한 표본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모집단의 정의, 표본 추출틀 구성, 층화, 표본 배분, 표본 추출 등을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함으로써 모수 추정에 필요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추출 및 모수 추정과 관련한 정보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활동 관련 조사에 관한 내용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각 17개 시·도의 청소년활동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최소 875명에서 최대 1,440명까지 조사함으로써 각 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표본

크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 조사」는 각 시·도별 청소년활동 실태보다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활동 실태에 초점을 둬으로써 두 조사의 연구 결과를 각 시·도별로 발표할 경우 시·도별 표본 크기의 제한으로 인해 상대표준오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조사내용 비교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는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 경험, 활동 참여와 관련한 제반 요인, 활동 성과와 관련한 요인 및 배경 요인들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6〉).

우선 청소년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조사목적이 상이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달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문항 구성이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활동을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예시를 제시하면서 해당 영역에서의 활동 경험 유무 및 횟수를 질문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두 조사에서는 청소년활동을 각각 8개 또는 10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 활동을 제시한 뒤, 각 세부 활동별 참여 경험 및 참여 정도, 만족도 등을 질문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참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표 V-6 주요 조사문항 비교

구 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활동 경험	10개 영역 (건강·보건활동, 과학 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 활동, 봉사활동,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 계발활동, 참여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개 영역 (건강증진활동, 과학 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탐사활동, 문화예술 활동, 자원봉사활동, 진로활동, 참여) 참여 여부, 횟수 및 만족도	9개 영역 (문화예술관련 활동, 과학정보관련 활동, 모험개척관련 활동, 자원 봉사활동, 직업진로관련 활동, 국제교류 활동, 건강 보건관련 활동, 자기(인성) 계발관련 활동, 환경보존 관련 활동) 참여 여부와 횟수
청소년활동 관련 요인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 기대수준, 지원정도, 참여 형태 및 참여경로, 장애 요인, 희망 시간 및 장소,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활성화 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시설 이용 경험, 활동정책 인지도, 여가시간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 정보획득 경로, 참여 동기,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 참여 결정 요인, 참여 장애 요인, 참여가 도움이 된 점, 희망 활동 장소, 희망 활동시간, 활동사업 인지, 활동시설 인지, 활동시설 이용 경험	활동 참여 경로, 참여 동기, 만족도, 향후 하고 싶은 활동, 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및 개수, 청소년 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
성과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공동체 의식, 리더십 생활기술	관계형성(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팔로워십, 갈등 문제해결), 개인시민성(권리 및 책임 의식),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	주관적 안녕감, 스트레스, 건강평가, 참여, 부모와의 활동, 부모와의 관계, 가정생활 만족도, 가족관, 사회관,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사교육, 방과 후 활동 등

특히 청소년활동 영역을 8개로 구분할 것인가 9개로 구분할 것인가 혹은 10개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세 조사 모두 인증수련 활동의 영역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활동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청소년종합 실태조사」의 경우는 9개 영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조사」의 경우는 9개의 영역으로 조사를 수행하다가 2018년 조사에서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참여활동 영역을 추가하여 10개 영역으로 조사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경우에는 9개 영역 가운데 자기계발활동과 환경보존 활동을 제외하고 대신 참여활동을 포함하여 모두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제반 요인에 대한 문항은 청소년활동 영역별 경험 여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경우 구성 내용이 매우 유사한 반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른 두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 수보다 적은 수의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조사 내용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다는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조사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조사에는 청소년활동의 효과 또는 성과로 간주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는 청소년 역량에 초점을 두어 관계형성, 협동, 개인시민성, 진로설계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조사의 성격 상 청소년활동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활동의 효과 또는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특정 요인들이 자아

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 생활기술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효과와 관련한 요인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에 기초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요인을 선정하는 것은 향후 청소년활동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다면,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는 배경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는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2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는 성별, 학교급 및 학교유형, 학교 위치, 학교 성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통합안 도출

지금까지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세 가지 주요 조사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장단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통합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는 각각의 조사 방법이나 조사 대상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세 조사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 동일한 현상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사들이 갖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통합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안을 도출함에 있어 우선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통합안은 우선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표본조사를 활용함에 있어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요건은 조사내용이 청소년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뿐 아니라 청소년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와 관련한 제반 요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문항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이 효용성은 물론 청소년활동정책이 지니는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은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전국 단위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청소년활동 실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광역시·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센터들을 중심으로 광역시·도의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 정책 및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의 청소년활동 실태에 관한 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 단위의 청소년활동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조사내용 및 문항구성

먼저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이 갖추어야 할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각 조사들이 모두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등과 관련한 내용, 청소년활동 참여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요인 등에 관한 내용, 청소년활동의 효과 혹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목적이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기존의 조사에 포함된 세 가지 내용들은 실태조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에서도 적어도 이 세 가지 영역의 내용을 포괄하는 문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과 관련하여, 세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인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에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참여활동을 추가한 10개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국가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조사의 내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활동 영역의 구분은 인증수련활동의 영역별 분류를 반영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와 달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활동의 9개 영역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세부 활동에 대한 예시만을 제시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만을 질문하고 있다. 반면에 앞서의 두 조사에서는 10개(또는 8개) 영역에 대하여 세부 영역을 제시하고 세부 영역별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와 같이 세부 영역에서의 참여 여부를 묻는 방식의 경우 비록 문항 수는 많더라도 청소년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도 이러한 방식의 문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영역별 세부 활동도 인증수련활동의 활동 예시에 기초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에 관한 문항은 <표 V-7>과 같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제반 요인에 관한 문항은 기존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조사」나 「청소년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의 관련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년 활동 참여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참여 적극성 정도), 청소년활동 성취 기대 수준 및 기대 효과, 청소년활동 참여 시 지원 정도, 청소년활동 참여 동기, 청소년 활동 참여 경로 및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청소년활동 참여 결정 요인 및 장애 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 향후 희망 활동장소 및 활동 시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인지도, 청소년활동 시설 이용 경험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에 제시된 문항들로 구성된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현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문항들은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해당 문항들은 조사에서 삭제하고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생활 등에 관한 문항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의 효과 또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문항으로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고, 「청소년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는 청소년역량에 초점을 두어 관계형성, 협동, 개인시민성, 진로설계 등과 관련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활동 경험이 정의적 측면이나 청소년역량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두 조사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 관련 문항을 선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효과 혹은 성과를 보이기 위한 문항을 선택함에 있어 우선 그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의 청소년활동 정책의 책무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정책 적합성이 높은 요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지표 가운데 활용 가능 지표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V-7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의 청소년활동 영역 구성안

영역	세부 활동	비고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 예방활동 등	각 세부 활동별 참여 경험 및 횟수에 관한 질문 포함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컴퓨터 및 인터넷활용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도농(도시-농촌)간 청소년교류활동,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등	
모험개척활동	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극기훈련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춤·무용활동,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전통예술활동,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돌봄 및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재능기부활동 등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체험활동, 환경탐사활동,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 공예활동,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등	
자기(인성)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참여활동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 등	

2) 조사체계(안)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의 조사체계에 관하여 논의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시점에서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활동 실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는 물론 향후 청소년활동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한 국가승인통계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가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에,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각각의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의 관련 조항에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라는 표현이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33조에는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라는 표현이 있다. 이 두 조항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각각의 조사들이 일정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정해놓은 제2항에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전국 단위의 정기적인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1항에 청소년 육성의 영역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증거에 기반을 둔 국가의 청소년활동 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제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2항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청소년활동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의 시행 주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이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국가승인통계인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의 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두 조사의 주관기관은 모두 여성가족부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의 실질적인 관리 및 자료 분석을 담당하였고, 여론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체 조사가 진행되었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통합적으로 진행된다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가 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활동 실태조사가 현재와 같이 지역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청소년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통계 작성의 책임을 담당하고, 실제 조사의 진행 및 보고서 작성 등은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통해 용역과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각각 3년 및 2년 간격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조사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조사이다. 청소년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다는 전제하에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가 매년 조사를 필요로 할 정도로 급변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경우도 조사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도 2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기존의 3개 조사 모두 조사기간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2학기에 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입시 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에 관한 통합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조사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위와 관련하여 19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나 양상이 18세 이하 청소년들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에서처럼 초등학생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조사 참여가 가능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조사 모집단의 정의를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는 것은 표본추출틀의 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모집단을 정의할 경우에는 표본추출틀을 작성함에 있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통계가 기초자료가 된다. 이는 곧 조사 대상이 학생에 국한됨을 의미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청소년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학생 청소년으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사 대상을 학생이 아닌 전체 청소년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학교 방문을 통한 조사가 아닌 가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비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비용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모집단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표본추출틀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집단의 정의 및 표본추출틀 구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지역이나 학교급 및 유형 등을 감안한 층화에 따라 확률에 근거하여 학교를 추출하고 거기서 다시 학급을 추출하는 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선정된 학급을 방문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집단조사의 방식이 청소년활동 통합 실태조사의 표본추출 및 조사 방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표본 추출 방식에 근거한 표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표본규모³³⁾

기존의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7,676명으로 가장 작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9,041명이며,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는 18,334명으로 다른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는 기본적으로 17개 시·도의 청소년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각 시·도 조사 결과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표본규모가 크다.

사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조사의 목적이나 내용, 목표 허용 오차의 크기, 사용 가능한 예산의 규모, 통계생산 단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활동 통합 조사는 현행 세 가지 조사의 목적을 모두 포괄하여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지역 청소년활동에 대한 요구 수준을 파악하는 것까지를 조사목적에 포함했을 때,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규모를 산정하였다.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 절에서는 2017년 4월 교육통계DB의 내용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343,46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316,061명(30.3%), 중학교 1,370,382명(31.6%), 고등학교 1,657,021명(38.1%)이다.

33) 이 부분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2) 표준오차 분석³⁴⁾

2017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류활동 참여경험’과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 2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표준오차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교류활동 참여 경험’은 ‘1=참여한 적 있다, 2=참여한 적 없다’로 구분하여 이항형 변수로 고려하였으며,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의 구간형 변수로 고려하였다.

상대표준오차 허용범위 - 캐나다 통계청의 표본조사 기준

- 0.00% ~ 4.99% : 매우 우수(Excellent)
- 5.00% ~ 9.99% : 우수(Very Good)
- 10.00% ~ 14.99% : 좋음(Good)
- 15.00% ~ 24.99% : 허용 가능(Acceptable)
- 25.00% ~ 34.99%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 with caution)
- 35.00% : 공표 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

*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캐나다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 범위별 공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출처: 백혜정 외(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28.

① ‘교류활동 참여경험’ 문항에 대한 표준오차 분석

항목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수는 8,773명이었다.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100보다 작은 지역들에 대하여 상대표준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광주, 세종, 강원에서 상대표준오차가 20%를 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부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서 상대표준오차가 20%를 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별 표본크기를 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표준오차 분석은 2017년 데이터로 수행하였음.

표 V-8 '교류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서울	213,150	364	5.86%	225,575	393	7.16%	281,231	540	8.66%
부산	74,055	140	7.15%	80,090	154	10.72%	98,963	179	22.98%
대구	62,639	138	6.03%	68,401	153	9.58%	86,122	166	14.19%
인천	76,395	143	8.89%	78,132	149	9.17%	91,427	162	14.83%
광주	44,187	77	11.26%	47,585	76	40.81%	58,588	123	14.68%
대전	41,815	75	8.60%	44,564	88	17.79%	53,324	146	19.14%
울산	32,006	68	11.59%	32,666	85	17.83%	41,632	202	15.38%
세종	9,611	22	10.04%	8,561	23	55.08%	7,597	23	32.44%
경기	359,554	794	3.47%	363,951	805	5.21%	419,213	849	6.61%
강원	37,822	76	9.98%	40,917	81	23.06%	50,223	83	25.47%
충북	41,312	74	14.72%	43,069	76	17.71%	51,744	201	26.55%
충남	56,764	126	8.20%	56,910	56	16.89%	69,706	86	16.60%
전북	48,500	73	7.00%	52,937	94	14.50%	66,736	133	28.53%
전남	45,777	68	9.74%	49,109	84	15.84%	63,042	177	14.09%
경북	62,119	148	6.33%	65,332	148	11.30%	84,246	109	26.04%
경남	90,944	144	7.73%	93,092	160	7.08%	110,947	174	15.01%
제주	19,411	86	13.06%	19,491	77	16.35%	22,280	102	19.55%
계	1,316,061	2,616		1,370,382	2,702		1,657,021	3,455	

②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 문항에 대한 표준오차 분석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 대하여 대체로 상대표준오차가 10%를 넘지 않고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본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세종 지역에 대하여는 상대표준오차가 5%를 넘고 있어서, 약간의 개선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서울	213,150	341	1.57%	225,575	382	1.31%	281,231	517	1.29%
부산	74,055	140	2.04%	80,090	146	2.12%	98,963	175	2.18%
대구	62,639	136	2.19%	68,401	145	2.55%	86,122	156	2.10%
인천	76,395	142	2.29%	78,132	145	2.15%	91,427	159	2.68%
광주	44,187	74	3.72%	47,585	74	3.80%	58,588	122	3.03%
대전	41,815	73	3.48%	44,564	87	3.37%	53,324	138	2.19%
울산	32,006	68	3.15%	32,666	78	3.09%	41,632	192	2.32%
세종	9,611	18	4.59%	8,561	21	9.46%	7,597	21	5.63%
경기	359,554	785	1.02%	363,951	778	1.01%	419,213	817	1.05%
강원	37,822	72	3.95%	40,917	73	3.08%	50,223	74	3.33%
충북	41,312	72	3.61%	43,069	76	2.53%	51,744	187	1.76%
충남	56,764	116	2.85%	56,910	56	4.88%	69,706	80	2.83%
전북	48,500	73	4.20%	52,937	94	2.72%	66,736	128	2.11%
전남	45,777	65	4.46%	49,109	82	2.93%	63,042	171	2.09%
경북	62,119	148	2.20%	65,332	147	1.70%	84,246	108	2.69%
경남	90,944	143	2.52%	93,092	160	1.95%	110,947	167	2.15%
제주	19,411	83	3.28%	19,491	69	3.29%	22,280	87	2.88%
계	1,316,061	2,616		1,370,382	2,702		1,657,021	3,455	

(3) 현재의 표본크기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표본크기($n=9,000$)를 유지하고 기존의 표본설계 방식을 준용하면서, 17개 시도를 층으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할 때의 표본설계를 수행할 경우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9,051명(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1,257명 포함)이다.

‘교류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보면, 세종의 경우 표본크기 확대에 인하여 상대표준오차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대표준오차가 큰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7개 시도별 통계 공표를 위해서는 지역별 표본크기를 현재보다 크게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을 볼 수 있다.

표 V-10 ‘교류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서울	213,150	360	5.89%	225,575	420	6.92%	281,231	360	10.62%
부산	74,055	144	7.05%	80,090	168	10.26%	98,963	90	32.51%
대구	62,639	144	5.90%	68,401	168	9.14%	86,122	90	19.33%
인천	76,395	144	8.85%	78,132	168	8.63%	91,427	90	19.95%
광주	44,187	72	11.65%	47,585	84	38.79%	58,588	90	17.20%
대전	41,815	72	8.78%	44,564	84	18.22%	53,324	90	24.45%
울산	32,006	72	11.25%	32,666	84	17.93%	41,632	90	23.15%
세종	9,611	72	5.45%	8,561	84	28.26%	7,597	90	16.06%
경기	359,554	648	3.84%	363,951	672	5.70%	419,213	630	7.68%
강원	37,822	72	10.26%	40,917	84	22.64%	50,223	90	24.45%
충북	41,312	72	14.92%	43,069	84	16.83%	51,744	90	39.84%
충남	56,764	144	7.66%	56,910	84	13.75%	69,706	90	16.22%
전북	48,500	72	7.05%	52,937	84	15.35%	66,736	90	34.75%
전남	45,777	72	9.46%	49,109	84	15.84%	63,042	90	19.83%
경북	62,119	144	6.41%	65,332	168	10.60%	84,246	90	28.69%
경남	90,944	216	6.30%	93,092	168	6.91%	110,947	180	14.75%
제주	19,411	72	14.30%	19,491	84	15.64%	22,280	90	20.83%

*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V-11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서울	213,150	360	1.53%	225,575	420	1.25%	281,231	360	1.54%
부산	74,055	144	2.01%	80,090	168	1.98%	98,963	90	3.04%
대구	62,639	144	2.13%	68,401	168	2.37%	86,122	90	2.77%
인천	76,395	144	2.27%	78,132	168	2.00%	91,427	90	3.57%
광주	44,187	72	3.77%	47,585	84	3.56%	58,588	90	3.53%
대전	41,815	72	3.51%	44,564	84	3.43%	53,324	90	2.71%
울산	32,006	72	3.06%	32,666	84	2.98%	41,632	90	3.39%
세종	9,611	72	2.29%	8,561	84	4.71%	7,597	90	2.71%
경기	359,554	648	1.12%	363,951	672	1.09%	419,213	630	1.20%
강원	37,822	72	3.95%	40,917	84	2.87%	50,223	90	3.02%
충북	41,312	72	3.61%	43,069	84	2.41%	51,744	90	2.55%
충남	56,764	144	2.56%	56,910	84	3.98%	69,706	90	2.67%
전북	48,500	72	4.23%	52,937	84	2.88%	66,736	90	2.52%
전남	45,777	72	4.23%	49,109	84	2.89%	63,042	90	2.88%
경북	62,119	144	2.23%	65,332	168	1.59%	84,246	90	2.94%
경남	90,944	216	2.05%	93,092	168	1.91%	110,947	180	2.07%
제주	19,411	72	3.52%	19,491	84	2.98%	22,280	90	2.83%

*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였음.

(4) 표본크기를 확대하는 방안

본 조사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표본크기를 확대한다는 것은 조사대상 학교수를 크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경우 각 지역에서 학년당 최소 한 학급 이상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본설계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표본크기를 유지하되 17개 시도에서 최소 두 학급 이상,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경우에는 각 권역별로 최소 두 학급 이상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본설계를 수행하였다.

〈표 V-12〉에는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의 학교수에 대한 표본배분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총 462개의 학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V-13〉은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제시한 것이며, 약 12,500명(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1,998명 포함) 정도의 학생이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6(2)	9(3)	9(3)
경기	27(9)	24(8)	21(7)	6(2)	6(2)	
인천	6(2)	6(2)	6(2)			
강원	6(2)	6(2)	6(2)			
충북	6(2)	6(2)	6(2)	6(2)	6(2)	
충남	6(2)	6(2)	6(2)			
대전	6(2)	6(2)	6(2)			
세종	6(2)	6(2)	6(2)			
경북	6(2)	6(2)	6(2)			
경남	9(3)	6(2)	6(2)	6(2)	6(2)	
부산	6(2)	6(2)	6(2)			
대구	6(2)	6(2)	6(2)			
울산	6(2)	6(2)	6(2)			
전북	6(2)	6(2)	6(2)	6(2)	6(2)	
전남	6(2)	6(2)	6(2)			
광주	6(2)	6(2)	6(2)			
제주	6(2)	6(2)	6(2)			
합계	135	129	123	30	36	9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462(154)개

표 V-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60	180	225	198
경기	648	672	630	180	150	
인천	144	168	180			
강원	144	168	180	180	150	
충북	144	168	180			
충남	144	168	180			
대전	144	168	180			
세종	144	168	180			
경북	144	168	180	180	225	
경남	216	168	180			
부산	144	168	180			
대구	144	168	180			
울산	144	168	180			
전북	144	168	180	180	150	
전남	144	168	180			
광주	144	168	180			
제주	144	168	180			
합계	3,240	3,612	3,690			900

* 총계: 12,540명

〈표 V-14〉와 〈표 V-15〉에 2017년 조사결과의 비율 및 평균 추정치와 표준편차에 설계된 표본크기를 적용하여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류활동 참여경험’ 문항의 경우 고등학교에 대하여 일부 지역에서 상대표준오차가 약간 크게 나타나지만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7개 시도별 통계 공표를 위해서 향후 표본설계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두 가지 언급한다. 첫째는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에는 4개의 유형으로 구분

표 V-14 '교류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서울	213,150	360	5.89%	225,575	420	6.92%	281,231	360	10.62%
부산	74,055	648	3.30%	80,090	672	5.10%	98,963	630	12.20%
대구	62,639	144	5.90%	68,401	168	9.14%	86,122	180	13.62%
인천	76,395	144	8.85%	78,132	168	8.63%	91,427	180	14.06%
광주	44,187	144	8.20%	47,585	168	27.33%	58,588	180	12.12%
대전	41,815	144	6.18%	44,564	168	12.83%	53,324	180	17.23%
울산	32,006	144	7.92%	32,666	168	12.63%	41,632	180	16.31%
세종	9,611	144	3.82%	8,561	168	19.82%	7,597	180	11.25%
경기	359,554	144	8.18%	363,951	168	11.44%	419,213	180	14.41%
강원	37,822	216	5.88%	40,917	168	15.94%	50,223	180	17.22%
충북	41,312	144	10.51%	43,069	168	11.85%	51,744	180	28.07%
충남	56,764	144	7.66%	56,910	168	9.68%	69,706	180	11.43%
전북	48,500	144	4.96%	52,937	168	10.81%	66,736	180	24.49%
전남	45,777	144	6.66%	49,109	168	11.16%	63,042	180	13.97%
경북	62,119	144	6.41%	65,332	168	10.60%	84,246	180	20.22%
경남	90,944	144	7.73%	93,092	168	6.91%	110,947	180	14.75%
제주	19,411	144	10.06%	19,491	168	11.00%	22,280	180	14.66%

*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였음.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에 대하여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및 공표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인문계고(자율고, 특수목적고 포함),
특성화계고 구분과 같이 2개 정도의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17개 시도별
표본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성화계고의 조사 학교수가
보다 증가될 수 있으므로, 전체 표본크기도 대응하여 증가될 수 있다. 둘째, 예산이

가능하다면 비례배분에 가깝도록 서울과 경기의 조사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추가사항을 고려하여 표본설계를 수행할 경우 전체 표본크기는 <표 V-13>에 제시된 12,500명보다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조사결과의

표 V-15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상대 표준오차
서울	213,150	360	1.53%	225,575	420	1.25%	281,231	360	1.54%
부산	74,055	648	0.94%	80,090	672	0.98%	98,963	630	1.15%
대구	62,639	144	2.13%	68,401	168	2.37%	86,122	180	1.96%
인천	76,395	144	2.27%	78,132	168	2.00%	91,427	180	2.52%
광주	44,187	144	2.67%	47,585	168	2.52%	58,588	180	2.49%
대전	41,815	144	2.48%	44,564	168	2.42%	53,324	180	1.92%
울산	32,006	144	2.16%	32,666	168	2.10%	41,632	180	2.39%
세종	9,611	144	1.61%	8,561	168	3.32%	7,597	180	1.90%
경기	359,554	144	2.39%	363,951	168	2.17%	419,213	180	2.24%
강원	37,822	216	2.27%	40,917	168	2.02%	50,223	180	2.13%
충북	41,312	144	2.55%	43,069	168	1.70%	51,744	180	1.80%
충남	56,764	144	2.56%	56,910	168	2.82%	69,706	180	1.89%
전북	48,500	144	2.99%	52,937	168	2.03%	66,736	180	1.78%
전남	45,777	144	2.99%	49,109	168	2.05%	63,042	180	2.03%
경북	62,119	144	2.23%	65,332	168	1.59%	84,246	180	2.08%
경남	90,944	144	2.51%	93,092	168	1.91%	110,947	180	2.07%
제주	19,411	144	2.48%	19,491	168	2.10%	22,280	180	2.00%

*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였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수준의 표본 크기인 17,000명 내외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을 정리하면 <표 V-16>과 같다.

표 V-16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조사의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전국 규모의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하는 조항 삽입
수행기관	통계작성기관: 여성가족부 조사업무 수행기관: 업무수행역량을 갖춘 기관(예: 연구기관, 대학, 활동지원기관) 및 여론조사기관(현장실사)
조사주기	2년
조사시기	조사 시행년도 상반기(여름방학 전까지 현장조사 완료)
모집단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표본추출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층화	1차 지역, 2차 학교급 및 학교유형 등
표본추출방법	확률에 비례한 층화추출
가중치	조사결과의 모집단 적용을 위한 가중치 산출
표본크기	17,000명 내외(최소 12,500명)
조사방법	학급방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내용	10개 영역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요인,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또는 성과 관련 요인 등 (※청소년활동 관련 문항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삭제)



제6장 정책제언

- 1. 정책제언의 개요
- 2. 정책과제

1. 정책제언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현황에 대한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개인의 활동 경험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5개년 연구로 실시되어 온 본 연구(「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가 올해 종료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2장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활동정책의 최근 동향, 3장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4장의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 5장의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 수행체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그림 VI-1〉).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의 질적 내실화, 청소년활동의 형평성 제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성과 관리, 체계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등 5개 영역에서 9개 정책과제, 17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표 V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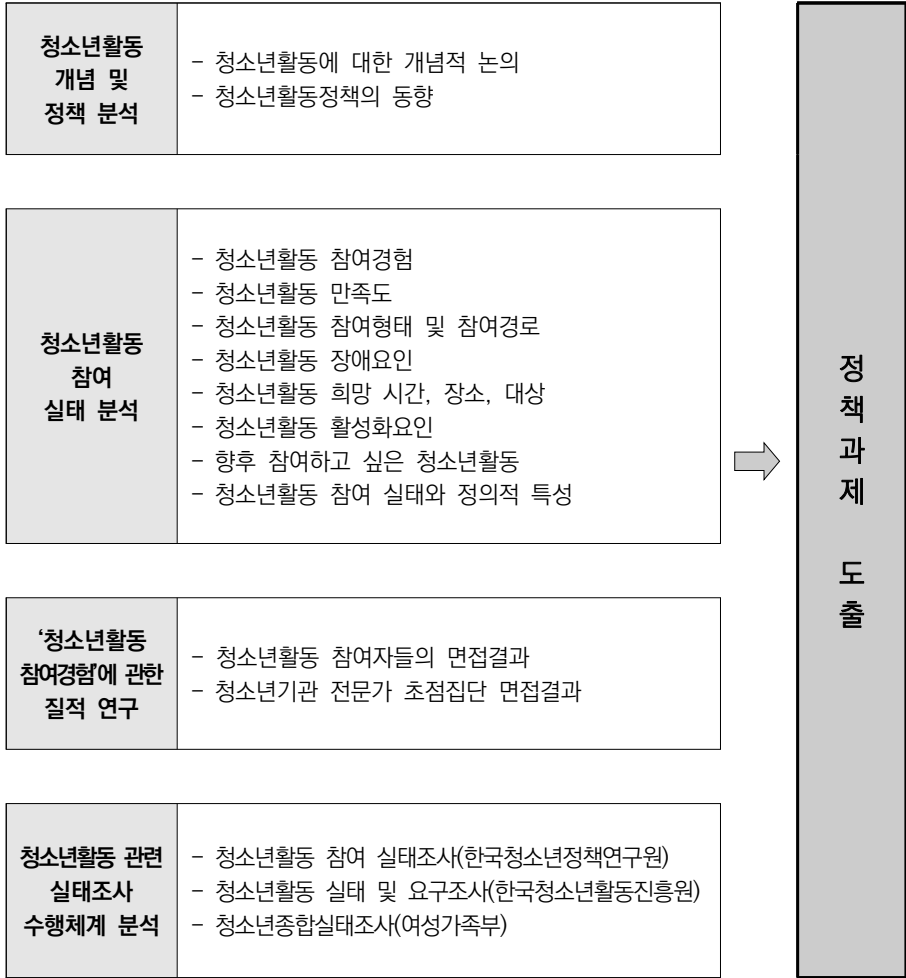


그림 VI-1 정책과제 도출

표 VI-1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정책영역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청소년활동의 질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 -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중심의 청소년활동 제공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참여 여건 마련 - 청소년시설 기반 활동 활성화 -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 강화
청소년활동의 형평성 제고	청소년 우대 활성화 - 청소년증 홍보·발급 및 적용 확대
	지역별 격차 및 지역규모별 격차 해소 -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원격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청소년버스 운영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성과 관리	청소년활동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활동이력 관리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기능 확대 - 청소년활동이력제 도입
	청소년정책 성과지표 개선 -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개선 - 청소년백서의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 개선
체계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 - 2년 주기 횡단조사 추진 - 성과 분석 가능한 종단연구 추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조사내용 개선 - 활동의 질 측정가능 문항 추가 - 활동의 성과 측정가능 역량지표 추가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관련 내용 반영 -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2. 정책과제

1) 청소년활동의 질적 내실화

(1) 제언의 배경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5년간 청소년활동 참여에 관한 반복횡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의 청소년활동정책과 초·중·고에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등의 성과에 힘입어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97%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개인의 활동 참여에 관한 맥락을 파악한 결과, 활동내용이 개인의 관심과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학교 기반 활동의 경우 활동내용과 참여인원수의 제한 등으로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활동의 만족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내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세부 과제

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2018년도의 청소년활동 참여율 순위와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순위 간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은 건강·보건활동,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교류활동, 참여활동의 순으로 참여경험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참여를 희망

하는 활동으로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모험개척활동, 과학정보활동, 건강·보건활동, 참여활동, 봉사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교류활동, 환경보존활동의 순위로 응답하여, 현재 활동 경험과 희망 활동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참여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급별로 살펴보면, 희망하는 활동으로 모험개척활동은 초등학생이, 문화예술활동은 중·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는 등 학교급간 선호하는 활동 영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활동의 활성화요인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초등학생이, 프로그램 선택 시 청소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중·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의 학교급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2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희망 활동 간 비교

	활동 참여경험				희망 활동(1순위)		
	순위	영역	%		순위	영역	%
전체	1	건강보건활동	92.6	⇒	1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27.9
	2	문화예술활동	82.9		2	문화예술활동	16.7
	3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70.5		3	모험개척활동	14.8
	4	과학정보활동	62.2		4	과학정보활동	10.9
	5	봉사활동	60.8		5	건강보건활동	9.4
	6	모험개척활동	59.4		6	참여활동	7.4
	7	환경보존활동	49.1		7	봉사활동	5.0
	8	자기(인성)계발활동	45.3		8	자기(인성)계발활동	3.6
	9	교류활동	35.4		9	교류활동	2.5
	10	참여활동	32.1		10	환경보존활동	1.7

	활동 참여경험				희망 활동(1순위)		
	순위	영역	%		순위	영역	%
초	1	건강·보건활동	95.3	⇒	1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26.7
	2	문화예술활동	89.5		2	모험개척활동	18.4
	3	과학정보활동	79.7		3	과학정보활동	12.9
	4	모험개척활동	75.1		4	문화예술활동	11.7
	5	환경보존활동	71.0		5	건강·보건활동	10.7
	6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70.1		6	참여활동	9.2
	7	봉사활동	60.8		7	봉사활동	5.0
	8	교류활동	54.8		8	환경보존활동	2.7
	9	자기(인성)계발활동	51.5		9	자기(인성)계발활동	2.3
	10	참여활동	38.9		10	교류활동	0.5
중	순위	영역	%	⇒	순위	영역	%
	1	건강·보건활동	93.2		1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29.7
	2	문화예술활동	82.6		2	문화예술활동	18.6
	3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76.4		3	모험개척활동	16.1
	4	과학정보활동	61.5		4	과학정보활동	9.3
	5	봉사활동	60.4		5	참여활동	8.2
	6	모험개척활동	57.9		6	건강·보건활동	7.6
	7	환경보존활동	48.3		7	봉사활동	4.1
	8	자기(인성)계발활동	46.2		8	자기(인성)계발활동	3.2
	9	교류활동	37.0		9	교류활동	2.1
	10	참여활동	31.9		10	환경보존활동	1.2
고	순위	영역	%	⇒	순위	영역	%
	1	건강·보건활동	89.8		1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27.3
	2	문화예술활동	77.8		2	문화예술활동	19.1
	3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65.9		3	모험개척활동	11.0
	4	봉사활동	61.2		4	과학정보활동	10.7
	5	과학정보활동	48.8		5	건강·보건활동	10.0
	6	모험개척활동	48.1		6	봉사활동	5.7
	7	자기(인성)계발활동	39.7		7	참여활동	5.4
	8	환경보존활동	32.4		8	자기(인성)계발활동	5.1
	9	참여활동	26.7		9	교류활동	4.4
	10	교류활동	18.8		10	환경보존활동	1.4

초·중·고등학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등학생 시기에는 폭넓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중심의 청소년활동 제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5년도에는 ‘문화예술활동’과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활동’이 매우 유사한 비율로 1, 2순위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선호도는 2016년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예술활동’은 2순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모험개척활동’이 3순위에, ‘과학정보활동’이 4순위에, 그리고 ‘건강·보건활동’이 5순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진로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지속적인 취업난과 같은 사회불안과 진로교육 및 고용노동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영역의 청소년활동이 그러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체험중심 활동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활동 시간, 장소 및 대상 등에 대한 요구도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 장소, 대상을 분석한 결과, 가장 원하는 시간대는 학교 수업시간 중이며, 장소는 야외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가장 선호하지만 교내보다는 야외에서의 활동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실내외 장소와 환경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이 계획되어야 하겠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는 ‘친구’라는 응답이 최근 3년 동안 85% 내외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에서 친구와의 동반 참여를 비롯한 친구와의 상호교류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중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결과와도 함께 재고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참여 여건 마련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 및 참여하는 주도적 활동은 프로그램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많은 시설·단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삼으며, 주도적 활동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선진국에서도 자발적·주도적인 활동프로그램들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현철 외, 2013).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및 지원정도가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중요성과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 프로그램 선택 시 청소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최근 4년간 9.8%~12.6%의 사이로 나타나며 비교적 강조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는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할 때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시설 기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청소년시설 기반 활동 활성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청소년의 적극적·주도적 활동프로그램을 실시·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1년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수련관이 39.5%, 청소년수련원이 35.7%, 청소년문화의집이 16.1% 등으로 나타나며,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 보다 많은 노력들이 요구된다.

○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 강화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4년간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약 60~70% 정도가 학교에서(학교에서 단체로 참여+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떤 경로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의 참여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활동의 활성화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 청소년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적 자원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청소년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우 보다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한 경우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청소년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지속적으로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내

담당교사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학교교육과정에 기반한 청소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청소년활동의 형평성 제고

(1) 제언의 배경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영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은 높을수록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활동의 경험 격차가 이후 학력과 수입의 격차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國立靑少年教育振興機構, 2010)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정책적 노력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마다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7개 시도별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별 차이는 희망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요인 및 장애요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청소년활동 정책의 개발·보급 등에 있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세부 과제

① 청소년 우대 활성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97% 내외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은 중·상 집단보다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정보 제공, 참가비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청소년활동의 의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청소년들이 참가비 걱정 없이 청소년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청소년증 홍보·발급 및 적용 확대

청소년 우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 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로써, 청소년이 이용료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증,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우대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증 발급을 2017년 19만건에서 2022년 30만건까지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청소년 우대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대시설은 주로 대중교통수단과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의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 건강, 모험 등 보다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청소년의 체험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우대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별 격차 및 지역규모별 격차 해소

17개 시도별로 청소년활동 참여율을 비교한 결과, 최저 93.0%에서 최고 99.4%의

참여율을 보이며, 청소년활동 참여에 있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국 시도에 따른 영역별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비교적 큰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활동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활동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원격 체험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시설 확충 및 청소년버스 운영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VI-3 시도별 청소년활동 최저·최고 참여율

구분	시도별		지역별 격차
	최저 참여율	최고 참여율	
건강·보건활동	86.2%	97.9%	11.7%p
과학정보활동	51.0%	68.0%	17.0%p
교류활동	24.8%	44.2%	19.4%p
모험개척활동	52.5%	74.9%	22.4%p
문화예술활동	72.5%	89.1%	16.6%p
봉사활동	45.8%	75.1%	29.3%p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62.1%	78.7%	16.6%p
환경보존활동	37.5%	58.3%	20.8%p
자기(인성)계발활동	37.3%	58.3%	21.0%p
참여활동	23.5%	36.8%	13.3%p

○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원격 체험 프로그램 제공

시간적·거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학급이나 동아리 혹은 가족 단위 등으로 활동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청소년지도자 등이 직접 찾아가거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별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적별·대상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청소년버스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799개가 설치·운영되며(여성가족부, 2017),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수련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셔틀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시설 중심의 운영은 재정적·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운영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버스는 기존의 셔틀버스처럼 특정 시간에 일정 구간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형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별 맞춤형 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청소년버스를 맞춰 운행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성과 관리

(1) 제언의 배경

청소년활동 참여의 성과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수요자 측면에서도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활동이력이 체계적으로 기록·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활용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정책의 기획과 성과평가에 청소년활동 관련 실태조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세부 과제

① 청소년활동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활동이력 관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시간부족과 더불어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청소년활동 참여의 방해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신청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의 활성화요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약 10% 정도가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며 청소년활동의 정보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게 나타난 점에서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이력에 대한 정보를 취합·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기능 확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에서는 2017년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자원봉사, 국제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시스템을 통합·운영하며,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 검색 및 신청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2018년 10월 23일 인출).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향후 진로탐색, 자기계발 등에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정보서비스의 기능 확대와 활성화가 요구된다. 청소년시설·단체 등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신청·참여기록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진학·취업, 상담,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활동이력제 도입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효능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요자 중심의 더욱 의미 있는 청소년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참여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활동 추천 등의 시스템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내에 구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되면 좋을 것이다.

② 청소년정책 성과지표 개선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라는 최상위 지표 아래, 각 정책영역별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영역에서 ‘단체활동참여율(통계청 사회조사)’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건수(여성가족부 통계)’를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 두 지표가 청소년 주도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정책 분야의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개선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을 크게 ‘활동·참여’, ‘보호·복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이 정책과정(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 단계별로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2018년 10월 22일 인출).

표 VI-4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시·도	시·군·구
정책 형성	계획수립 의 적절성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정책기반 확보수준	-추진체계의 적절성 -자체예산 확보노력(국비 제외)	-추진체계의 적절성 -자체예산 확보노력 (국비 및 시도비 제외)
정책 집행	추진과정 의 효율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정책소통 노력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정책 성과	정책성과 및 효과성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효과성 -청소년정책의 파급효과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효과성

*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www.ypec.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12&srch_menu_nix=Uk3HW7gg에서 2018년 10월 22일 인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성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활동·참여 영역’의 평가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청소년 활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일반적인 목표가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5 청소년활동 실태 성과관리를 위한 청소년정책(활동·참여영역) 평가지표 개선안

평가 영역	평가항목	현 행	개선안
정책 형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 〈생략〉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 〈생략〉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u>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 활용 여부 평가</u>)

○ 청소년백서의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 개선

2016년, 2017년 청소년백서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국내지표로 통계청 사회조사의 ‘단체 참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사회조사의 해당 문항은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는 활동영역(예를 들어, 인증 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백서의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자료는 청소년백서가 학계, 현장,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체계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1) 제언의 배경

본 연구에서는 근거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5개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 본 5개년 연구가 종료되고 2019년 이후 본 연구에서 실시하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 관련 조사로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가 있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도 청소년활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5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표성 있는 충분한 자료 및 근거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2) 세부 과제

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

근거 기반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실태와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5장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관련 3개 조사³⁵⁾의 수행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안을 도출하였다.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정책 중에서도 정책대상의 규모가 가장 큰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근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VI-2>와 같은 조사수행체제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 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구 분	주 요 내 용
조사의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전국 규모의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하는 조항 삽입
수행기관	통계작성기관: 여성가족부 조사업무 수행기관: 업무수행역량을 갖춘 기관(예: 연구기관, 대학, 활동지원기관) 및 여론조사기관(현장실사)
조사주기	2년
조사시기	조사 시행년도 상반기(여름방학 전까지 현장조사 완료)
모집단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표본추출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층화	1차 지역, 2차 학교급 및 학교유형 등
표본추출방법	확률에 비례한 층화추출
가중치	조사결과의 모집단 적용을 위한 가중치 산출
표본크기	17,000명 내외(최소 12,500명)
조사방법	학급방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내용	10개 영역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요인,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또는 성과 관련 요인 등 (※청소년활동 관련 문항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삭제)

* 주: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5장에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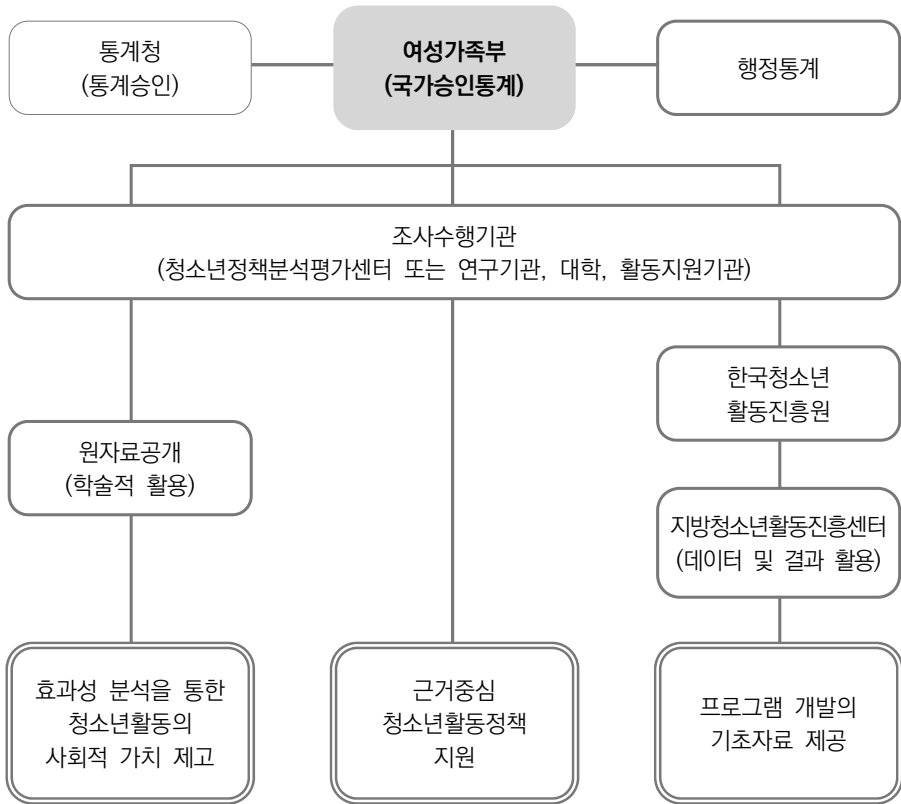


그림 VI-2 조사수행체계(안)

○ 2년 주기 횡단조사 추진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성 있는 국가적 수준의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5년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수행 결과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실태가 매년 조사를 필요로 할 정도로 급변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경우도 조사 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2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년 주기로 공통의 국가승인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는 격년으로 지역별 모듈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VI-3〉). 청소년활동은 현장 중심이어야 하고(문성호 외, 2015), 발달단계 및 지역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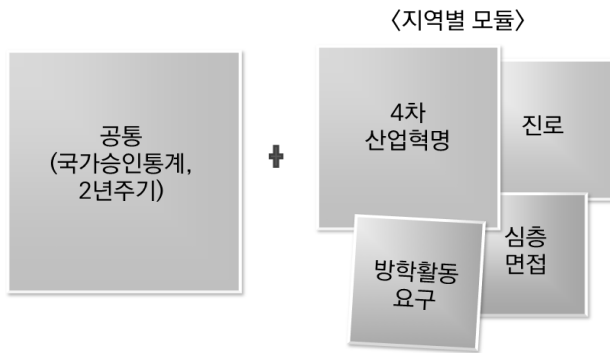


그림 VI-3 조사주기(안)

○ 성과 분석 가능한 중단연구 추진

2년 주기 횡단조사의 추진과 더불어 성과 분석 가능한 중단연구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역별 에라스무스 영향력 분석 보고서 (The Erasmus Impact Study Regional Analysis)’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경험한 남부 유럽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컸고, 동유럽 학생들의 경우 관리직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임희진 외, 2017: 57), 일본의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2010)도 청소년기의 활동경험의 격차가 이후 학력과 수입의 격차를 일으킨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할 때, 활동의 효과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러나 반복횡단조사로는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횡단조사를 추진하면서 조사대상의 일부를 패널로 구성하여 중단연구가 함께 수행된다면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조사내용 개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추진을 위해서는 일부 조사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율이 95%를 웃돌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공급과 수요가 비교적 충분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어떤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활동 참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의 목표가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강화라고 한다면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지표가 실태조사 문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활동의 질 측정가능 문항 추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기를 원하는 활동 영역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영향으로 활동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청소년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지표에 의한 측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청소년활동에의 참여가 자발적이었는지, 본인이 적극적인 편인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문항에 대한 조사이다. 청소년활동의 질 지표 개발 과정을 거쳐 해당 문항이 실태조사에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표 VI-6 청소년활동의 질 측정가능 문항 예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청소년활동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청소년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청소년활동을 스스로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활동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활동은 미래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역 문항

○ 활동의 성과 측정가능 역량지표 추가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는 청소년의 역량개발이다(김현철, 2017). 역량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부터 줄곧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로 설정되어 왔는데, 제4차 기본계획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다가, 제6차 기본계획에서 여성가족부가 ‘역량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역량지표를 선정하고 측정 키트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에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역량지표를 추가한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 개인의 역량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부진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역 청소년의 역량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1) 제언의 배경

본 연구의 5장에서 제안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통합안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국가승인통계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들 조사는 각각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와 청소년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제

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한 법률 조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가 유일하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2항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가 언급되어 있다. 실태조사가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도 필요하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관련 내용 반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국가가’ 청소년활동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7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생략> ② <동일> ③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시책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동일>

○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청소년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가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은 정책 대상의 규모가 가장 큰 청소년 분야의 핵심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과 더불어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조사체계를 갖추고, 실태조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작성승인 절차는 <그림 VI-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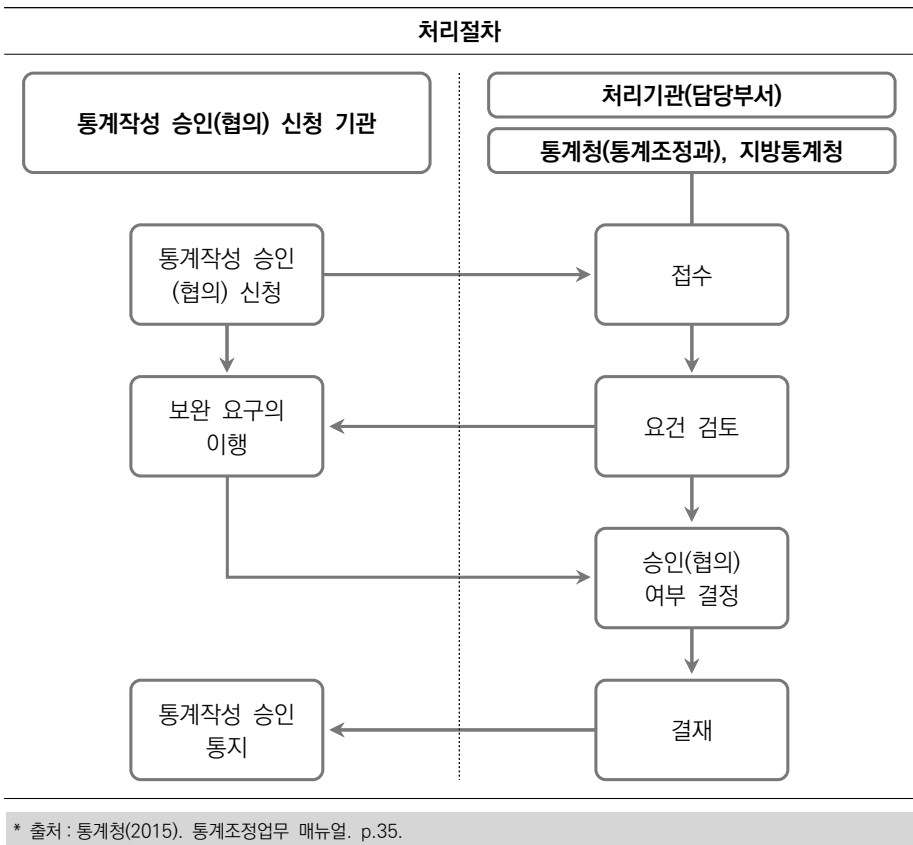


그림 VI-4 통계작성승인 절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현주, 신인순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9), 25-48.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구지윤, 김유나 (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 구태익 (2000). **한국청소년수련체계에 관한 연구-수련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 (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권일남, 최창욱 (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기현, 황세영, 강영배, 이경자 (2015).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연구보고 15-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남정, 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증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미현, 이현우, 정영근 (2011). 청소년 문화활동의 참여동기, 참여태도, 참여빈도 및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8(2), 77-95.
- 김민, 음선필, 오승근 (2017).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김순규, 최혜정, 박신애 (2012).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4(4), 189-207.
- 김우철, 임순선, 한상철 (201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경험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교육학논총**, 32(1), 21-39.
- 김윤정, 고정민 (2015).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5), 53-78.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정수 (2016). **정책학 입문**. 고양: 문우사.
- 김진호 (2007). 청소년활동. 배규한 외 (2007).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호 (2008).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 구조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1-25.
- 김현철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1-13.
-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연구보고 16-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연구보고 13-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연구보고 10-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도종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도종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문성호 (2006).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방안의 모색. **청소년학연구**, 13(6), 201-219.

-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2009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 (2016). **2016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KYWA-2016-117-10).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 (2015). 한국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의 특성. **청소년학연구**, 22(4), 133-157.
- 문성호, 윤동엽, 박승곤, 정지윤 (2014). **2014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선영 (2017). 청소년학 이론적 모델구축을 위한 Youth Work(청소년활동)의 역사적 조망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4(2), 539-558.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법제처 (2018.10.25.).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7&lsId=009681&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180613&vSct=%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20%EC%A7%80%EC%9B%90%EB%B2%95#0000>에서 2018년 10월 25일 인출.
- 법제처 (2018.10.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656&lsId=009908&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180613&vSct=%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20%EC%A7%80%EC%9B%90%EB%B2%95#0000>에서 2018년 10월 25일 인출.

- 법제처 (2018.9.20.).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5&efYd=20180613#0000>에서 2018년 9월 20일 인출.
- 법제처 (2018.10.7.). 청소년활동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53&efYd=20180914#0000>에서 2018년 10월 7일 인출.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 서정아 (2015).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24.
- 송운용 (2016). 청소년활동 경험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의 다중매개 효과검증 -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 **복지상담교육연구**, 5(2), 191-217.
- 송진영, 최영란 (2016).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2(5), 179-207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여성가족부.
- 오해섭, 맹영임, 문호영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연구보고 14-R17).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유진이 (2007). 청소년활동과 학교재량활동 연계를 통한 교사직무연수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4), 21-33.
- 이경상, 조혜영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II -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 (2005). 학교 밖 일상 체험활동의 청소년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371-394.
- 이광호, 변윤연 (2007).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 의미와 제도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5(3), 49-61.
- 이기봉 (2010).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 (2014). **청소년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성은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13-335.
- 이성흙, 윤초희 (2015). 체험중심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인성개발에 미치는 효과. **중등교육연구**, 63(4), 539-570.
- 이응택, 곽현, 이은경 (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연구: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7-R4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0).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7(10), 253-276.
-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IV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연구보고 09-R1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문호영, 조남익 (201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연구보고 17-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송병국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4-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 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06-R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건희, 김웅수, 김경휘 (2013). 청소년활동이 시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179-198.
-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조남익, 김고은 (2014).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191-215.
- 조성심, 주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조영승 (2003). 청소년수련활동의 의미와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4), 317-354.
- 진은설 (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진은설, 임영식 (2009). 청소년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4), 211-234.
- 천정웅, 김정주 (1999).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특성 비교연구-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6(2), 101-122.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www.ypec.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6&srch_menu_nix=36B4Dww8에서 2018년 10월 22일 인출.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www.ypec.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5&srch_menu_nix=Zpk5Osk1에서 2018년 10월 22일 인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www.ypec.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12&srch_menu_nix=Uk3HW7gg에서 2018년 10월 22일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curMenuSn=395>에서 2018년 10월 23일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www.youth.go.kr

최창학, 문성호 (201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의 효과검증: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1-20.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연구보고 16-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연구보고 15-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신윤희 (2012).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활동 경험과의 관계 분석. **실과교육연구**, 18(3), 171-194.

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3-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청 (2015).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대전: 통계청.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5차 조사 코드북: 제5회 학술대회용**.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에서 2016년 3월 14일 인출.

한승희 (1994). **주요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홍은숙, 이화숙 (2015).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137-153.

황여정 (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2010). 「子どもの体験活動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Dormody, T. J., & Seevers, B. S. (1994).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5(2), 65-71.

Morris, J. C. (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eevers, B. S., & Dormody, T. J. (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3(4). [On-line] Available :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html>.

Seevers, B. S., Dormody, T. J., & Clason, D. L. (1995). Developing a scale to research and evaluate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6(2), 28-34.

Wingenbach, G. J. (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 부 록

부록

1. 설문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8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임학진 선임연구위원
문보경 부연구위원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 홍세정 대리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1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또는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응답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X	②	③	④ ○	⑤

02 각 활동에서 기타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②, ③, ④번 중 하나를 선택하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타 활동이 없으면 '① 참여한 적 없음'을 응답합니다.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4) 기타(<u>OOO 교류활동</u>)	①	② ○	③	④

응답할 기타 활동이 없으면 '① 참여한 적 없음'을 응답합니다.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4) 기타()	① ○	②	③	④

03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12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방과 후
② 주말
③ 학교 수업시간 중
④ 방학기간
⑤ 기타()

04 6페이지 상단 중요 지시문 확인

문1부터 문10까지는 56개의 청소년활동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56개 문항에 모두 '① 참여한 적 없음'을 선택한 경우만 문12로 이동하며,
56개 중 하나라도 ②, ③, ④번에 응답했다면 문11 1부터 응답해야 합니다.

※ '문1~문10'의 56개 청소년활동에 모두 '① 참여한 적 없음'이라 응답한 경우만 '문12'로 가세요.
하나라도 ②, ③, ④번에 응답했다면(참여한 적 있음) '문11-1'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PART I. 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건강·보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신체단련활동	①	②	③	④
2)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3) 안전·응급처치활동	①	②	③	④
4) 성교육활동	①	②	③	④
5) 학교폭력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6)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7) 기타()	①	②	③	④

2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모형 및 로봇활동	①	②	③	④
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①	②	③	④
3) 우주천체활동	①	②	③	④
4) 정보캠프활동	①	②	③	④
5) 영상매체활동	①	②	③	④
6) 기타()	①	②	③	④

3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국제교류활동	①	②	③	④
2) 도농(도시-농촌)간 청소년교류활동	①	②	③	④
3)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①	②	③	④

4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모험개척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등반활동	①	②	③	④
2) 야영활동	①	②	③	④
3)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①	②	③	④
4) 극기훈련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①	②	③	④

5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①	②	③	④
2) 미술활동	①	②	③	④
3) 음악활동	①	②	③	④
4) 춤·무용활동	①	②	③	④
5)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①	②	③	④
6) 전통예술활동	①	②	③	④
7)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①	②	③	④
8) 기타()	①	②	③	④

6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봉사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일손돕기활동	①	②	③	④
2) 위문활동	①	②	③	④
3) 돌봄 및 지도활동	①	②	③	④
4) 캠페인활동	①	②	③	④
5) 자선·구호활동	①	②	③	④
6) 재능기부활동	①	②	③	④
7) 기타()	①	②	③	④

7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모의창업활동	①	②	③	④
2) 경제캠프활동	①	②	③	④
3) 진로탐색활동	①	②	③	④
4) 직업현장체험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①	②	③	④

8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생태체험활동	①	②	③	④
2) 환경탐사활동	①	②	③	④
3)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	①	②	③	④
4)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①	②	③	④
5) 환경·시설 보존활동	①	②	③	④
6) 기타()	①	②	③	④

9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자기(인성)개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①	②	③	④
2)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	①	②	③	④
3) 삼성수련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①	②	③	④

10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학생회, 학생자치법정 등)	①	②	③	④
3)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 등)	①	②	③	④
4) 기타()	①	②	③	④

※ ‘문1~문10’의 56개 청소년활동에 모두 ‘① 참여한 적 없음’이라 응답한 경우만 ‘문12’로 가세요.
 하나라도 ②, ③, ④번에 응답했다면(참여한 적 있음) ‘문11-1’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11-1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문1~문10)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공간과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11-2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문1~문10)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 | | |
|------------------|---------------|
| ①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11-3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문1~문10)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까?

- | | |
|----------------|----------------|
| ①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 ②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기대하였다 |
| ⑤ 아주 기대가 컸다 | |

11-4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문1~문10)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구분	전혀 지원이 없다	지원이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지원이 있는 편이다	매우 지원이 많다
1) 부모님 혹은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지도자(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11-5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형태로 청소년활동(문1~문10)에 참여했습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 ③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참여
-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 ⑤ 청소년단체활동(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 ⑧ 개인적으로 참여
- ⑨ 가족과 함께 참여

11-6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경로로 청소년활동(문1~문10)에 참여했습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④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 ⑤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 ⑦ 기타()

11-7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문1~문10)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⑥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 ⑦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 ⑧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 ⑨ 기타()

※ '문12'부터는 모든 학생이 응답합니다.

12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방과 후 | ② 주말 |
| ③ 학교 수업시간 중 | ④ 방학기간 |
| ⑤ 기타(_____) | |

13 청소년활동을 어떤 장소에서 참여하고 싶습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학교 | ②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
| ③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 ④ 야외(공원, 호수, 산, 바다 등) |
| ⑤ 기타(_____) | |

14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면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혼자 | ② 친구 |
| ③ 가족 | ④ 선·후배 |
| ⑤ 기타(_____) | |

15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⑧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 ⑨ 기타(_____)

16 다음의 [보기]에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건강·보건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교류활동
④ 모험개척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봉사활동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계발활동
⑩ 참여활동		

17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한 적 있음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
1) 청소년수련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수련원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문화의집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야영장	①	②	③	④	⑤
5) 유스호스텔	①	②	③	④	⑤
6)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7) 공연 및 전시시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복자관	①	②	③	④	⑤
9)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①	②	③	④	⑤
10) 주민센터, 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①	②	③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①	②	③
3)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①	②	③
4) 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5)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6)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②	③
7)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①	②	③
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①	②	③
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①	②	③

19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식사시간, 취침, 학교수업, 학교숙제, 학원·과외 등의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평일 하루 평균			시간
2)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휴일 하루 평균			시간
3)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시간

20 다음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은 '내가 직업과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떤 지식아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I. 다음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학생의 학업 성적(2018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2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낮은 수준	보통					매우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조사영역		내용	출처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 활동,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와 활동 예시 (여성가족부, 2014a)를 참고하여 작성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와 활동 예시 (여성가족부, 2014a)를 참고하여 작성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를 참고로 문화예술행사를 분류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작성
		참여활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과 문성호 외(2016), 황여정(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문성호 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	최창욱, 전명기(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청소년활동을 통한 자기 발전의 기대수준	최창욱, 전명기(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부모님 혹은 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지원정도	김현철 외(2010)의 연구를 참고로 재구성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의 주요 참여형태	김현철 외(2013)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재수정하여 사용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청소년활동의 주요 참여경로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의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시 가장	임지연 외(2009)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조사영역	내용	출처
장애요인	방해가 된 요인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재수정하여 사용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	문성호 외(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청소년활동 참여 시 가장 희망하는 장소	김현철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활동 참여 시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오해섭 외(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임지연 외(2009)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재수정하여 사용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2, 3순위로 응답)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여성가족부, 2014a)를 참고하여 작성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여부 및 빈도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를 참고하여 작성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과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사용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청소년 여가시간	평일, 휴일, 방학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와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이기봉, 2010)를 참고로 재구성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0개 문항) Rosenberg(1965) 척도(임희진, 송병국, 2014 재인용)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7개 문항)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문항(이경상, 조혜영, 2004)

조사영역	내용	출처
행복감	주관적 행복(6개 문항), 행복도(1개 문항)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 발전연구소(2010)의 주관적 행복 6개 문항과 1개 단일문항(임희진, 송병국, 2014 재인용)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4개 문항)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의 문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30개 문항)	Dormody & Seevers(1994), Morris (1996), Seevers & Dormody(1995), Seevers, Dormody & Clason(1995), Wingenbach(1995)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한 최창욱(2001)의 설문문항

* 출처: 임희진 외(201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pp. 81-88. 재구성 및 수정보완

ABSTRACT

A Study on Youth Activity Survey V

This study conducted “Youth Activity Survey” and collected basic quantitative data on youth participation. It examined adolescents’ individual experience with activities by qualitatively analyzing “youth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s the five-year study that started in 2014 (A Study on Youth Activity Survey, I~V) comes to an end,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youth activity survey.

Although the rate of youth participation for the past 5 years exceeded 95%, the survey and the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deviations in the rates of participation according to type of activity, region, and economic status. Qualitative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actual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dolescents thought that lack of time and information was why they were unable to readily participate in youth activities. It is more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youth activities rather than increase the quantity and to provide the youth with more comprehensive and well-organized information on those activities. If the quality of youth activities improves,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ffective domain, which includes youth’s happiness. Therefore, policies should provide aid to prevent personal circumstances from limiting youth participation in activities.

Based on our findings, we derived 9 policy projects and 17 policy tasks in the following 5 areas: improving the quality of youth activities, increasing the equity of youth activities, managing the outcome of youth participation in such activities, establishing systematic survey system, and establishing a basis for such a survey.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Ⅰ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Ⅹ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시과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탁과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걱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 (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 (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론회(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 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강 현 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 교수)
오 승 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 교수)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 자 문 협 력 진 ◆

김 경 애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김 승 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김 용 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부장)
김 운 상 (포천시청 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센터장)
김 정 주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 소장)
김 진 숙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문 성 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박 찬 열 (마포청소년문화의집 · 관장)
송 연 옥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 과장)
양 승 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 관장)
양 혜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위원)
윤 혜 순 (승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 교수)
이 승 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센터장)
정 경 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정 선 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최 경 옥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초빙교수)

연구보고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 장애인동반성장협회 동반사업장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97-4 94330
979-11-5654-196-7 (세트)



연구보고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974 94330

ISBN 979-11-5654-197-4
ISBN 979-11-5654-196-7 (세트)